금주 법구

쫓지 말라.
미래를 희구하지 말라.
과거의 일은 이미 버려진 것,
미래는 아직 오고 있지 않다.

-중부경-

현대불교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041)734-2680
충남 논산시 연산면 유정리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9월 12일 수요일 (주간) 제 334 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해인사 주민대상 교리강좌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세민)가 오는 28일부터 '제1기 불교 신행 · 기초교리 강좌'를 6개월간 실시하기 위해 수강생을 모집(055-931-1001)하고 있다. 포교국장 관암스님에 따르면 이번 신행 · 기초교리 강좌는 절 아래 마을주민들이 주 대상이다.

관람료를 받는 많은 사찰들이 정작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포교에는 등한시해 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조계종 본사로서 지역민들에게 전법하는 기회를 만들어 신심을 배가시키겠다는 강좌개설 취지가 우선 반갑다.

그러나 이번 강좌가 더욱 눈길을 끄는 부분은, 대부분의 사찰에서 하는 것처럼 교리공부 위주가 아니라는 점이다. 매주 금요일 실시하는 '불교 신행 · 기초교리 강좌' 전반 3개월은 집중적으로 교리 강의를 하고 후반 3개월은 신행과 봉사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수행을 직접 몸으로 익히고 또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 시간을 교리 강좌와 같은 비율로 배정한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지식으로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행'에도 역점을 두어 올바른 신행관을 확립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행교육으로는 예불문이나 천수경, 반야심경 등을 백독(百)씩 하기, 1자1배 사경, 정근, 1080배 등을 매주 과제로 주어 한달에 한번 해인사로 와 직접 점검을 받게 한다. 또 양로원 등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하고, 기초 교리공부와 신행, 봉사 등 이 모든것을 철저하게 이수한 사람에 한해 내년 3월 기초교리 수료증을 수여한다는 방침이다. 관암스님은 "큰 절 아래 사는 주민들일수록 신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민들부터 발심시키려는 것이 해인사 강좌개설의 주 목적"이라면서 "수료생을 위주로 향후 신행모임도 만들고 포교사로 키워 자연스럽게 절에서 자원봉사도 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인사의 지역주민 대상 신행 · 기초교리 강좌는 물론 조계종 사찰의 신도교육 의무화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책상에 앉아 배우는 교리공부와 더불어 신행교육도 강화해, '알과 실천'이 원만히 조화된 신심깊은 불자를 배출하겠다는 해인사의 의욕이 돋보인다.

다른 관람료 사찰들도 지역민 신심 고취에 관심을 가져 사하촌 주민들부터 훌륭한 포교사로 키우겠다는 원력이 확산됐으면 한다.

이경숙(취재 1부 부장)



한글대장경 대중 품으로 조계종과 동국역경원이 37년 만에 이뤄낸 대작불사 한글대장경(318권) 완간을 봉축하는 회향법회가 5일 장충체육관 특설법회장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법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 월운 동국역경원장을 비롯해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경식, 회향법회, 축하공연 순으로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관련기사 24면) 사진=고영배 기자

지자체 '문화유산 해설사' 15개 사찰 배치

"불교 모르면서 안내"

기독교인도 상당수

각 시 · 도가 일부 전통사찰에 배치한 '문화유산해설사'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불교를 왜곡시킬 소지마저 안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유산해설사는 문화유적과 지역문화 등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해 파견된 사람들로, 문화관광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다. 각 자치단체는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을 실시,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문화유산해설사는 서울과 인천, 충남을 제외한 12개 시 · 도에서 자체적으로 양성, 전국 110여 곳의 유적지에 모두 460여명이 배치됐으며, 이중 법어사, 월정사, 파계사, 법주사 등 15개 사찰에서 33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사찰 가운데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찰은 문화유산해설사들의 활동이 불교에 대한 이해 없이 단편적인 문화재 설명에만 그치거나, 심지어는 왜곡 설명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15개 사찰 중 11개 사찰의 문화유산해설사들이 개신교 · 천주교인이거나 무종교인인 것으로 드러나 사찰 문화유산해설사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ㅇ사찰의 문화유산해설사는 개신교인으로 불교문화재 용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사찰관계자를 불안케 하고 있고, 대구 ㅇ사찰 역시 개신교인으로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어 사찰의 불만이 높다. 또 대구 ㅍ사찰에서는 사찰예절조차 몰라 사찰 관계자가 시에 항의까지 했으며, 부산 ㅂ사찰은 관람객들로부터 일부 문화유산해설사의 설명이 부족하고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문화관광부가 문화유산해설사 제도를 불교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데다, 자치단체마저 형식적인 배치에만 급급할 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포교사단 하영태 사무국장은 "사찰에 배치되는 문화유산해설사의 경우 종단이나 사찰 차원에서 안내봉사자를 양성하고 문화관광부가 이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김태복 소장 '무죄'

대법원 "횡령 아니다"

육군 101여단 군법당 불사 시주금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김태복(45) 육군 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4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복(45) 육군 소장에 대해 일부 무죄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소장이 부하 장교가 유용했다가 변상한 600만원의 부대 운영비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부대비품 구입에 사용한 것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만큼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김 모씨로부터 2,000만원)뇌물수수와 관련한 피고인(김태복 소장)측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판결 중 업무상횡령죄와 뇌물수수죄와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업무상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 새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 업무상횡령 부분에서는 무죄를, 뇌물수수 부분에서는 유죄를 인정해 군 검찰과 김 소장의 손을 나란히 들어준 셈이어서 향후 재판결과와 복직 여부가 주목된다.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는 "유리한 증인은 모두 채택이 묵살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이 계속됐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관련기사 9면 김재경 기자

사면 종헌개정 '불발'

교육원장-무비 스님 포교원장-도영 스님 선출

조계종 151회 임시종회

조계종 종회의원들이 징계자 사면에 대해 아직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조계종 사면은 징계자들의 참회와 정화회의 해체, 정영스님의 대법원 소송취하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당분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회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면을 위해 필요한 사면 복권 관련 종헌 개정안도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는 4일부터 6일까지 제151회 임시종회를 열어 월하스님 통도사 방장 추대, 교육원장 무비 스님, 포교원장 도영스님 선출, 조계종-(재)선학원 관계 정상화안 채택 등 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특히 조계종-선학원 관계 정상화안 채택으로 23년간 심각한 갈등상태에 놓여있던 조계종-선학원 관계가 정상으로 복귀됐다.

이번 종회에서는 중앙승가대 이전 특별회계 47억 4천여만원, 일반회계 166억 5천여만원, 시설회계 42억 3천여만원, 신도교무금 4억 4천여만원 등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보선, 영배 정인스님을 동국학원 이사로 추천동의 했다.

또 승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법계법과 승가고시법을 개정하는 한편 교육원장의 교육원 예산의 집행권한을 신설하는 교육법을 통과시켰다. 군승에 대한 제적절차 간소화와 말사주지 자격과 의무를 강화하는 종무원법도 개정했다.

한편 이번 종회는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와 우회도로 건설 △종단 폭력 근절을 위한 결의문과 네팔 룸비니성지 대형댐 건설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관련기사 2 · 3면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중국 하남성 · 산시성 불교유적 순례

선불교의 뿌리를 찾아서

현대불교는 중국 선불교의 맥을 직접 느끼고자 '중국 불교문화기행'을 기획해 하남성 지방의 고도 정주, 낙양, 등봉을 비롯해 혜초, 원측 스님 등 신라 고승들의 발자취가 스며 있는 산시성 서안의 불교 유적을 찾아갑니다.



◇진시왕릉 병마용.

중국 무술영화의 무대로 더욱 잘 알려진 소림사에서는 인도의 고승 보리달마가 9년간 면벽좌선을 통해 중국 선불교를 진작시켰던 역사의 흔적과 무술시범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 3대 석굴중의 하나인 용문석굴에서 10만 여 불상들을 참배하게 되면 엄청난 규모에 저절로 탄성이 쏟아질 것입니다. 중국 최초(68년)의 사찰인 백마사에서는 원나라때 만들어진 중국의 국보 18나한상을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시성 서안에서는 진시왕릉인 병마용을 비롯해 부처님 진신지골사리가 모셔진 법문사와 중국 역사상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는 양귀비의 자취가 어린 화청지 등을 둘러보게 됩니다. 또 북경에서는 천안문과 이화원, 만리장성 등도 답사합니다.

만리장성 · 소림사 · 용문석굴 · 법문사 · 병마용

◇일정: 10월22일(월)~10월27일(토) 5박6일
◇참가비: 95만원(포함내역: 공항세, 비자비/ 단 여권수속비는 별도)
◇접수및문의: 02)333-8091(담당: 김지훈, 윤지영)
◇접수기간: 10월6일(토)까지(여권 소지자는 1주일 연장 가능)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출발시간과 집합 장소는 추후 공고합니다.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 아주세계여행사
●후 원 : 중국하남여유집단유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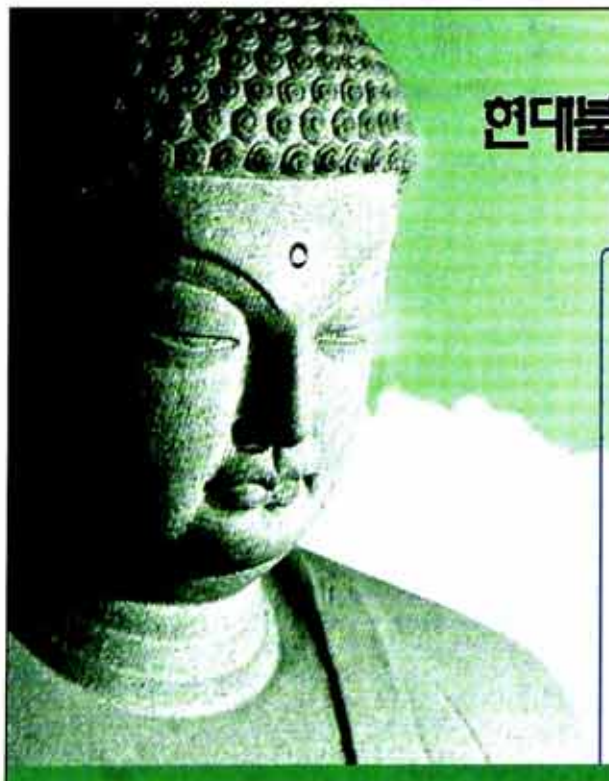
장 군 죽 비

◇98년 조계종 분규 상처, 월하 스님 통도사 방장 재추대로 아물기 시작, 덧나지 않게 사면 문제도 빨리 매듭되기를… (9면)

◇흔들리는 믿음은 병, 미국 보울링 그린 대학 심리학과 연구팀, 투병 환자에게 종교적 회의는 '독'이라는 조사 결과 발표. (10면)

◇불교계에도 韓流바람이 부는가? 중국 스님 27명 신흥사에서 한국 불교 수행 전통 체험을 위해 용맹정진. (11면)

◇불교환경연대 출범! 풀 한 포기 동물이 하나도 부처로 아는 이 시대의 보살들에게 '환경 보호'는 제7바라밀. (23면)



스님 좋고 신도 좋은 신용카드 – 불자는 부다피아 카드로 산다!

현대불교와 하나은행이 제휴한 불자신용카드 "부다피아 하나카드" 발급 개시

하나은행 비자카드 특전 + 재물보시! 부다피아 하나카드엔



특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1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 보시금은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접수 된 카드발급 부분에 한해서 적용되며(은행이나 기타카드대리점 제외)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발급 받은 부다피아 카드로 6개월 이내에 현금서비스를 포함하여 5만원 이상의 사용 실적이 있을 경우 7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2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 연꽃마을, 소쩍새마을,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복지 단체에 제공됩니다.
• 군법당, 교도소, 병원 등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필요한 곳에 법보시용으로도 쓰입니다.
• 결식아동돕기 등 아동 재활을 위한 기금으로 쓰입니다.

3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관리 됩니다.
• 현대불교신문은 불자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보시행의 참 뜻을 받들어 기금운영 상황을 현대불교신문 지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 관리합니다.

특별이벤트 · 초기 연회비 면제
· 9월 1일-10월 31일 가입자는 S-OIL 4천원 주유쿠폰 증정

신청1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신청2 주유할인 서비스
신청3 무료보험 서비스
· 휴일 상해보험 · 해외여행자보험
· 항공상해보험 · 통소니안심보험
신청4 롯데월드 무료입장 서비스
신청5 스피드 카드론

카드사업에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집합니다. (이력서 제출)

●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 대표 : 02)6678-1115~6
· 부산지사 051)463-5331~2 · 영주지국 054)674-1199 · 목포지국 061)244-4520 · 강릉지사 033)643-5599 · 대구지사 053)768-8008 · 포항지국 054)284-4575
· 충청지사 042)527-0559 · 광주지사 062)375-9986 · 밀양지국 055)353-1196 · 전북지사 063)255-2274 · 울산지사 055)387-1500

사 설

종단 화합 신호탄 기대

월하 스님이 4일, 조계종 임시중앙종회에서 2년여 만에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으로 재추대됐다. 방장추대건은 일부 논란도 있었으나 종단의 화합과 노스님의 참회문 발표 등을 감안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정화회의를 이끈 월하 스님은 1999년은 종단의 내분과정에서 방장직을 박탈당한 바 있다. 또 최근까지 현 집행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각종 소송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종단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준비해온 총무원장 정대 스님을 위시한 현 집행부의 노력은 노선사의 마음을 움직여 지난 8월 21일 "모든 책임은 노납에게 있다. 종단문제와 관련한 일체의 소송을 취하했으며, 노납의 문도와 총림대중도 노납의 심중을 헤아려 참회하고 있다"는 참회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종단의 가장 커다란 숙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무상한 세상이다 보니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은 실수를 않는 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부처님은 율장에서 참회하는 사람은 무조건 용서해주도록 명시해 놓았다. 그것이 또한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승가의 화합을 유지하는 첩경이기도 한 것이다.

98년 조계종 사태와 같은 폭력적 분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청정승풍의 진작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화합을 위한 대승적 조치들이 원칙에 입각해 시행돼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총무원 집행부의 화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성원을 보낸다.

사면 대상자들 역시 뼈를 깎는 자숙이 요구된다. 또한 각자의 이해가 달라도 종단문제를 세속법에 의지해 해결하려는 일체의 시도가 차제에 완전히 없어지기를 고대해 본다. 분쟁이 생기면 율에 의지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세속법에 의지해 종단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월하 스님의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추대를 계기로 조계종이 안정과 화합 속에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법원 판결은 사필귀정

일은 반드시 옳게 매듭지어진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참 사례를 볼 수 있는 사건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다.

군법당을 건립할 때 지휘관이 시주금을 받아 법당건립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을 개신교를 믿는 한 군인이 뇌물이라고 무고하여 종교간의 갈등까지 유발시킨 것이 육군 101여단 김태복장군 시주금 뇌물사건의 본질이다. 그간 개신교를 믿는 황모 중령의 무고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온 군검찰에서 뇌물수수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등군사법원에 제소해 불구속기소를 당하고 군복을 벗은지 3년만에 지난 4일 대법원 판결에서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함으로써 김태복장군의 무죄가 일부 입증됐다.

우리가 이번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온 이유는 김태복 장군이 불자여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신앙 행위가 다른 신앙인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은 개인을 넘어 한 집단 또는 사회를 불신과 반목의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김태복 장군 개인의 명예는 물론이요, 불교계 전체의 명예도 일부나마 회복이 되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군 장성 전체가 그동안의 소극적인 신앙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신행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다. 사실 그 동안 불자 지휘관은 '부모나 아내가 불교를 믿지요'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불교라고 떳떳이 드러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 타종교의 지휘관은 자기 종교의 행사참석에 적극적인 정도를 넘어 타 종교를 믿는 부하까지 동원하는 판에 대부분의 불자 지휘관은 '종교문제는 중립'임을 말하는 등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문제는 또한 불자 지휘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불교계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불교계 전체에서도 군 포교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여 군 포교를 활성화해야만 비슷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굼벵이가 허물을 벗고 한여름의 푸르름을 노래하는 매미가 되듯이 이 사건을 군포교 활성화의 대전기로 승화시켜야 한다.

월하스님 통도사 방장 재추대

조계종 종회 만장일치 결의…"종단 화합 전기"

주지엔 현문스님 임명



◇주지 현문 스님등 통도사 스님들이 월하스님 방장 추대건이 통과되자 종회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1998년의 조계종 분규사태와 관련 99년 1월 방장자격을 상실한 월하 스님이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에 재 추대됐다.

98년 조계종 분규의 중심축이었던 정화회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왔던 월하 스님의 통도사 방장추대는 98년 분규가 종식됐음을 의미하며 사면의 물꼬를 트는 종단 화합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통도사가 한국불교 3대 총림임에도 불구하고 분규로 인해 99년 총림이 해제되고, 방장이 공석인 상태에 처하면서 지속돼온 내분이 해소되면서 통도사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4일 개회한 제 151회 조계종 임시종회에 상정된 월하 스님 방장추대 건은 추대여부와 방식을 둘러싸고 찬반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휴회를 거듭하며 전격 통과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은 종회개회 인사말을 통해 "이번 회기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 통도사 방장 추대 건이다. 3보 사찰중 하나인 통도사가 종권으로 돌아와 대동 화합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종회의원들에게 추대 결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종회에서 방장 추대 건이 본격 논의에 들어가자 아직 계류 중인 법적 소송문제와 징계부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면서 휴회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2시간여의 휴회를 거쳐 다시 열린 종회에서 55년 정화대책위원회 비구 측 대표 5명중 유일한 생존자인 월하 스님을 예우해야 한다는 의견과 종단 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6일, 주지 직무 대행 현문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현문 스님 통도사 주지임명은 방장 월하 스님의 추천에 의해 이뤄졌다. 김원우기자

승가대 정상화 '파란불'

추경예산 42억원 통과…안암학사 재계약

종범스님 총장복귀 시사

안암학사 임대계약과 재정확보 문제 등으로 혼란을 거듭해 온 중앙승가대 문제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학교 측의 요구를 수용하고, 42억3천만원의 중앙승가대 추경예산안이 종회에서 통과됨으로써 학교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다.

총무원장을 대신해 총무부장 원택스님과 중앙승가대 교학국장 정묵스님, 학생회장 일음스님, 총동문회장 원행스님은 6일 총무원에서 종회의장 지하스님이 배석한 가운데 학교 측이 요구한 안암학사 재계약 등 4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사항은 △안암학사 임대계약은 시설투자 및 임대금액, 변제 문제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 재계약 할 것 △중앙승가대 총장, 총학생회장, 동문회장, 법인사무처장, 총무원 총무부장으로 수습대책위를 구성, 안암학사 문제처리 △법인사무처 소임자 직위해제 및 학료 자체감사 실시 △학교 주체성 확보 및 행정업무 자율성 보장 △학교 재정 즉각 집행 △영구적인 재정지원책 수립 등이다.

이에 따라 종회가 열린 4일부터 총무원 청사 앞과 종회 본회의장에서 요구사항 관철을 주장하며 연좌시위를 벌였던 중앙승가대 학인 100여명은 6일 오후 해산했다.

한편 그동안 총장직 사퇴의사를 굽히지 않았던 종범스님은 4일 학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인들의 의향을 고려하고 모든 분들의 뜻을 수렴한 다음 최종 결정하겠다"며 학교 복귀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한명우 기자

포교사단 지도자연수 15 · 16일 수덕사서

조계종 포교사단은 15~16일 이틀간 예산 수덕사에서 '포교사단 전국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각 지역 현안과 포교활동 사례 및 활동프로그램 공유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연수회는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의 '생명사상과 포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의와 함께, 포교 종책에 대한 이해, 각 지역별 · 팀별 활동 이해의 시간, 선무도, 포교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로 진행된다. 한명우 기자

충청 본말사 주지 연수

조계종 충청지역 본말사 주지 연수회가 교육원 주최로 6~7일 천안 주택은행연수원에서 열렸다.

모두 151명의 본말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는 '신도교육 및 모범사례 발표' '사찰환경' '사찰운영론' 등에 대한 강의와 지역불교 현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또 종단의 주요 종책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총무원, 포교원 관계자들이 참석, 참가 주지스님들을 대상으로 종무행정 및 신도교육에 대한 설명했다.

한편 교육원은 12~13일 송원리 조트에서 호남지역 본 · 말사 주지 연수회를 개최한다. 한명우 기자

북한산 관통로 · 미륵산 케이블카

조계종 환경위 "반대 운동"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성타)는 7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과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환경위원회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로 인해 미타사 원각사 회룡사 등 17개 사찰이 직접적인 환경 훼손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며 조계종 사회부, 제25교구 봉선사,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계획노선 주변의 사지 등 문화재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는 한편 행정소송 등 노선 변경을 위한 공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위원회는 또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케이블카 설치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사찰 경내지의 훼손 및 오수 발생 등 생태계 파괴를 불러온다고 결론짓고 지역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반대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환경위원회는 울진 불영사 인근 속사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사회부와 불교환경연대의 현장조사 실시 후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으며 방생 지침서 발간, 본말사 환경의제 개발, 사찰환경보존 기본대책 연구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김재경 기자

중앙신도회 웹진 홍보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회원 및 불자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이메일을 통한 웹진 발간을 4일부터 시작했다.

웹진에는 교계 · 신행단체 · 중앙신도회와 관련한 소식이 실려 있으며, 중앙신도회는 앞으로 주 1회 교계 및 중앙신도회소식과 소속 단체의 행사와 동정을 알릴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행자교육원 21기 239명 입교

조계종 제21기 행자교육원이 4일 직지사에서 개원, 26일까지 진행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4일 오후 대상자들을 소집, 신체검사 등 행자교육원 입교자에 대한 갈마를 실시한 뒤 5일 아침 7시 고불식을 시작으로 3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21기 행자교육원에는 남(男)행자 135명, 여(女)행자 104명 등 모두 239명이 입교했으며, 26일 회향식과 수료식을 봉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자들은 부처님 생애, 기초교리, 작법, 사미율의 등 9개 과목에 대한 교과과정과 삼천배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한편 조계종 계단위원회는 이날 회향식에 맞춰 5급 승가고시 합격자에 대해 수계식을 봉행한다. 한명우 기자

현대만평

김 영 민



문화유산 新 수난

팔관회(八關會)

팔관회는 팔재계의 실천을 통하여 나라의 태평과 안녕을 기원하는 법회로서,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전 국민이 동참하는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팔재계는 불자들이 마음을 맑히는 수행으로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그릇됨을 방지하여, 선을 기르고 악을 막아 공덕을 쌓은 일입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에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고장 부산에서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제불보살님과 대덕스님들을 모시고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기 위하여 전통불교의식인 **"팔관회"**를 지극한 마음으로 봉행하고자 합니다.

팔재계(八齋戒)

1. 불 살 생(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2. 불 투 도(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3. 불 음 행(음행을 하지 말라)
4. 불 망 어(거짓말(두 말, 악한 말, 꾸미는 말, 허황된 말)을 하지 말라)
5. 불 음 주(술을 마시고 취하지 말라)
6. 지나치게 향을 바르고 춤추지 말라
7.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라(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지 말라)
8. 때아닌 때 먹지 말라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성공개최 기원

팔관회



■ 주 최 ■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867-0501

9월 23일 일 오후 3시

해운대 백사장

동참방법

1. 팔관회 연등 접수(1등 10,000원)
   각자의 소원을 담은 연등으로 해운대 백사장을 장엄
2. 호법광명등 접수(1등 100,000원 / 팜플렛에 소개)
   각 사찰(단체)의 신도대표들과 불자 및 각계 지도자
3. 수륙고혼 천도재 접수(영가 1위 5,000원)
   전통의식으로 수륙고혼 천도재 봉행

실천운동

「자비의 쌀」 모으기

일일 한 끼를 금식하고 절약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자비의 쌀은 9월 23일(일) 오후 3시

"팔관회"가 열리는 "해운대 백사장"으로 직접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후원■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의회 ·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 · 부산불교신도회 · 부산불교실업인회 · 釜山日報 ·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 MBC 부산문화방송 · PSB부산방송 · BBS 부산불교방송 · 부산불교텔레비전 · 대한불교신문外 교계 각 언론사

목어

사찰 관람료



돈을 안 받으면 안될까?

돈이 없으면 참 불편하다, 하고자 하는 일을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참 불편할 것 같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민생고를 해결하지 못할 수준이라면 더욱 비참해지는 것이 돈이다. 며칠 전 공적인 일로 부산을 간김에 두 곳의 사찰을 방문했는데 한 곳은 관람료를 받는 사찰이었고 다른 한곳은 관람료를 받지 않는 사찰이었다. 사찰에 참배가면서 관람료를 내고 들어간다는 것이 좀은 그렇다. 국립공원 내에 있는 일부 사찰의 관람료 징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말썽이 되어 온 터인 만큼 문화재를 보유하지 않는 전통사찰의 관람료도 좀 깊이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물론 신도들에게는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구분을 하는 것 같아 그 또한 마음이 편치 않다.

사찰은 사부대중의 신앙도량이다. 스님들이 그 안에서 수도를 하고 대중을 위해 설법을 해 주는 곳이기도 하다. 종교적 의미를 떠나서도 문화재적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곳이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역사가 오래이다 보니 그동안 쌓인 문화적 가치 또한 크고 다른 문화적 면면을 압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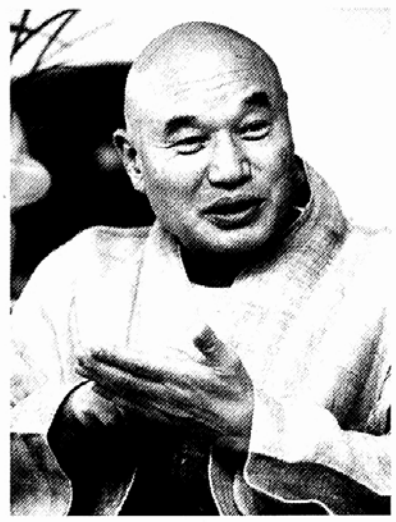
사찰을 어떤 의미로 볼 것인가. 이는 말하지 않아도 불자들에겐 신성한 종교적 도량이다. 이런 도량을 관람료 운운하면서 볼거리로 삼아서는 안될 일이다. 불교는 한국의 문화현상이란 이해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충분히 지닌다고 보여진다. 문화재라고 가정 하더라도 불교도적인 관람에서는 대중들의 그런 인식을 종교적인 신앙으로 승화시킬 방도를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 스스로 관람료를 받고 관람의 대상으로 불교를 전락시키는 일은 힘을 합해 삼가야될 일이다. 설령 절구경을 목적으로 찾아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교적인 마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불교도나 절이 해야할 의무일 것 같다. 관람료가 스님들이 수도를 하거나 신도들에게 법을 설하는데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이근후(열린마음클리닉 원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조계종 새 교육원장 무비 스님 — 인터뷰 — 조계종 새 포교원장 도영 스님

"승려 자질향상 당면과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다. 소감은

"개인적으로는 교육 분야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오랫동안 종사해 왔고 그런 인연으로 소임을 맡게 됐다. 무거운 돌이든 가벼운 돌이든 최선을 다해 든다는 각오로 임할 생각이다."

◆가장 비중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승려 자질 향상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각종 승가고시를 엄격히 시행하고 그 밖의 연수교육에도 비중을 두어 스님들의 참여를 유도할 생각이다. 인격은 지식만으로는 갖춰지지 않는다. 하지만 승가고시나 각종 연수 밖에는 승려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우스님께서도 승려교육만이 불교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셨다. 강조하지만 승려 자질 향상에 모든 것을 걸 생각이다."

각종 승가고시 엄격 시행
승가교육 전통-현대 조화

◆승가교육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잡아가고 있다. 평가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다.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는 승가상은 전통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고 전통을 무시해서도 안된다. 강원과 동국대 중앙승가대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종단교육 성패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강원과 중앙승가대, 동국대가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 교육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일본 불교는 명치유신 이후 현대화 작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수 백년 전통을 무섭게 지켜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은 조화다."

◆중앙승가대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방법이 없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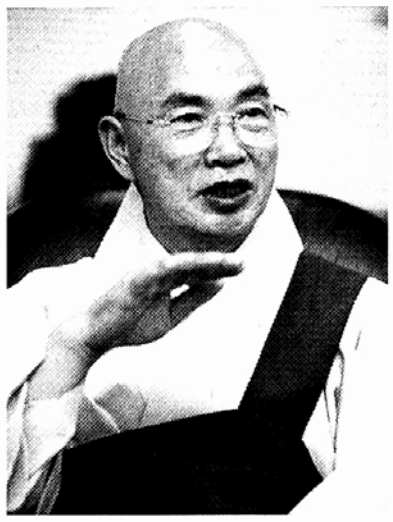
"그 문제는 아직 상황파악이 안돼 생각해보지 못했다. 몸으로 부딪치면서 연구할 것이다."

◆교육원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은.

"승려 자질 향상 외에 특별한 것이 있겠는가. 교육원은 그동안 행자교육원을 정착시키고 3급 승가고시까지 시행하는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 스님들이 종단이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것이 무엇보다도 큰 성과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승가교육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무비 스님은? 1958년 덕진 스님을 은사로 통산 스님을 계사로 범어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65년 통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4년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월정사 탄허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으며, 범어사 강원을 비롯해 제방 강원에서 강사와 강주를 지냈다. 1981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을 거쳐 1997년 조계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장과 1999년 조계종 승가고시위원장을 역임했다.

"군포교 활성화 다각 검토"



◆99년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한 당사자로서 종단의 포교행정을 책임지게 된 소감은.

"지역 포교 활동을 하면서 포교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며 살았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긴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부딪치면 잘 될것으로 본다."

◆종단차원에서 실시하는 신도기본교육이 이달부터 전국 사찰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게 된다. 미비한 것은 없는지.

"신도기본교육에 대한 지방의 스님들이나 신도들의 반응은 아직까지 미약하다. 스님들이나 신도들 모두가 유익하다고 느끼고 꼭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기본교육 수준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도 고민해 볼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한 체계를 세우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직장직능 불교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직장법회는 훌륭한 포교수단이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계속 지속시켜 나가되 아직 법회가 조직되지 않은 곳은 서둘러 조직되도록 할 것이다."

◆주5일제와 관련해 구상중인 포교 프로그램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못했지만 포교연구실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집중 연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사찰들이 사찰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군 · 청소년 포교에 대한 견해는.

"군 포교는 재임기간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다. 새 불자를 만들 수 있는 곳은 군 밖에 없다. 그리고 군 불자는 청년회, 거사, 가정 불교로 이어진다. 군 포교 활성화는 포교원뿐만 아니라

신도 기본교육 체계화
직장직능법회 확산 노력

모든 불자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할 문제다. 군 법사들 역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 스님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군불교위원회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다."

◆포교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기업인이 포교를 지원하는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현재의 포교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실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앙차원의 불교실업인회가 언젠가는 있어야 할 것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도영 스님은? 1961년 월주 스님을 은사로 금오 스님을 계사로 금산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0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법주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금산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1980년부터 지금까지 금산사 주지를 맡아왔다. 1996년 불교텔레비전 이사, 김제경실련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99년 조계종 재심호계위원을 지냈다.

조계종-선학원 '관계 정상화안' 만장일치 통과

제 151회 조계종 임시중앙종회에서 초점의 대상이 되었던 것 중 하나는 6일 안건으로 오른 조계종과 (재)선학원의 관계정상화안 통과여부였다. 조계종 종회의 '명칭변경' '조계종 이사 추천' 요구와 선학원 이사들의 선거권 피선거권, 종무직 임명권 제한등의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계정상화안이 미련돼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양측이 모두 '조계종은 하나되어야 한다' 명제앞에 관계정상화안을 채택했다. 민감한 현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6일 오전과 오후 각각 열린 조계종 종회와 선학원 이사회의 현장 분위기를 스케치했다.

조계종 종회 현장

관계회복 중시 채택 결정

일부 의원들이 현재 '재단법인 선학원'으로 되어있는 명칭을 '조계종 선학원'이라고 변경하고 선학원 이사 중 1~2명은 조계종이 추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자구 수정을 요구했으나, 대다수 의원들은 23년간 단절되어온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관계 정상화 안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또한 어떤 의원은 선학원 사찰의 부실한 현황과 타종단 스님들이 선학원을 통해 조계종 승려로 행세하는 사례를 얘기하며, 선학원이 조계종에 편입될 경우 조계종 위상에 타격이 된다며 반대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합의안중 이번 관계 정상화 안이 가장 조계종의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담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아 결국 채택까지 이르렀다.

종회는 같은날 오후에 열리는 선학원 이사회에서 관계 정상화 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일단 관계정상화 안은 통과시키고, 선학원 이사회 추인 후 선학원 관련 조계종 종법을 개정키로 했다.

선학원 이사회 현장

"재단 정체성 회복 기회"

같은날 오후 1시 안국동 중앙선원에서 열린 선학원 이사회는 15명의 이사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오전에 열린 조계종 종회에서 관계 정상화 안이 채택됐다는 정보가 입수됐지만 이사들간 의견이 양분된 가운데 투표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자는 얘기까지 나와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상황까지 갔다.

선학원 이사회에서 쟁점이 된 상황은 종단에 귀속되면서도 선거권 피선거권 종무직 임명권에 제한을 받는 다는 조계종의 권리제한에 대해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특히 한 이사는 선학원이 모든 의무조항을 이행하도록 돼 있지만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는 불평등 조약이 아니냐며 반대했다. 또 재단이 새로 사찰을 등록받지 못할 경우 존재 의미가 있느냐는 의견도 개진됐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번이 조계종-선학원의 관계정립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며, 재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결국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감 사 드 립 니 다

지난 9월 5일(음 7월 18일) 장충체육관 특설법회장에서 봉행한 **"한글대장경완간회향법회"**에 동참하신 종단과 종단협의회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정·관계의 지도자를 비롯한 사부대중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동참 해 주신 1만 3천여 사부대중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한글대장경완간회향법회"**가 여법하고 성대하게 봉행되어 종단의 3대사업 중 하나인 **"역경불사"**가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회향법회와 역경불사를 위해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지원해 주신 전국의 교구 본사 및 대소사암과 불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법회장에 자리가 부족해 입장하지도 못하고 먼길을 되돌아 가신 3천여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불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은 앞으로 종단 역경 불사에 크나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대장경완간회향법회

봉행위원장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서정대
동국대학교 총 장 송석구
집행위원장 동국역경원장 월 운 합장

일주문



중고생 21명에 장학금

도후 철원 심원사 주지는 8일 지장전에서 철원군내 중고생 21명에게 총 6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15일 금산서 권투경기

대명 분황사 총무는 15일 오후 2시 금산 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세계권투 타이틀매치 세미파이널 경기에 참가한다.



'대중견성론' 출판회

김재영 청보리회 회장은 22일 오후 5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대중견성론〉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다.



법성회 창립 8돌 기념식

이만호 충북예비역불자연합회 법성회장은 21일 오후 7시 청주 충북불교문화회관 4층에서 창립8주년 기념식을 봉행한다.



광동고 법당 개원

고흥택 광동고 교장은 13일 오전 10시 광동고 별관 3층 선불장에서 법당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인 사

동 국 대

서울캠퍼스= △경영대학원장: 김태홍 △경영대학장: 이승영 △교육대학원: 교학부장: 이종석 △국제정보대학원 교학부장: 이영면 △분당한방병원 사무국장: 윤범대 △학생선발실장: 황우열 △교육개혁추진단 팀장: 전영일 △발전기금팀장: 황주환 △총무팀장: 박광호 △가상대학 교학과장: 박승종

경주캠퍼스= △사무처장: 신일식 △시설관리팀장: 이철우 △의과대학 교학과장: 한대호 △금장생활관 관리과장: 석광열

"환경바라밀 운동으로 국토청정"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



"위대한 환경사상가이자 실천가이신 부처님께서 나와 이웃, 자연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행을 펼쳤듯이, 동체대비의 큰 가르침을 좌표로 삼아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되찾는 환경바라밀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6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출범한 불교환경연대 상임 공동대표에 선임된 수경 스님(실상사, 선덕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상임대표)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지 않고서는 보살도, 돌국토도 없다"면서 "산과 강, 바다, 갯벌과 이웃을 살리며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환경보살이 되겠다"고 말했다.

백두대간 사찰·생태 조사
환경교육·정책 감시 연구

"미물까지도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지 못하고서는, 돌 하나 놓인 자리의 의미를 존중하지 않고서는 보살의 향훈이 피어오르지 못한다"고 말한 스님은 저항과 반대 보다는 생명의 존중과 살림의 정신 및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불교다운' 환경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경 스님은 백두대간의 주요 장소는 물론이고 명산의 중심부에 있는 사찰을 네트워크로 연결, 실질적인 상설 범불교단체를 출범시켜 그동안 사안별로 대응해 왔던 불교계의 한시적인 환경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백두대간에 소재한 사찰 일원의 수행환경과 자연생태계 조사를 실시, 백두대간의 자연, 문화, 종교환경 보존을 도모해 청정국토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1차적으로 내년까지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권역을 조사해 보고서 및 지도를 제작하는 한편 불교환경론의 정립, 불교환경 교육, 환경관련 정책-행정-의정활동의 감시, 환경법령 연구 및 제개정 활동 등을 펼친다는 방침.

지난해 8월 29일 창립된 지리산살리기 댐 백지화 범불교연대의 지리산댐 백지화 및 낙동강, 새만금갯벌 살리기 등의 성과를 이어받아 새로운 불교환경단체로 확대 재편된 불교환경연대의 선장을 맡은 수경 스님.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본분납자로서 몸소 실천하는 종교 환경운동의 길잡이가 됨은 물론 시민환경운동이 사상적, 실천적으로 깊이를 더하는 데 온 몸을 던지겠다며 "만일 보살이 청정한 국토를 얻으려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청정하게 가져야 하므로 불제자인 우리는 마땅히 환경보살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1천여 회원 교류 활성화 주력"

석림동문회장 법타 스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듯이 회장 소임을 맡는 동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석림보배들을 하나로 꿰는 일에 진력할 생각입니다."

6일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열린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18차 정기총회에서 10대 회장으로 선출된 법타(56·은해사 회주) 스님은 석림동문회 조직을 튼실이 하는 것이 모교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지름길이라며 조직 활성화를 최우선 사업으로 꼽았다.

지난 77년 창립된 석림동문회의 회원은 약 1천여명이지만 동문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은 극히 일부다.

특히 조계종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어려워진 상태다.

스님은 "새 사무총장 상운(조계종 포교부장) 스님을 중심으로 새 집행부를 구성, 학교와 종단 그리고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법타 스님은 67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해 현재 일연학연구원 이사장, 은해사 회주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나를 버려야 참봉사"

사회복지 총리상 김옥자 보살



"남을 보살피는 자비행에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0일 63빌딩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봉사 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김옥자씨(50). 그는 "봉사는 내 일, 봉사하는 곳은 내 집, 봉사 대상자는 내 형제로 생각했을 뿐"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 씨에 따르면 봉사는 자신을 떠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봉사 현장에서 남이라는 생각 또는 불쌍하고 더럽다는 선입견은 금물이다. 즉 '나를 버려야 한다'는 게 김 씨의 봉사관이다. 이는 '봉사하는 곳에 누가 되지 말라'는 성덕스님(불교자원봉사연합회장)의 당부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김 씨의 봉사 여정은 19년 전 "좋은 일 하러 가는데 함께 가겠느냐"는 스님의 말에서 시작됐다. 이후 김 씨는 혜명보육원과 양로원에서 아이들과 노인들의 수발이 되고, 국립의료원에서 수술용 거즈를 접는가 하면 상락원 장애아들의 보모 노릇도 했다. 또한 복지관의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 서울 탑골공원과 장충공원에서 무료급식,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찾기 등에 참여했다. 김 씨는 "봉사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을 선행도량으로 삼았죠"라며 19년 동안 봉사에 임한 자세를 설명했다.

오종욱 기자 gobaocu@buddhapia.com

지역불교 문화기행

9월 : 부석사·봉정사·용문사 고려 목조건축의 아름다움

화엄종의 근본도량인 부석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빼어난 목조건축물의 하나인 무량수전(국보 제18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아한 배흘림기둥과 늠름하면서도 기품있는 건축미를 지닌 무량수전은 세계의 건축가들이 한 번씩 보고갈 정도로 아름다운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여왕이 방문해 더욱 유명해진 봉정사 극락전은 통일신라 시대의 건축양식을 잘 이어받은 주심포 맞배지붕 건물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입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회전식 불경보관대인 윤장대가 있는 예천 용문사도 참배합니다.

- 출 발: 9월22일(토) 밤11시 조계사 앞(무박2일)
- 회 비: 5만5천원(조식 · 중식제공)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 (예금주 선정호)

■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부석사 석탑과 안양루.



신흥사 주지 마근 스님 취임법회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는 2일 등문성 속초시장 등 사부대중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지 마근스님 취임식을 거행했다. 마근 스님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일주문을 건립해 신흥사가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성 도피안사 금하효행상 시상

안성 도피안사는 2일 '제1회 금하효행상 시상식'을 봉행했다. 우란분절 법회를 겸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죽산면에서 선정된 박노영씨 부부와 권남혁씨 부부가 효행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도피안사 주지 송암 스님을 비롯해 이동희 안성시장, 최병찬 안성문화원장 등 지역인사들과 신도 5백여명이 참석했다.



법현스님, 생명나눔 기금 전달

선서화가 법현스님(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이 4일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를 방문, 7월 7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스님의 전시회 수익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법현스님은 "자신의 작은 정성이 불우한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눔의 집 기금마련 일일 찻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원장 능광스님)은 4일 조계사 근처 찻집 '생각해보자'에서 '역사관 개관 3주년 기념 및 나눔의 집 운영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열었다. 일일찻집과 함께 장터 개설,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500여 명이 동참했다.



부처님처럼 니르바나님을 믿어야 바른 불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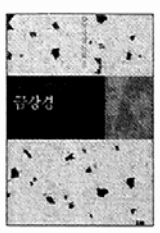
다석사상으로 본 새로운 금강경 풀이

다석사상으로 본 불교, 금강경

온 생애에 걸쳐 진리를 추구하여 구경(究竟)의 깨달음에 이른 우리나라의 큰 사상가 다석(多夕) 류영모(柳永模, 1890~1981). 다석은 불교와 기독교, 노장(老莊), 그리고 공맹(孔孟)사상 등을 두루 탐구하여 이 모든 종교와 사상을 하나로 꿰뚫는 진리를 깨달았다. 다석은 자신의 이름보다는 함석헌의 스승으로 더 알려져 있다.

벼락치듯 깨닫는 지혜의 경전

얼나(法身)를 찾아 '참다운 자아'에 이를 때 절대세계(니르바나님)와 하나되어 생사를 넘어서는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된다는 다석사상을 바탕으로 새롭고 알기 쉽게 풀이한 『금강경』.



박영호 지음/ 296면/ 13,000원 /양장

두레의 多夕 사상전집

1 진리의 사람 다석 류영모 (상)
2 진리의 사람 다석 류영모 (하)
3 다석 류영모가 본 예수와 기독교
4 다석사상으로 본 불교, 금강경
5 다석사상으로 본 불교, 반야심경 (근간)
6 다석사상으로 본 유교 (근간)
7 다석 류영모 강의록 (근간)

도서출판 두레 전화 : (02)702-2119 팩스 : (02)715-9420

건봉화문

海印佛教美術院



해인불교미술원은
장인정신으로
불국토를이룩하겠습니다

■ 전통탱화전문 ■ 시왕조각품채색 ■ 개금

서울시 중구 묵정동 18-27 대학 문화원 빌딩
代 02) 2265-0108



◇한강 둔치에서 재첩을 방생하는 불자들.

재첩방생 한강 살린다

맑고 향기롭게 · 두레 생태기행 여의도서

맑고향기롭게(회주 법정스님)와 두레생태기행(회장 김재일)은 5일 한강 여의도 한강 모래밭 둔치에서 한강 살리기와 새로운 생태방생을 위한 '한강 재첩방생' 행사를 가졌다.

김자경 맑고향기롭게 실장의 진행으로 재첩 방생, 반야심경 독경, 생명을 위한 108관음정진, 사홍서원 등으로 진행된 이번 방생법회는 한강에서 자취를 감춘 재첩(학명 가막조개)을 되살려 한강 하류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반생태적인 방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우리 꽃 심기 등 친환경적인 식물 방생은 있었지만, 토종 수생 동물인 재첩을 방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월 28일 집중호우로 인해 연기된 시민방생대회를 축소해 희망 불자들만의 소규모 '시험방생'으로 실시된 이날 법회에서 20명의 참가자들은 사방 30cm 간격을 두고 썰물 때의 수심을 감안, 깊이 3~5cm로 씨앗 심듯이 모래 속에 재첩을 묻었다.

김재일 회장은 "내년 4월까지 재첩이 살아있다면 이번 방생의 성공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첩 방생이 성공한다면 참게를 비롯한 한강의 다른 위기종도 생태방생을 통해 되살릴 수 있어, 친환경적인 방생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02)712-5812

김재경 기자

인드람봉사단 바자회 수익금 불우이웃 도와

부산불교교육대학 10기 졸업생을 주축으로 창립된 인드람봉사단(회장 변진훈)은 8일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 호프와 바자회를 개최했다.

인드람봉사단의 '인드람'은 삼라만상이 하나의 그물에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의 인드라망의 줄임말로 너와 나의 구별을 없애는 자비실천으로 재정지원, 도우미 봉사활동, 의류 지원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생계가 어려운 2가구에 월 쌀 20kg와 부식, 의류 등을 지원하고 경북 예천의 연꽃마을에도 의류지원과 도우미 봉사활동을 펼쳤다. 현재 인드람봉사단은 8일의 행사를 계기로 후원자 확보는 물론 각종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황영길 총무는 "정기적인 수익사업과 고정 회원수를 늘여서 소년 소녀가장, 독거노인, 수용시설 등에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드람봉사단은 생활비, 쌀, 부식, 생필품, 의류 등을 지원할 후원자를 모집중이다.(051)867-9944

천미희 기자

무의탁노인 무료급식 · 소년소녀가장 후원

大田봉사단 '등불회' 결성

대전지역 무의탁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의 삶을 도울 자원봉사단, 가칭 대전불자등불회(이하 등불회)가 결성된다. 사찰 종무원, 언론사 기자, 불교단체 직원, 불교교양대 강사 등을 업으로 개별적인 신행활동에 전념해 온 불자들이 모여, 신행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것.

현재 대전불교신도연합회, 대전여성불자회 등 대전지역 기존의 신행단체 회원들에게 자원봉사단 결성을 홍보하는 등 회원 모집을 서두르고 있는 등불회는 9월 말경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등불회 결성의 산파역을 담당하고 있는 엄정례(무용가) 씨는 "나누는 일은 '나와 네가 다르지 않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공덕"이라며 "독거노인 무료급식을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하고, 모임의 활성화에 따라 봉사의 종류며 그 규모를 키울 방침이다"고 말했다.

엄 씨에 따르면 등불회는 이미 대전 동중학교 인근에 있는 노인 무료 급식소인 '노인 큰사랑 본부'와 연계해 월 3회에 걸쳐 무료급식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등불회는 8월 말부터 시작된 회원 모집에 30여 명이 가입 의사를 밝힐 정도로 반응이 좋아, 9월 말 예정된 창립총회에는 100명 정도의 회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무료 급식의 횟수를 월 4~5회로 한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대전지역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도울 '대전불자등불회'가 9월말 창립된다. 사진은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점심시간 모습.

기자 · 사찰종무원 등 참여
이달말 창립…회원 1백여명
양로원 · 고아원 정기위문
무용단 조직 사찰 공연도

이외에도 등불회는 정기적인 신행 활동의 요람으로 삼을 양로원과 고아원도 물색하고 있으며, 여성회원을 중심으로 무용단을 조직, 노인잔치와 같은 사찰 봉사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엄 씨에 따르면 동국대 사회교육원 전통무용학과 수료한 불자들이 등불회에 가입하고 있어, 무용단을 조직할 수 있다는 것. 엄 씨 역시 이곳에서 최윤희 교수에게 관음향무를 사사받았다.

엄 씨는 "등불회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도심 속의 봉사공동체로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서원을 가지고 있다"며 "9월 창립총회, 10월 창립법회를 통해 대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과 불자를 적극 영입,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의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042)256-6886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지역 불교문화 키우고 폐사지 문화재 보호도

봉화불교법우회 첫법회 가져

경북 봉화군을 불국토로 가꾸길 서원한 불자들의 모임 봉화불교법우회(회장 김두상, 봉화전화국)가 11일 법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행 활동에 들어갔다.

봉화지역은 각화사나 축서사 등 유명한 수행 사찰이 많지만, 지역 주민들의 연령층이 전반적으로 높아 활발한 신행 활동을 찾아보기는 힘든 곳이다. 이에 따라 6월부터 김두상, 이승훈(봉화케이블 사장) 씨 등 9명의 불자들이 두 달 남짓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지난 8월 17일 법우회를 창립했다.

김두상 회장은 "지역 불교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할 청년조직이 없다"며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으로 구성된 법우회는 앞으로 청년회의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봉화불교법우회의 창립법회 모습. 김두상 회장은 왼쪽에서 세번째.

이를 위해 법우회는 교리공부는 물론 지역 사찰을 돌며 정기법회를 개최해 사찰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자체 개발한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사찰에서 수용하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전통사찰이나 인근 폐사지에 소재한 불교문화재를 지키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날 40여 회원들이 등참한 법회는 계법 스님(축서사 재무)의 법문과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오종욱 기자

우리 모임에선

석불회 가을행사 준비

대한중석초경(주) 석불회는 3일 청도 운문사에서 임원회의 개최하고 정기법회, 자원봉사 등 가을 신행 프로그램을 논의했다. 한편 석불회는 8월 26일 죽림사에서 회원 및 가족 20여 명이 동참한 여름 수련회를 개최했다.

금강회 백중기도 회향

경산조폐창 금강회는 2일 오전 12시 회사내 법당 금강원에서 백중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백중기도는 지난 8월 27일 시작돼, 회원들의 지장정근과 지장경 독송으로 뭇 생명의 천도를 기원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서울은 청량사 순례

서울은행 불교행우회는 9일 경북 청량산 청량사에서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순례법회에 동참한 회원 및 가족 45명은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인근 전통사찰 소장 문화재를 관람했다.

한전 서광회 혜국스님 친견

한전 경주지점 서광회는 8월 26~28일 제주도 난국선원을 방문해 혜국 스님을 친견하고 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친견 법회에 동참한 30여 회원 및 가족들은 "직장에서도 물러섬 없이 공부하는 불자가 되라"는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신심을 다졌다.

청주교정인회 보육원 방문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청주지회 불심회는 8월 4일 충주 소재 화암사에 있는 진여원 보육원을 방문해 선풍기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이불 세탁과 보육원 청소를 실시했다. 불심회는 연합회의 40번째 지회로 창립 3년째를 맞고 있다.

한빛은 불자회 게시판 불교용어 · 고승전 인기

한빛은행 서울 및 부산 불자회 인트라넷 게시판(hanvitgwe.hanvitbank.co.kr)이 사내에서 인기다.

봉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빛은행 인트라넷에 개설된 불자회 게시판의 하루 클릭 수는 100회 정도, 이중 글을 남긴 사람은 30여 명. 여기에는 불교 용어 설명이나 고승 및 경전 이야기 등과 같이 불자회 회원들의 글도 있지만,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 글을 올리는 일반인도 있다는 것.

불자회 현동관 총무는 "일반 행원들의 물음은, 이를 열람한 불자 행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며 "당초 불자회 관련 공지사항이나 회원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개설한 사내 게시판이 사내 포교의 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게시판

알림

▲대구불교방송 홈페이지 개설=대구불교방송은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홈페이지에는 뉴스, 자료실, 지역 언론, 지역 사찰, 자유 게시판 등으로 구성됐다. 주소는 www.tgbbs.co.kr

강좌

▲경기불교대 8기 강좌=경기불교대학은 8기 불교강좌를 개설한다. 강의 과목은 초발심자경문, 천수경, 금강경, 유마경, 승만경 등이며, 주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야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시작된다. (031)245-7048

▲관음사 문화강좌=영남불교대학 · 관음사는 문화센터 가을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프로그램은 불화 그리기, 단전호흡, 단도, 사진, 불교 꽃꽂이, 불교 만화, 사물놀이 강좌 등. 수시 접수. (053)474-8228

모집

▲유급가정봉사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유급가정봉사원을 모집한다. 봉사 내용은 무의탁 독거노인의 말벗, 생활상담, 가사지원 등이며, 20~50세 여자면 신청 가능. (02)2203-3677

▲발레 수강생=자양사회복지관은 발레를 배울 어린이를 모집한다. 발레 교실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3시, 토요일 오후 1시에 시작된다. (02)548-1664

▲한가위 자원봉사원=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자와 독거노인을 위한 한가위 행사에 참여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모집한다. 봉사 내용은 송편 만들기. (02)571-2988

▲주간 · 단기보호 희망자=안양시 노인복지센터는 주간 및 단기 보호 희망자를 접수한다. 대상은 치매나 중풍 등을 앓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 (031)455-0551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세이 아바타
부처님과 큰 스승들의 말씀,
그 찬란한 환희의 빛-
21세기 최첨단 의식공학 프로그램으로
음미해 보십시다.
지금 당신을
깨달음을 통한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실질적이고 심지만 강력한 프로그램, 아바타- 체험해 보십시요.
세이아바타 02) 782-0022 www.sayavatar.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911호

상표등록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지역대리점에 뜻이 있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전북 1, 전남 1, 서울, 경기 2, 충북 1, 충남 1
◈본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와 미수타 반도체 전자 인등은 상표, 실용, 의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를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외에 총 11건)
부산, 경남 동부대리점
밀양 055-355-6707
경남, 서부대리점
마산 055-224-5286
경북, 북부대리점
영주 054-635-9153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764-9396
첨단 기술이 모두에게
안전과 평안함을 드립니다
긴급 써비스
기술 지원 팀
011 · 9996 · 8872
주식회사 TG 반도체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74-20
전화 031-791-8871 792-8867~8

질서캠페인·환경지키기 '앞장'

신행현장

승만부인회의 활동

서울 지하철 1호선 석계역과 성북역에서 월 1~2회 정도 "승하차 질서를 지킵시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합시다", "휴대폰 사용을 자제합시다" 등이 써 있는 피켓을 들고 있는 10여 명의 여성들을 만날 수 있다.

하나같이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모습 탓인지 도시전철이나 철도청 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는 보이지 않지만,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 이용객 사이를 누비며 안전운행 캠페인에 몰두하는 모습이 진지하기 그지없다.

이들은 바로 철도청성북승무사무소법우회(이하 법우회) 회원의 부인들로 구성된 '승만부인회' (회장 임매주) 회원들이다.

승단부인회는 정기법회, 교리공부, 단기출가 등을 통해 마음을 닦는 것에서부터 안전운행캠페인, 환경캠페인,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신행단체다.

지난해 1월 결성 당시 '내조하는 신행므임'을 표방했으나 결성 이전부터 회원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었고, 또 인근사찰이나 봉사현장에서 자주 만났던 터라, 활동은 '내조'에만 머물지 않았다. 가족들이 참여하는 정기법회나 교리공부 시간에 법우회 회원보다 부인회 회원들의 참석률이 단연 높고, 캠페인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올 6월 경기도 양평 사나사(주지 화암) 인근 용문산 계곡에서 실시된 환경법회도 승만부인회의 활동력을 그대로 보여준 행사였다. 이날 환경법회는 법우회와 함께 진행됐는데, 계곡을 청소하기 전에 승만부인회는 자체적으로 준비한 "환경을 살리고 더 이상 환경을 해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해 주위를



◇승만부인회가 경기도 양평 사나사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기법회·단기출가 '꾸준'

소년소녀가장 돕기도

놀라게 했다.

이날 환경법회에 참여한 법우회 총무 정찬영 씨는 "계곡청소, 예불, 참회기도 등으로 진행된 환경법회는 승만부인회에서 주도했고, 동참자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부처님 법대로 살 것을 서원하는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승만부인회는 소년소녀가장 6명에게 각각 매달 10만원씩을 후원한다. 당초 노원구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것으로 소년소녀가장을 도왔는데,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도움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회원들의 뜻이 모여 직접 찾아 보살피고 있다. 현재 매달 소년소녀가장의 집을 방문,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밑반찬이나 청소상태를 살피는 생활지도는 물론 교우관계와 진로선택 등 인생상담까지도 해주어 소년소녀가장들의 '엄마노릇'까지 해내고 있다.

승만부인회 임매주 회장은 "봉사면 봉사, 공부면 공부 어느 것 하나 뒤쳐지지 않는 신행단체로 발전하고 싶다"며 "그래서 회원들은 이러한 서원을 담은 '승만청규'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수시로 읽는다"고 말했다.

'승만청규'는 승만부인회 결성 당시 모임의 활동 목적이나 방법 등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승만청규에는 '열 가지 서원'이 있는데, 이중 '마음으로도 받은 계를 범하지 않겠다', '재산의 축척은 나 자신만을 위해 하지는 않겠나이다', '고독한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을 보면 끝까지 돌보겠나이다' 등은 승만부인회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대목이다.

승만부인회가 지금의 활동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이 청규에 따른 것이다. 임 회장에 따르면 서로 돕고 심부름도 대신해 주는 등 훈훈한 이웃사랑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싶다는 승만부인회의 원력이 하나로 모였으며,환경정화 활동도 열심히 할 계획이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폐휴지등을 수집 판매해 공동기금을 조성, 좀 더 나은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노예의 삶, 주인의 삶

누구 한 사람 예외없이 빈 손 들고 이 세상에 나왔다. 빈 손으로 와서는 평생을 기울여 그 빈 손을 채우려고 노력하며 산다. 권력을 잡으려고, 돈을 벌려고, 명예를 쥐려고 애를 쓴다.

그것을 우리는 욕망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 욕망의 충족을 위한 노력이 법법이거나 사회적 일탈이 아닌 한, 다시말해 사회적 합의라는 게임의 법칙을 준수하는 한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 찬사와 존경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욕망을 향한 집념이 나를 지배하고, 돈이나 명예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한다면 나의 삶은 그것의 노예와 다름없게 된다.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할 돈, 권력, 명예가 어느새 주인이 되어 내가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꼴이 되고 만다.

인간이 그 무엇의 쓰임새가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이해, 대수롭지 않은 일들, 별로 귀중하지도 않은 물건까지 나를 구속하는 주인 노릇을 할 때가 많다. 가령 새 옷 한벌 해 입었을 때도, 내가 새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새 옷이 나를 입고 있는 것 같은 경우가 허다하다.

사람은 누구나 먹었으면 배설해야 한다. 먹고 배설하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다. 이치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가졌으면 주어야 하고 쥘 줄 알면 펼 줄도 알아야 한다.

갖는 도리만을 좇아서는 살 수 없다. 운이 좋아서 평생을 쥐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갈 때는 싫어도 다 놓고 빈 손으로 간다. 올 때 그러했듯이 갈 때도 빈 손이다. 고로 주는 도리를 좇아 사는 게 주인된 도리다. 갖는 도리는 노예의 길이요 주는 도리는 주인의 길이다.

갈 때 어차피 빈 손일 수밖에 없으니 지금 쥐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잠시 머물고 있는 것'일 뿐이다.

나는 일시적인 관리자이다. 그러기에 불가에서는 본래 나의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고 가르친다. 소유하되 소유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한다. 노예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라고 한다. 대장부다운 자유로운 삶을 엮어가라고 한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일종식 계율 명심하여 쌀 한톨도 소홀히 말라"



향적스님
해인사 지족암 감원

쌀 한 톨이 밥이 되어 우리의 입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쌀 한 톨 한 톨에 깃든 공덕이 일곱 근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과 옛 조사스님들께서 후학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김 메고 농약치고 가꾸어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발이 분주히 힘들게 움직였을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스님들은 반드시 오관게(五觀偈, 식사할 때 관하는 다섯가지 게)를 살펴 자신을 반성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린 후에 공양을 합니다. 밥을 만든 공덕이 얼마나 되며, 이 음식이 온 곳을 깊이 헤아려, 나의 수행이 공양을 받을 만 한가를 깊이 살펴 반성하며, 탐욕에서

음식물 쓰레기 연간 8조원

"발우공양 정신 새기자"

떠남을 근본으로 삼고, 이 몸과 마음 다스리는 좋은 약 삼아 부처님의 위없는 도 이루기 위해 마땅히 이 음식을 받아먹으리다 하는 다섯가지를 살펴 관하는 것이 바로 오관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몸을 지탱하기 위한 약으로 하루에 한번만 공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주물인 음식을 아껴서 적당히 먹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루 사시(오전 11시)에 한 끼만 먹도록 계율로 정하셨습니다. 또한 덧붙여 말씀하시길 "하늘 사람들은 아침에 먹고, 부처님과 성인은 사시에 공양하고, 귀신은 밤에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비구들은 부처님 법을 배우기 때문에 하루 한번만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가 있어 겨울철에는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서 행하지 못하지만 남방불교권의 스님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일종식 계율을 지금도 철저히 지키고 있지요.

사찰에서 신도들이나 일반인들이 공양할 때 절대로 음식물을 남기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이 오관게 사상에 의한 것입니다. 산사 수련회에 참석해 본 불자들은 스님들이 얼마나 음식물을 소중히 대하는 가를 발우공양을 통해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구국의 선봉에 섰던 사명스님이 묘향산 보현사로 참다운 법을 구하러 가던 중 절 입구 개울물에 콩나물 몇 개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스님은 시주물을 아끼지 않는 이 산중에 큰 스승이 있을 수 없다고 돌아서려 했는데 바로 그때, 저 멀리서 한 노승이 숨을 몰아쉬며 급히 내려와 떠내려가는 콩나물을 서둘러 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명스님은 콩나물을 건진 그 분이 바로 서산대사라는 것을 알고 일생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갖게 합니다. 현대의 질환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비만의 원인은 과다 섭취한 음식물에서 기인합니다. 또한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연간 돈으로 환산하면 8조원이나 된다고 정부가 방송을 통해 계몽하는 것을 들을때 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1970년대 초까지 배고픔의 고통과 보리고개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배고픔의 고통을 잊고, 먼 나라의 일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출가하러 절에 들어온 행자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치는 교재 가운데 야운(野雲)스님의 〈자경문(自警文)〉이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사짓는 농부도 춥고 배고픔의 고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벼 한포기도 심지 않고 밥을 먹는 일반인들이 쌀 한 톨이라도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신행 캘린더

9월 13일 (목)

■보탑사 산사음악회=충남 보탑사는 오후 7시 30분 야외무대에서 '월드컵 성공 기원'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043)533-0206

■<천수경> 강의=자비신행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태원 법사의 〈천수경〉 강의를 마련한다. 강의는 10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실시된다.(062)222-1165

9월 14일 (금)

■환경공청회=정토회는 정오 서초동 정토회관 강당에서 제15차 환경공청회를 개최한다.(02)587-8994

■'엉터리 사냥꾼' 공연=사단법인 비로자나청소년협회는 29일까지 아리랑 아트홀 개관을 기념해 아동극 '엉터리 사냥꾼'을 무대에 올린다.(02)942-0636

9월 15일 (토)

■청량사 음악회=청량사는 오후 6시 경내에서 개산 1338년을 맞아 '천년의 속삭임-바람이 소리를 만나면'을 주제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054)672-1446

■혜국스님 초청법회=대전 보현문화회관은 오후 3시 회관 2, 3층 설법전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을 주제로 혜국 스님 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042)624-6555

■BBS 가릉빈가합창단연주회=불교방송은 오후 7시 KBS 홀에서 개국 11주년 기념 제4회 불교방송 가릉빈가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02)705-5305

■선학회 월례발표회=한국선학회는 오후 1시 30분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9월 월례발표회를 실시한다. 발표 논문은 '송대 임제종 종밀비판', '조당집 번역의 문제점' 등.(02)2260-3140

■티베트 바로 알기=티베트 생각(Think Tibet)은 오후 3시 명륜동 영상카페 지오에서 '티베트 바로 알기'를 주제로 일반인도 참여 가능한 모임을 개최한다.(019) 329-8973

9월 16일 (일)

■부안지역 불적답사=터사랑은 꽃창살 문양으로 유명한 내소사와 채석강, 개암사를 둘러보는 부안지역 불적답사를 실시한다. 강사는 역사탐방연구회 정인식 씨.(02)725-1284

9월 19일 (수)

■불교장례 특별강좌=수원 포교당 염불봉사단 목련회는 오후 1시 대한불교연화회 유재철 강사를 초청해 불교장례의식을 주제로 특별강좌를 실시한다.(031)255-2692

목조각에 혼이 깃든 작품만을 공급하는 성불조각원

전통 불교 목공예
전문인 성불 조각원은
모든 작품들을 옛 전통 기법으로
재연해 만듭니다.
또한 목조각에 혼이 깃든 작품,
최고의 작품만을 최저의 가격으로
모든 불사현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불심으로 일구어진
불자기업 입니다.

※ 모든 불사현장에 쓰여진
모든 작품들은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문 의
033)263-1102
H·P 017)379-0590

* 전국대리점모집 *

목 불 상



법 상 가 마 불전함



특별 할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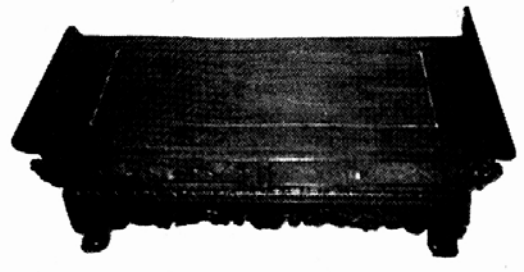


달 마 대 목

달마대사의 원력을 느껴 보십시오
대 ◆ 가격 : 9만 5천원
중 ◆ 가격 : 7만 5천원
소 ◆ 가격 : 5만 5천원

경 상

전통 짜집기 공법으로 제작였습니다
◆ 크기 : 가로 100 cm
폭 37 cm
높이 45 cm
◆ 가격 : 2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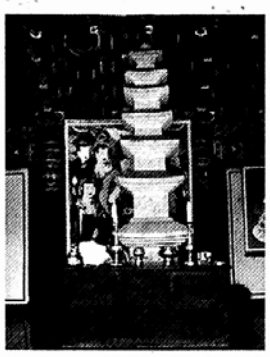


최 고 의 작 품 만 을 최 저 의 가 격 으 로 공 급 하 는 불 자 기 업 성 불 조 각 원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2. 지리산 쌍계사 '육조혜능정상'의 진실



722년 11월, 당나라의 절강성 항주를 떠난 신라의 두 스님이 서해안의 당포(唐浦)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들은 매우 긴장한 표정으로 배에서 내렸다. 두 스님의 행낭 속에는 놀랍게도 사람의 머리가 들어있었다. 그 머리의 주인공은 바로 제6조 혜능(638~713). 그리고 1,200년이 지난 지금, 혜능의 정상(頂相, 머리)은 하동 쌍계사의 금당 '육조정상탑(六祖頂相塔)' <사진>에 봉안되어 있다고 전해지며 이를 '선종육조혜능대사정상동래연기'라고 부른다.

혜능은 누구인가. 혜능의 존재는 그 이름 자체가 선의 새로운 자기발견을 의미한다. 선종은 혜능에서 시작되고 혜능의 가르침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종 조사로 받들어지는 6조 정상(六祖頂相)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일까.

신라 성덕왕 때 지금의 영광군 운암사에 혜능의 선법을 추앙하는 삼법 스님이 있었다. 삼법은 진불(眞佛)로 알려진 혜능과 그의 법어집 〈

6조의 탑문 열고 머리 모셔와

육조단경〉을 깊이 흠모했다. 스님은 마침 당나라에서 돌아온 익산 미륵사의 규정 스님으로부터 〈육조단경〉을 얻고 부처님을 만난 것처럼 향을 사루어 예배한다. 희비가 교차하는 심정으로 〈육조단경〉을 읽다가 "내가 입적한 뒤 5~6년 뒤에 어떤 사람이 나의 머리를 탈취해 갈 것이다"라는 혜능의 예언(懺)에 눈이 번쩍 뜨였다. 삼법은 "선사의 정상이 다른 사람의 손에 탈취되기 전에 선사의 정상을 모시고 와서 우리나라 만대의 복전이 되도록 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삼법은 "선사의 정상을 모시고 온다면 첫째는 도둑질을 하게 되고, 둘째는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오역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지옥의 고통을 감내하리라"고 갈등한다. 마침내 정상을 모시고 오기로 결심한 삼법은 경주 영묘사의 비구니 법정 스님을 찾아가 그간의 사정과 자신의 결심을 전한다. 법정은 바로 김유신 장군의 미망인이었다. 법정은 즉시 2만금을 삼법의 손에 전하면서 "이 것으로 큰일을 이룬다면 다행이겠습니다"고 말한다.

721년 5월, 상선을 타고 당나라로 출발한 삼법은 3개월 만에 관동성 소주 보림사에 도착한다. 삼법이 육조 혜능의 정상을 모신 탑 앞에서 자신의 뜻을 전하는 기도를 올리자 감응이 있었다. 그러나 보림사의 경비는 삼엄하기 이를데 없었다. 삼법은 당시 강서성 홍주 개원사에 머무는 신라의 선승, 대비 스님의 동조를 구했다. 두 스님은 의논 끝에 1만금을 주어 중국인 장정만을 매수한 뒤 경비가 소홀한 한밤중에 탑문을 열고 머리를 모셔 내오게 한다. 개원사에서 대기하고 있던 두 스님은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어서 항주에 도착, 신라로 돌아온다.

귀국 후 삼법은 꿈속에 나타난 혜능의 지시에 의해 쌍계사, 지금의 금당자리에 터를 잡고 석함을 만들어 혜능의 정상을 모신 뒤, 17년 동안 선정을 닦았으며 입적하는 순간까지 〈육조단경〉을 독송했다.

이상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신라 때부터 우리나라 선승들은 6조 혜능을 깊이 숭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고려의 보조 지눌 역시 〈육조단경〉을 스승으로 삼았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중국 광동성 소관시의 남화사에는 혜능의 불괴법신(不壞法身)이 봉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국 측의 고문헌들은 송·명·청대에 걸쳐서 봉안되었다는 기록을 전하고 있고, 1981년 10월에 보수되어 지금도 신도들의 경배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쌍계사 금당의 6조 혜능 정상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러나 '어느 쪽이 진정한 혜능의 정상을 봉안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은 조사 신앙의 순수성과 혜능선의 진정한 가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혜능은 혜능일 뿐이다.

▩경학회 회주

고통의 세계 벗어나 극락왕생 발원

참불자의 길 천도재



◇99년 8월 씨랜드 참사로 숨진 이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조계사에서 합동위령재를 지내고 있다.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내생은 반드시 있는 걸까' 누구나 한번 쯤 살아가면서 품어봤을 고민이며 의문이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해 그 누구도 확실한 답을 해주기 어렵다.

부처님께서는 〈선악인과경〉에서 "과거의 원인을 알고자 하거든 현재의 결과를 보고, 미래의 결과를 알고자 하거든 현재의 원인을 보라"고 말씀하셨다. 금생의 선행이 내생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이다.

불교에서 영가(죽은 사람)를 위해 그의 영혼을 천도하는 재를 지낸다.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 편안하고 안락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것이다. 가족이나 친지들이 영가를 위해 부처님께 축원하고 명복을 비는 것은 망자를 위한 산자의 배려라 할 수 있다.

죽음과 관련된 불교의례를 '천도재(薦度齋)'라 하는데 이는 죽은 사람을 위해 불교에서 올리는 재례의 식들의 총칭으로서 수륙재나 49재, 영산재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천도재'는 죽은 사람이 생전에 지었던 모든 악업이나 원한관계 등을 해소하고 청정한 마음을 회복해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돕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윤회와 업의 가르침으로 태어남과 죽음을 설명하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을 받기 위해 중유(中有)의 상태에 머문다고 한다. 이때는 육신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보다도 훨씬 총명해서 진리를 일깨워주면 평상시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천도재'의 주된 내용은 영가에게 〈무상계〉를 설하여 죽음은 만물이 변화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자연스런 현상이므로 크게 슬퍼하거나 안타까와 할 필요가 없음을 일깨운다. 이와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내서 아미타부처님의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을 권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천도재'는 중생구제를 위한 교화 활동을 망자들에게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친지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이 하루속히 큰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의 역할이 더 크다.

이런 천도재 가운데 일반인들에

수륙재·49재·영산재 등 영가위해 부처님께 축원

산 자의 슬픔벗기 방편

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49재다. 불자들 대다수는 망자가 생기면 사찰에 위패를 모셔놓고 49재를 지낸다. 49재란 사람이 죽은지 49일째 지내는 날에 지내는 재를 의미한다. 그러면 왜 하필 49일 일까. 천도재를 1달에 2~3회 정도 지낸다는 석암스님(원주 석암포교원 주지)은 "불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음생을 받기까기 걸리는 시간이 49일이라고 보고, 최종적인 추모의 례를 49일째 되는 날 행한다. 따라서 49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망자에게 더 이상의 미련과 집착을 남기지 않게 하는 의식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스님은 "영가천도를 후손들의 기복발원을 위한 제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도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사찰에서는 49재를 지낼 때 7·7재라고 해서 7일에 한 번씩 재를 지내는 경우도 있고 보름에 한 번씩 재를 지내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바로 49일안에 재를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또 1백일재와 1주년, 2주년에 해당하는 소상재와 대상재가 있는데 이는 유교적 관습이 불교에 영향을 미쳐 생겨난 것이다.

김주일기자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㉙

여랑중(呂郎中)에 대한 답서

의심하면 생과사 번갈아 찾아오지만…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묻되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 운문 스님이 말하길, '마른 똥막대기다'라 하였습니다. 오로지 이 화두를 들고 있으면 홀연 재주가 다할 때에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 문자를 찾아서 증명하거나 어지럽게 이리저리 헤아려서 주석하고 해설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렇게 주해(註解)한 것이 분명하며 설명에 귀결점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귀신 소굴의 살림살이일 뿐입니다.

의심(疑心)을 부수어 버리지 못하면 삶과 죽음이 번갈아 찾아오지만, 의심을 부수어 버리면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끊어집니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끊어지면 부처라는 견해와 진리라는 견해가 없어집니다. 부처라는 견해와 진리라는 견해도 오히려 없는데 하물며 다시 중생이라는 견해와 번뇌라는 견해를 일으키겠습니까?

다만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을 마른 똥막대기 위로 가져와 한 번 맞닥뜨려서 딱 들어맞게 되면, 생사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과 사량분별하는 마음과 총명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음을 느낄 때에 공(空)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득 들어맞은 곳에서 소식을 끊어버리면 일평생 유쾌하기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심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에 대한 확신과 믿음인가? 자신의 본래면목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다. 스스로의 본래면목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결국 밖으로 끄달려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두려움과 편안함이 교차하고, 좋아하고 싫어함이 왔다 갔다 하며, 늘 이리 저리 사량하고 분별하여 모양(相)을 찾아 빌붙어 다닌다.

화두란 이런 불안한 의심의 상태가 끝나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화두를 들고 공부할 때에는, 다만 화두만을 들고서 살피고 또 살펴서 사량분별이 끝나는 곳까지 나아가, 허공(虛空)으로 한 발 내딛어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어야만, 비로소 허공이 본래 허무(虛無)가 아니라 가장 견고한 바탕임을 알고, 크게 안도하며 쉬게 되는 것이다. 티끌만한 것에라도 의지하게 되면, 아무리 견해가 훌륭하고 분별이 분명하더라도, 처음부터 공부하지 않은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결국 화두 참구의 승패 여부는 어디에도 의지할 것 없는 허공으로 발을 내딛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달려 있다. 어디가 허공이며 어떻게 허공으로 발을 내딛는가? 허공은 바로 지금 보고·듣고·말하고·움직이는 가운데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보고·듣고·말하고·움직이는 모양에 막히지만 않을 수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곧 허공이다. 매 순간 순간의 행동거지(行動擧止) 속에서 허공을 알지 못하는 까닭은, 그 행동거지의 모양에 막히기 때문이다.

허공으로 발을 내딛는다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방편의 말일 뿐이고, 사실은 따로 허공이 있어서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보고·듣고·말하고·움직이는 이것이 모두 허공일 뿐인데, 단지 스스로가 모양에 막혀서 허공을 모르는 것이다. 다만 스스로가 잡고 있는 모양을 놓아버릴 수만 있으면, 보는 것이 허공이고 듣는 것이 허공이며 말하는 것이 허공이고 움직이는 것이 허공이다. 이렇게 되면 보고·듣고·말하고·움직임에 막힘 없이 자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화두를 참구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마른 똥막대기' 위로 모든 것을 던져 버리고 오직 '마른 똥막대기'에만 의지하되, '마른 똥막대기'가 '마른 똥막대기'가 아니라 다만 의지할 곳 없는 허공이고 허공이 바로 '마른 똥막대기'로서, 모든 것은 이 허공에서 말미암는다는 것이 저절로 밝아질 때를 기다려야 한다. 만약 성급히 허공을 헤아려 본다든지, 혹은 허공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다시 생각에 매달리면, 평생 끝날 날이 없을 것이다.

http://www.mindfree.net/

ENGAGED BUDDHISM
참여불교

격월간 참여불교 2001년 9,10월호 일반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 현장 속으로!

값 5,000원
1년 정기구독 25,000원

특집 I 티베트 불교, 그 현장을 가다
- 탐방기 인과 믿으며 미래 기다린다 / 독립의 그날까지 비폭력으로 / 모든 사람 사랑하면 부처님 된대요
- 달라이 라마 스님과의 일문일답
- 우리가 티베트 돕기에 나서야 하는 이유

특집 II 교단내 비폭력 평화실현의 과제

권두칼럼 전사법 개정안, 정부 예속강화로 대국민 고립 자초
특별기고 10.27법난을 기억하십니까?
불교풍일운동의 새로운 맥락과 실천
교계초점 - 사면복권
특별법 제정 화합전기 마련을 / '참회정진' 이 먼저다
만남 천주교 광주대교구 노동조합 박춘우위원장
"우리는 신앙인이자 노동자입니다"
거사열전 '불교적 경영' 실천했던 동명 강석진
기획연재 유럽의 참여불교
국가권력과 종교
이런일 저런생각 "사건 전담자 아닌 당사자로 살고 싶다"

"우리는 결코, 침략자 중국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지난 7월 국내불자 수십명이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 스님을친견하고돌아왔습니다.
방문단원들은 그 곳 티베트인들의 미소에 담긴, 독립을 향한 끝없는 의지를 확인하고 마음 한구석으로부터 끓어오르는 연민의 정을 느껴야 했습니다.
일제침략시절 조국독립을 위해 만주벌판에서 활약했던 수많은 우리의 애국지사들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티베트는 중국의 지배에 들어간지 42년이 흐른 지금 지구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식민지입니다.
티베트 본토는 중국당국의 봉치전략에 의해 상당부분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지만 다람살라 망명정부는 티베트 전통을 지켜가며 본토에 끊임없이 문화적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불교로 민족전통을 이어 가는, 우리와 생김새도 비슷하고 언어도 유사한 식민지의 나라 티베트.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아니 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불교전통과 조국사랑의 지혜를 말입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www.buddha21.org
전화 02-725-6231~2 팩스 725-6233 buddha21@bulgate.net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302호

정기구독신청 02-725-6231

여시아문 집계 연속 1위의 화제의 신간!

이 시대 수행자들이 들려주는

나의 행자시절

풋풋했던 초발심의 행자시절을 거치며
묵묵히 출가의 길을 걷고 있는 45인의 스님들 이야기!

고봉 광우 도견 도법 도윤 동광 명고 무관 법륭 법흥 보경 보광 불굼 상륜 석주 선용 송암 송월 영진 운경 원담 원소 원타 원택 월운 용각 익두 인묵 인환 일면 일진 장일 종림 증성 지명 진월 천운 탄성 동광 혜거 혜광 혜남 혜담 효림 효명

편암함과 쉬운 길만은 가려 하는 현대인들에게
참된 수행의 길을 제시한 맵짜한 '시집살이' 이야기!

월간 <해인>기자 박원자 엮음





혜남스님 감수
김영애 지음

절안의 생활, 절속의 문화재
- 우리나라 절 안의 생활 모습과 소중한 불교문화재를 해설한 불자 필독서!
- 불교의식에서 필수적으로 독송되는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의 원문과 해석을 실은 불교 입문서!

다할미디어 TEL 02)528-0136/7
각권 값 8,000원

이렇게 들었다

화합과 야합

"자기양보 우선하는 정치를"

▩"교단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능히 화합(和合)하며, 남의 착한 일은 칭찬하되 타인의 잘못은 숨기며, 남의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으며, 남의 비밀을 들었을 때에도 말하지 않으며, 조금의 은혜라도 자신에게 베푼 자가 있을 때에는 크게 갚을 것을 생각하며,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에게 항상 선심(善心)을 일으키며, 자신을 해치는 자와 사랑하는 자가 같은 고통에 빠져 있을 때는 해치는 자를 먼저 구하며, 욕하는 자를 만나면 도리어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며, 때리는 자를 보았을 때는 비심(悲心)을 일으키며, 온갖 중생을 보되 부모와 같이 해야 한다."〈우바새계경〉

부처님은 교단의 화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수록 남을 존중하고 살피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그러나 오늘 우리 정치권의 행태를 바라보노라면 겉으로는 항상 국민과 국가를 위한 '화합'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비열한 '야합'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최근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해임안 가결로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가 붕괴되면서 거취가 주목되던 이한동 총리가 총리직에 남는다 안남는다 오락가락 행보를 반복하던 끝에 결국 현직 잔류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총리의 잔류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간의 갈등을 더욱 깊게 하고, 집권 후기 김대중 정부의 국정쇄신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당내 개혁파 소장 정치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국민여론도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자민련과의 결별로 새로운 국면에 처한 김대통령이 과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고, 흐트러진 민심을 끌어안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곧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잘못을 이끌어 자기에게 향하게 하면, 다툴 것이 없어진다"는 〈열반경〉의 말씀처럼 진정한 화합은 자기양보가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남의 자리, 남의 떡을 빼앗아야만 살아남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래서 항상 정치 철새들이 생겨나게 되고, 소신 없는 정치인들의 무소신 정치가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 입으로는 화합을 외치면서 돌아서면 야합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정치권과 정치인들이여,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깊이 새겨들을 일이다.

"세상을 수호하는 사람은 여덟 가지 도리를 가지고 세상을 수호한다. 첫째는 언행(言行)이 들어맞아 어긋나지 않음이다. 둘째는 집안 어른을 존경해 가벼이 여기지 않음이다. 셋째는 말이 부드러워 거친 데가 없음이다. 넷째는 저를 낮추고 공손해서 늘 겸손의 뜻을 지님이다. 다섯째는 늘 질박(質朴)하여 아첨이 없음이다. 여섯째는 인화(仁和)를 닦아 비위를 맞추는 일이 없음이다. 일곱째는 온갖 악이 없음이다. 여덟째는 선근(善根)으로서 세상에 적응함이다."〈대보적경〉

이은자 기자

적조와 그린벨트해제 '경고와 안일'

불자 세상보기

환경해치는 정책 속출 "인간과 자연 더불어 살기 더이상 미룰수 없다"



이창수
경원대 교수
도시계획학과

레에철 카슨(Rachel Carson)이 〈침묵의 봄〉(Silent Spring, 1962)을 통해 농약 때문에 새가 울지 않는 봄을 고발한 이래 환경문제와 그로 인한 미래의 위기는 끊임없는 경고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동안 자연은, 인류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향상시킨다는 미명 하에 무차별한 정복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리고 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자연을 더욱 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견 인류의 진보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자연정복의 결과는 인류에게 단편적인 편리를 제공한 대신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엄청난 크기의 채무를 남겨 놓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강과 바다에서는 적조현상과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적조는 경북 동해안 9개 지역에서만도 양식어 10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11억여 원의 피해를 내고 있다. 적조 현상을 통해 바다는 우리에게 환경을 함부로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적조는 그 동안 우리가 바다를 함부로 다룬 대가이다.

대기오염과 쓰레기문제, 그리고 산림훼손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녹지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도 국책사업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우리의 환경문제는 선진외국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환경문제를 무시하거나 환경오염을 심화시키는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동의나 국가의 미래에 기초하지 않고 '정권'의 안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얘기겠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개발만이 선(善)이며 개발행위를 통해 부(富)가 모아지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꿈이 환상이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마구잡이 개발을 시작한 지 40년이 지난 지금 환경폐해는 국민소득 향상분을 훨씬 초과하였다. 환경훼손의 채무로 인해 우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감수하고 지불해야 할 것들이 많다.

여기에 대해 슈마허(Schumacher)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나 생산의 증대가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물질만능주의로부터 탈피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필요 이상의 물자 생산과 소비를 악(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없으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해진다.

이제 우리에게는 무한정 낭비할 자원도 시간도 없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삶의 형태와 가치'를 친환경적으로 '구조조정'해야만 한다.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현재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개발의 관성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환경보호는 더이상 정부나 환경단체의 몫이 아니다. 친환경적인 생활방식이 자리잡아야 하고, 과잉생산이 필연적인 자본주의의 무한 이윤추구도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 유기농식품을 확산시키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친환경적 제품사용도 확대되어야 한다. 더이상의 환경파괴는 자해행위와 다름없다. 국민의 용기 있는 선택과 헌신적 노력이 필요한 때다.

열린마당

전사법 개정안 바람직한가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모든 전통사찰이 관람료를 받을 수 있어 관람객이나 참배객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불교계와 사찰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조계종단의 방침과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는 재가단체의 의견을 듣는다.

"관주도서 민간주도 체계로"

현고 스님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최근 알려진 전사법 개정안은 종단의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것이 아닌 문화관광부의 시안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이 시안을 마치 종단이 만든 시안인 것처럼 왜곡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현재 문광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종단이 시혜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단은 면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시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종단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우선 기존 전통사찰보존법이 관 주도의 권위주의적인 체계임을 유의해 사찰과 소속 불교종단이 일차적 주체가 되도록 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간주도 체계가 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또한 문화재 지정과 해제, 보존 · 관리 · 활용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가칭 '전통사찰위원회' 구성도 요구할 방침이다. 즉, 지정과 해제는 직권과 자율 신청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존 · 관리 · 활용 시에는 전통사찰 주지 또는 소속 불교종단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의 개정안 시안에 포함돼 있는 보고, 자료제출, 조사, 지도 등의 자율권과 관련해서는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고, 그 대상기관도 개별사찰이 아닌 소속 불교종단 또는 종단이 위임한 사찰(교구본사 등)이 되도록 할 것이다.

재정자립 기반구축도 충분히 반영하겠다. 사찰의 경내지 소유권 확보가 용이하도록 할 것이며, 조세감면제도를 두어 기업 등이 사찰에 기부하는 것이 용이하게 하고 이를 촉진해 '전통사찰보존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또 관람료 징수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필요시 자율적 결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통사찰 관람료 징수 재고"

윤남진 〈재가연대 기획실장〉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전통사찰과 그 주변 환경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장치들을 담고 있지만 몇 가지 매우 예민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금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전통사찰들에 대한 문화관광부 장관과 총무원장의 권한이 강화된 측면과 전통사찰관람료 징수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어떤 이들은 전통사찰 관리를 사찰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관리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런 양보 속에 전통사찰 관리에 총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는 것은 곤란하다.

또 하나는 전통사찰 관람료 징수 문제이다.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 애쓰는 소유자가 그것을 공개할 때 관람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불자나 일반인들도 관람료를 내서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국가가 우선적으로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의 의무'를 분명히 한 다음 보완책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결국 불교종단과 사찰주지에게 전통사찰보존비를 대신 걷게 하고, 그 공적인 책임을 불교종단과 승려라는 사적인 영역으로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된다.

전통사찰 관람료 징수는 또한 포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국립공원 이용객의 70% 이상이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징수 당하고도 사찰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 국민 중 종교가 없는 50% 중에서 30%정도가 불교친화적이라는 조사가 있다. 이제 이들조차도 절을 찾지 않게 된다면, 불교에 친화될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현재 불교종단들의 포교역량을 돌아보면 답이 나오는 일이다. 전통사찰관람료 징수는 민족전통종교라는 국민정서 안에 있던 불교를 고립시켜 박물관으로 집어넣고자 하는 것이다.

기고

가벼움·빠름 선호 사유 기피하는 철학없는 사회로



이창경
신구대 교수
출판과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요즘 출간되는 책의 경향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경박단소(輕薄短小)'라고 할 수 있다. 내용은 가벼워지고 분량은 얄팍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사회 · 문화적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신중함과 가벼움, 느림과 빠름, 이는 양면적인 것이어서 어느 것이 더 옳다고 말할 것은 못되지만, 깊은 사유를 통반한 철학에 기반을 둔 진지한 삶의 자세가 인간의 근원적 존재에 가까이 접근해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상업적 대중문화는 일회적, 순간적, 자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또 정보의 양과 속도, 범위 등에 있어서 기존의 아날로그 문화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인터넷 하이퍼텍스트의 등장은 일상생활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듯 엄청난 디지털환경의 변화 속에서 의식구조의 변화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질적 가벼움으로의 변화는 경계해야 한다. 디지털환경 속에서 사유의 기피는 기억력, 상상력, 자기 표현력, 분석력 등을 퇴화시켜 결국은 인간을 소외시킨다는 점을 사회학자들은 경고한 바 있다.

현대인이 깊이 있는 사유를 기피하는 이유가 사유, 그 자체에 대한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일 뿐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사고의 가벼움이 세대간의 차이가 아니라, 모든 세대를 통하여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철학이 죽은 사회는 도덕도 죽고, 양심도 죽고, 결국은 인간이 죽은 사회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구중구포(2개월 150만원), 유황간장(2개월 50만원), 유황된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의료법인 효성양방 · 한방병원
총판
이사장 김 시 연 합장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254-2600 (011)545-550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솔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 청정심 올림

사·부·대·중

거꾸로 달리는 열차



노귀남
협성대 강사 · 국문학

언젠가 경부선을 탔는데, 끝 번호 좌석이라 출입문 바로 옆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어리둥절한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모두 거꾸로 앉아 있었던 것이다. 열차가 거꾸로 달릴 리는 만무하고… 한 순간이었지만, 내 좌석이 돌려 놓인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모두 거꾸로 앉은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그때 내가 얼마나 '나' 중심주의로 생각하는지 알았다.

이처럼 나는 알게 모르게 내 생각에 사로잡힌 '아상(我相)' 속에 살고 있다. 이 점을 알아차리면 우리 일상에서 서로 미워함이 일어나고 마침내 어떻게 폭력이 벌어지는가를 반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일을 하면서 의견이 맞지 않아 동료에게 내 주장을 말한 것이 마음의 상처를 주었음을 뒤늦게 알았다. 강한 주장이 폭력이 된 셈이다. 이 점을 살피지 못하면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쌓이고 만다.

8 · 15 남북공동행사에 참가했다 귀국한 평양방문단을 두고, 환영과 규탄이 엇갈린 가운데 한 참전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환영 나온 시민단체 여성 회원을 때리고 있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소위 남북문제를 논의할 때 불거지곤 하는 '남남 갈등'의 표본 한 장, '폭력'을 앞에 놓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어쩔 수 없었다. 북한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내내 가슴에 박혀 응어리가 되는 듯 했다. 둘 다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사회 현실이며, 일어나는 아픔과 갈등은 우리가 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 내 주장도 중요하지만, 듣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다르면 왜 다른지, 서로 물어볼 수 있다. 6 25전쟁이 남긴 죽음의 원한이 쉽게 가실 수 없지만,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앞을 보아야 할 것은 당연하다. 또한 발목 잡힌 일이 무엇인지도 살펴야 갈 수 있다.

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아상에 사로잡힌 마음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여봐야 서로의 아픔이 보인다.

목탁소리

한글대장경 완간 이후

김 중 근 (취재2부 기자)

몽골의 침입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고려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팔만대장경을 완성했다. 그리고 700여년이 지난 지금, 318권의 우리말 팔만대장경으로 다시 태어났다. 1964년 7월 21일 초대 동국역경원장인 운허 스님을 비롯하여 청담 · 영암 · 자운 · 석주 스님 등 교계의 대덕 스님들이 발원해 첫걸음을 내디딘 지 37년 만이다.

5일 열린 회향법회는 37년간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래에 보기 드물게 많은 불자들이 장충체육관 특설법회장을 가득 메운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한글대장경에 얼마나 많은 인원과 원고가 소요됐는지 살펴보면 그 의미가 좀더 쉽게 다가올 것이다. 역경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고지 1,081,200매, 번역인원 43,248명, 교정인원 75,048명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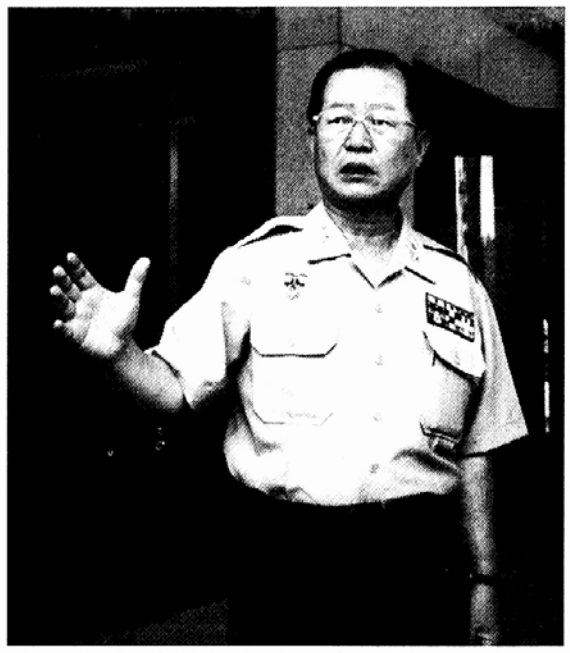
고려대장경에 담긴 1,550여종의 경전과 신라시대에서 근세에 이르는 한국 고승의 주요 저서 및 팔리 경전을 우리 글로 옮기는데 상상을 뛰어넘는 노력을 들였던 것이다. 완역을 위해 직 · 간접적으로 동참한 후원회원과 불자들도 상당수다.

하지만 한글대장경의 완간은 또 다른 출발이다. 동국역경원은 앞으로 10년동안 인터넷 서비스와 CD-ROM을 제작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부처님을 만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국역경원은 한글대장경에 대한 개역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전산화의 기본 텍스트로 이용할 새로운 편제의 한글대장경도 만들기 위해 연구중이다.

그렇다면 불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선 한글화된 장경부터 읽어 나가자. 그러한 읽기가 전제되어야만 인터넷이라는 또 다른 공간에서도 부처님이 살아남을 수 있다.

"불교계에 감사…더 열심히 신행"

인터뷰 대법원서 무죄판결 **김태복 소장**



◇4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마친후 소감을 밝히는 김태복 소장.

◇김태복 소장 사건 관련 일지

98년 8월	101여단장 재직시 참모장이었던 황 모 대령의 음모성 투서
99년 11월	김소장 17사단장에서 보직해임
2월20일	군 검찰, 군법당 불사 시주금을 뇌물죄로 적용하는 등 5개항으로 기소
3월23일	증단협 회장 겸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포교원장 정련스님 탄원서 각계 제출
5월7일	포교원장 정련스님 등 국방부 장관 면담
5월9일	군 검찰, 공소 내용 언론 및 방송 유포
5월12일	종교편향대책위 기자회견
5월26일	육군 모통군사법원 5개항 모두 유죄 인정,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300만원 선고
6월2일	관할권 육군참모총장 양형 감경(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
6월5일	김태복 소장 고등군사법원에 항소
6월8일	김 소장, 언론중재위에 11개 언론사 중재신청, 7개사 신청접수
6월8일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성명서 발표
6월23일	'군법당 건립 시주금 뇌물적용 재판 범불교도대책위' 구성
6월11일	예비역군법사단 성명서 발표
7월3일	부산불교연합회 1400여 회원사찰 성명서 발표
12월21일	2심 선고 공판, 선고유예 및 추징금 2,000만원 김 소장 상고
2001년 5월23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 김 소장 면담
6월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및 총학생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성명서 발표
9월4일	대법원, 원심판결중 유죄부분 고등군사법원 파기환송, 군 검찰 상고 기각 판결

"복직 등 명예회복 추진"

"군 종교자유위해 노력"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소감은.

"30여년 군생활에 대한 개인의 명예와 불교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1차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101여단장 시절 1,000여명의 신도가 법당도 없이 신행하는 걸 보고 여법하게 법당을 지으려 최선을 다했으나 군검찰이 보시금을 뇌물로 간주해 나를 부정한 사람으로 매도했다. 이 때문에 많은 스님과 시주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신도들의 탄원서와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부처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여생 열심히 신행을 펼치겠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결백이 완전히 입증되지 못해 유감이지만, 개인과 불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군 검찰이 황 모 대령의 무고에 따른 군 수뇌부의 명령에 따라 계좌 추적과 가택 수색, 위증 강요 등 강압적인 짜맞추기식 수사로 공소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생각한다. 대법원이 고등군사법원의 판결문만을 보고 뇌물수수와 관련한 나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상관을 무고한 개신고 신자인 황 모 대령과 군 검찰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상관을 무고한 황 대령과 같은 장교가 군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군의 전투력과 단결력을 파괴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 다시는 이런 군인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불법수사를 벌인 군검찰 관계자에 대해서는 군내 사법정의 확립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계좌 추적과 가택 수사 등을 통해 비리가 없다고 검증이 되었고 군보심의 문제가 98년 종결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맹목적 지시에 의한 증인 회유 및 협박, 증거 조작 등 비합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취한 군 검찰은 자성해야 한다. 아울러 군 검찰의 무리한 공소유지에도 불구하고 추정에 의한 유죄 판결을 내린 군 재판부도 법치국가의 실현과 군의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각성이 요구된다."

◆앞으로의 계획은.

"고등군사법원의 원심 확정판결을 기다린 후 복직 등 명예회복에 나설 것이다. 개인보다는 정의로운 군을 위해 바른 말을 할 것이다. 남은 복무기간동안 건전한 군대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불자로서 정성을 다해 신행을 펼치는 동시에 장병들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종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

◆군종업무와 관련 일선 군 지휘관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비록 일부이지만 자신만의 종교를 옹호하고 이웃 종교를 탄압하는 것은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휘관은 모든 종교활동을 공평하게 보장해야 한다. 군정신 전력 강화의 차원에서라도 각 종교 회당 건립을 지원하고 신앙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육군 101여단 군법당 건립을 지원하다가 황 모 대령의 무고를 받아 뇌물(보시금)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군 검찰과 힘겨운 법정공방을 벌여온 김태복 육군 소장이 일부나마 개인과 불교의 명예를 회복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2년 6개월여간 전개돼 오던 일명 '군법당 불사 시주금 뇌물판결 관련 사건'에 대한 2심 고등군사법원의 유죄판결 부분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을 합으로써 일부 무죄를 판결했다.

2년 6개월간의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자 장성의 억울한 누명벗기기'가 아닌 군포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종교편향적 사건에 대한 사법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한 불자 장군의 명예회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군 포교'와 '불교의 위상'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비록 완전치는 못하지만 개신교도인 황 모 대령이 종교편향적 시각으로 불자 상관을 무고한 것과 군법당 시주금을 뇌물로 판단한 군검찰의 몰상식에 일침을 가해 불자 군장병들의 사기와 군포교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오게 된 상황은 일면 군내의 불교 세의 열세와 포교의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인 것이기도 하다. 변호인단의 주장처럼 이번 사건은 누가 보아도 군 검찰과 재판부의 추정에 의한 억지 기소와 유죄 판결이었음에도 군내의 불자 장성과 군법사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김태복소장 승소와 군내 종교편향

군불자 사기 회복

'진급 위하여' 개종사례 빈번

"공평 군종정책 종단 관심을"

못한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실제로 군법당 건립을 위해 헌신해온 김태복 장군이 부하의 모함으로 기소되자 불자 장군들이 공식석상에서 '불자'임을 드러내지 않았는가 하면 심지어 각 부대에서 진행되던 군법당 건립이 차질을 빚거나 중단되기까지 한 것은 김 소장 사건이 군불교에 미친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이와 관련 충북예비역불자연합회 이만호 회장은 "그간 진급을 위해서는 불자임을 숨기거나 개종하는 사례까지 있었을 정도로 군내의 종교편향이 심각한 것이 사실이었다"면서 "최근 불교계의 지속적인 대응으로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군불교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종교편향이 완전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 포교에 일대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간간히 터져나오는 군내 종교편향적 사건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군포교 차원의 대책마련과 군법사 인가 및 수급문제 등 공평한 군종정책 촉구, 군법당 불사지원 등 종단차원의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며 지원한 파주 금당사 주지 천오스님은 "대법원 승소 판결을 계기로 군 포교를 담당하는 포교원에서는 군 포교종책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군승단, 군불교총신도회 등 군내의 불자들이 군포교를 위해 조직적인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군 불교 관계자들은 조계종이 김 소장에 대한 복직 등 명예회복, 군 기강 및 군법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촉구한 여세를 몰아 군 포교에 대한 근원적인 종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편두통, 신장염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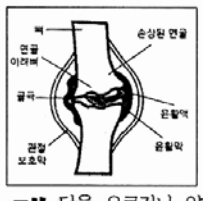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사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는 특수 영양식품이 수입되어 화제다.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슘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 (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비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사찰운영 및 포교활동가와 출가희망자를 위한

부산불교 포교지도자 아카데미 주·야간 학인모집

본원은 전문 포교사와 출가 희망자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교육기관으로서 불교의식 집중 교육을 통해 포교현장에서 직접 의식 · 법회 · 사찰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 개강식 : 2001년 10월 9일 오후 2시, 7시 부산 선암사 강당(관음전)

모집구분	포교지도자반 00명		출가희망자(승려)반 20명
대상 및 자격	사찰운영 및 포교활동에 전념할 모든 재가불자, 불교의식을 직접 익히고 싶은 분		만 49세 이하 고졸이상 신원에 이상이 없는 독신 남자
교육일시	주간반	매주 화 · 수요일 오후 2시~4시(1년과정)	동일교육 외 신앙 수행 및 출가자로서의 습의 교육, 기타 승려 교육
	야간반	매주 화 · 수요일 오후 7시~9시(1년과정)	
강의내용	불교의식(집중교육), 습의, 경전, 교학, 신앙 · 수행, 상담, 포교학등		
전형방법	10월 9일까지(10월말까지 가능) 서류접수와 개별면접 후 결정		
특전	포교사 자격, 포교당 개원시 지원. 개인별 부족한 부분 직접 지도		교육 숙직 무료제공, 6개월~1년 후 조계종 승려 수계, 수계후에도 지속적 지원

제 9기 선암사 불교교양대학 모집

불교를 알고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불교기본 교리와 불자로서 알아야 할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유능하고 다양한 강사진을 모시고 강의합니다.

■ 기 간 : 2001년 10월 9일 ~ 2002년 1월 16일 (3개월)
■ 수강시간 : 주간반 -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후 2시~4시
야간반 -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9시
■ 수 강 료 : 입학금 3만원, 월 수강료 2만원
※ 문화강좌 참선반 모집 ※ 주 · 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음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 포교지도자 아카데미 · 교양대학 학장
문의처 : 051)803-7573, 7522 FAX 051)803-7521
홈페이지 www.sunamsa.or.kr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㉔

십지법문이 차례대로 이어져서, 제8은 부동지(不動地)이다. 여기서는 무분별 지혜가 자연히 상속하여 형상과 작용, 번뇌에 동요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십신자재(十身自在) · 십신상작(十身相作)에 관한 내용이 설해진다. 마치 달이 일천 강에 비치지만 달은 허공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화엄에서 일곱 장소에서 법회를 아홉 번이나 여시지만 부처님의 몸은 보리수 아래를 떠나신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 보살이 중생들의 마음에 좋아함을 알고는, 중생인 몸으로써 자기의 몸을 짓기도 하고, 국토인 몸과 업으로 받는 몸과 내지 허공인 몸을 짓기도 하며, … 중생들의 좋아함이 같지 아니함을 따라서 이 몸으로 이러한 형상을 나타내느니라(…能以衆生身 作自身 亦作國土身 業報身 乃至虛空身…)."

"비유하면 허공에 뜬 해나 달이나 여러 곳 물 가운데 영상 비치듯 법계에 있는 보살 변동 없지만 마음 따라 나투는 영상도 그래(譬如日月住虛空 一切水中皆現影 住於法界無所動 隨心現影亦復然) / 좋아함이 각각 다른 마음을 따라 여러 중생 가운데 몸을 나투되 성문이나 독각이나 보살들이나 부처님 몸까지도 모두 나타내(隨其心樂各不同 一切衆中皆現身 聲聞獨覺與菩薩 及以佛身靡不現)."

이 부분의 게송은 마치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을 보는 듯하다.

"선남자야, 만일 어떤 국토의 중생이 응당히 부처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관세음보살이 부처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응당히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곧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응당히 성문(聲聞)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곧 성문(聲聞)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관세음보살은 이처럼 32가지 응신(應身)으로 중생에게 다가가신다. 그래서 조선조에 조성된 관음상은 모두 사유하는 자세인 유희좌(遊戱坐)나 교족좌(交足坐)의 형태가 많은가 보다. 저 제도하기 어려운 억센 중생(剛强衆生)들을 잘 제도하기 위한 배려가 아닐까. 그래서 조선시대의 불교는 신라 · 고려 대보다 더욱 민중 신앙화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다음 제9는 선혜지(善慧地)이니 미묘한 4가지 걸림 없는 지혜(四無 智 혹은 四無 辯)를 성취하여, 능히 시방에 두루 해서 법을 잘 말하기 때문이다. 선혜지는 설법자재(說法自在)를 이룩한 대법사위(大法師位)에 해당한다. 게송을 보자.

"이 지(地)에 머물러서 잘 관찰하고 그 마음과 근성과 이해를 따라 / 모두 다 걸림 없이 묘한 변재로 적당하게 분별하여 연설하는데, 법상에 앉은 모습

허공 달 하나 千江 비친다

뛰어난 수행 뒷받침되어야 훌륭한 법문

사자도 같고 우왕(牛王)이나 보배 산의 왕도 같으며(處於法座 如師子 亦如牛王寶山王)

용왕이 빈틈없는 구름을 펴고 큰 비 내려 바다에 가득하듯이, 법의 성품 깊은 이치 모두 잘 알고 여러 가지 말을 따라 연설하오며(又如龍王布密雲 普潤甘露雨充大海 善知法性及奧義 隨順言辭能辯說) / 백만 감절 아승지 다라니 문은 큰 바다가 많은 비를 받아들이듯, 다라니와 삼매가 모두 청정해 미묘한 음성으로 연설하더라."

이처럼 큰 법사가 되어 다른 이를 위해 설법으로 보시하는 것을 십지수행의 후반에 배대한 것에도 큰 의의가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남을 가르치는 일이란 재가와 출가를 막론하고 뛰어난 수행이 뒷받침되어야만 되는 것이다. 지위나 보수를 먼저 생각하는 세태로 인한 '수행자나 교직자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자신의 덕성이나 진리 · 학문의 실천에 충실하는 '자락(自樂)의 도(道)'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리라.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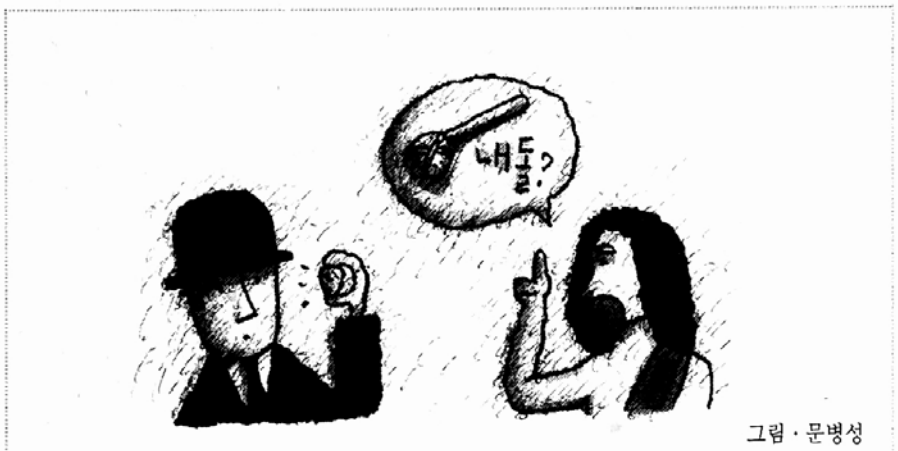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만물 모습 달라도 근본 하나

불교와 과학 〈43〉

지구가 태어난 이후 마그마의 열기가 식어가면서 화강암 바위 하나가 생겼다. 그 바위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존재 의미가 있었다. 어느 거인이 그 바위를 빼갔다면, 바위가 놓인 산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바위였다. 그 바위는 흙을 만들었고 그 흙에 뿌리를 내린 한 그루 나무의 잎새들은 바람 소리를 만들어 냈다. 바람과 함께 온 빗방울은 나무의 열매를 낳았고, 그 열매의 작은 씨앗 하나가 바위 틈에 내려앉아 세월과 함께 바위 속을 후비며 또 한 나무를 키워갔다. 그 나무는 커가고 그 나무뿌리는 드디어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가르고 쪼개어 작은 바위 덩어리를 만들었다.

그 바위 근처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 부족 사람들은 그 바위 한 귀퉁이에 동굴을 내어 살면서 바위 표면에 그 사람들의 사냥감과 부족의 규율을 그들의 상징언어로 새겨놓아, 기억의 하드디스크로 만들었다. 그리고 쪼개진 더 작은 돌로는 돌도끼를 만들어, 스스로 도구사용의 인간(Home Faber) 임을 뽐냈다. 그 마을 족장이 죽자,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죽은 이를 돌 기둥 사이에 흙으로 파묻고 그 흙더미 위에 큰 바위를 옮겨 놓으니 후세 사람들은 그 돌을 고인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몇 천년이 지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욕망이 서로 부딪치고 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들간의 벽이 필요했고, 그래서 아무도 돌보지 않던 고인돌을, 사람들이 자랑하면 분별심이라고 하는 설계도면에 따라 적당한 기하학적 모델에 맞춰 돌을 재단해 벽돌을 만들어 성곽을 쌓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더 처절한 싸움이 벌어졌으며 이 마을 사람들은 끝까지 항거하면서 마지막으로 성곽 돌을 부순 작은 돌로써 투석전을 끝으로, 남아 있던 모든 사람들은 성곽의 붕괴와 함께 역사 건너편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 자리에 여전히 돌이 있었다. 그 돌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떤 이는 그 돌을 모아 집을 짓기도 하고, 어떤 이는 논두렁을 쌓기도 했다. 최근에는 어느 현대 조각가가 그 돌을 가지고 예술 조각품을 만들었다. 또 어떤 화장품 재료업자는 그 돌을 잘게 부수고 정제하여 화장품 재료로 사용하였다. 또 다른 이는 화강암 침대를 만들어 건강산업의 벤처기업으로 성장하다가 돌침대 열기가 식으면서 망했다는 뉴스를 듣기도 했다.

바위는 몇 억 년을 거쳐도 같은 바위이지만, 윤회의 연극무대 위에 나타난 그 바위는 결코 하나라도 같은 바위는 아니었다. 고인돌의 돌과 성곽 벽돌의 돌은 같은 돌이기는 하지만, 성곽의 돌은 고인돌의 돌이었던 지나간 과거의 자기 모습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단지 세월이 흘러 윤회를 거치면서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윤회를 통해 항상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이다. 보각 스님이 쓰신 〈불교이야기〉에 나오는 미린다 왕과 나가세나 존자의 대화를 들어 보자.

바위 이야기

벽돌-조각-화장품이 돼도
돌의 본래 성품 변함 없어

미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시여, 사람이 죽을 때 다시 태어나면서 윤회의 주체도 다른 세상으로 옮아갑니까?" 존자는 등불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어떤 사람이 한 등불에서 다른 등불로 불을 옮겨 붙였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한 등불이 다른 등불로 옮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린다 왕은 대답하였다. "마찬가지로 윤회의 주체도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옮아감이 없이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가세나 존자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왕께서는 어릴 때 스승으로부터 배운 시를 기억하십니까?" 이에 미린다 왕은 "그렇습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 시는 스승으로부터 왕에게로 옮아간 것입니까?" "아닙니다"라고 왕은 답했다. "왕이시여, 마찬가지로 몸은 옮김이 없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미린다왕문경〉)

산 위의 바위 덩어리나, 그 옆의 상수리나무 한 그루와 다람쥐들, 그 위에 하늘을 노니는 구름 한 조각이나, 애욕에 쌓인 중생들 모두는 하나의 큰 우주의 일부일 뿐이다. 그들은 서로 옷을 바꿔가면서 입고 새로이 태어나지만 자신의 원천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 세상에는 서로 다른 인연으로 인한 윤회의 서로 다른 주체들이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저 하나의 큰 세상에서는 영원한 '같음'만이 있을 뿐이다.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믿음 강할수록 투병에 긍정효과

지구촌 불교 / 美 '노인과 종교' 보고서

종교가 인간의 심신에 평안을 준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러면서도 종교가, 특히 종교의 도그마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족쇄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투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 종교적 신념은 어떻게 작용할까?

미국 보울링 그린 대학(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의 심리학과 파거먼트(K.I.Pargament) 교수의 연구팀은 미 〈내과학회지(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8월호에 게재한 '노인 환자의 종교적 갈등이 생명 연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심리적 갈등이나 불안감 등으로 자신의 종교에 회의를 품을 때, 오히려 종교가 죽음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내놓았다.

논문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투병 중 "신(神)이 나를 버렸는지도 모르겠다" "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스럽다" "악마가 나의 병을 가져왔다"는 식으로 자신의 종교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파거먼트 연구팀이 지난 96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50세 이상의 환자 중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596명을 선정해 믿음의 정도를 설문으로 파악한 후 2년 동안 건강 상태의 변화를 추적한 것을 토대로 작성됐다.

50세 이상 환자 596명 조사
종교와 장수 연관성 밝혀
일부선 신빙성 의문 지적

논문에 따르면 환자 중에서 자신의 종교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던 23%의 환자들 대부분은 건강이 더욱 악화되거나, 죽음을 맞았다. 반면 설문 조사에서 "투병의 고통에도 믿음을 잃지 않겠다"고 응답한 16%의 환자들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인 것을 연구팀은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를 두고 "종교가 문제 해결의 원천이 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면서 "이번 연구는 종교와 장수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즉, 자신의 종교에 대한 견실한 믿음은 투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파거먼트 교수는 "이번 연구는 투병 중 자신의 종교에 대해 느끼는 분노와 죄의식, 불안감 등을 극복하지 못한 환자들이, 그 결과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피츠버그 주립대(Pittsburg State Universtity) 라빈(B. Lavine) 교수는 "종교에 대한 믿음과 죽음의 관련성을 추적한 이 연구는 신체와 정신간의 관련성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연구팀의 논문을 다룬 8월 13일자 기사에서 "연구 대상 규모가 너무 작다는 점, 흡연이나 연령 등 죽음의 원인이 다른 요인에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연구팀이 고려하지 않았다"며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연구팀이 2년 뒤에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152명을 이번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연구 결과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는 의학 전문가들의 지적도 전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性을 통한 깨달음!

新 탄트라

성에서 초의식까지

오쇼

두 권의 책과 CD로 구성된 이 세트는, 5천 년 동안 유일하게 성(性)을 영적인 성장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포용해 온, 중교적인 전통인 탄트라(Tantra, 密敎)의 수행 방법과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인간은, 성행위의 절정 속에서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난다.

먼저, 성행위시 에고가 사라진다. 에고 없음이 창조된다. 잠시 동안, '나'는 없다. 잠시 동안,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오르가즘은 하나의 자기 소멸의 상태이다.

성의 경험에 대한 두 번째 사실은, 잠깐 동안 시간에서 시간 없음이 창조된다. 오르가즘 속에서, 시간 감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오직 현재 순간만이 있다. 현재는 시간의 일부가 아니다. 현재는 영원이다.

인간의 성에 대한 갈망은, 여자의 몸을 향한 남자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그 반대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 열정은 어떤 다른 것을 향한 것이다. '에고 없음'을, '시간 없음'을 향한 것이다. -오쇼-



부록: 파트너와 함께 하는 탄트라 CD



탄트라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이 CD는 성(性)에 명상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좋은 입문서 역할을 해 주며, 성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게 해 주는 '고대의 사랑의 과학(Tantra)'에 근거하여 오쇼의 제자들인 카비샤, 의학 박사 디얀 요기, 와두드, 알비나에 의해 만들어졌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성적인 환희의 예술(The Art of Sexual Ecstasy)>의 저자인 마르고 아난드뿐만 아니라, <New Frontiers> 잡지의 격찬을 받은 바 있는 이 명상법은 아름다운 배경 음악과 함께, 준비와 정화의 단계를 거쳐, 일상적인 방식으로는 표현되지도, 보여지지도, 그리고 느껴지지도 않았을 그런 황홀경의 에너지 상태에 이르도록 도와 준다(총 65분 : 1. 지시어와 배경 음악 32:30 / 2. 배경 음악 32:00)

• 세트 가격 18,000원

❀ '탄트라 CD'에는 설명서와 함께 자세한 수행법이 담겨 있습니다!

도서출판 황금꽃 / www.goldenflower.co.kr/ 전화 주문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육임(래정비법)설명회 안내

「육임래정비법」 (온 사람의 사정을 미리 알아 버리는 비법) 값 삼십오만원
「육임세밀정단법」 (묻는 내용을 소상히 판단하는 비법) 값 일십만원
「육임대요형이상법」 (귀신 · 산소탈 · 빌미 · 부정병 판단 비법과 일의 되는 날자 판단 비법) 값 일십오만원
「육임운명판단법」 (사주를 몰라도 운명감정을 정확히 할수 있는 비법) 값 일십만원

위 내용의 설명을 다음 각 장소 · 시간에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사오니 위 책을 구입하신 활인 · 천역자 제위께서는 이 중 마땅한 장소를 골라 참석하시면 더욱 밝은 활인 · 천역의 당오에 오르시게 될것입니다.

고복자 철학박사 효사 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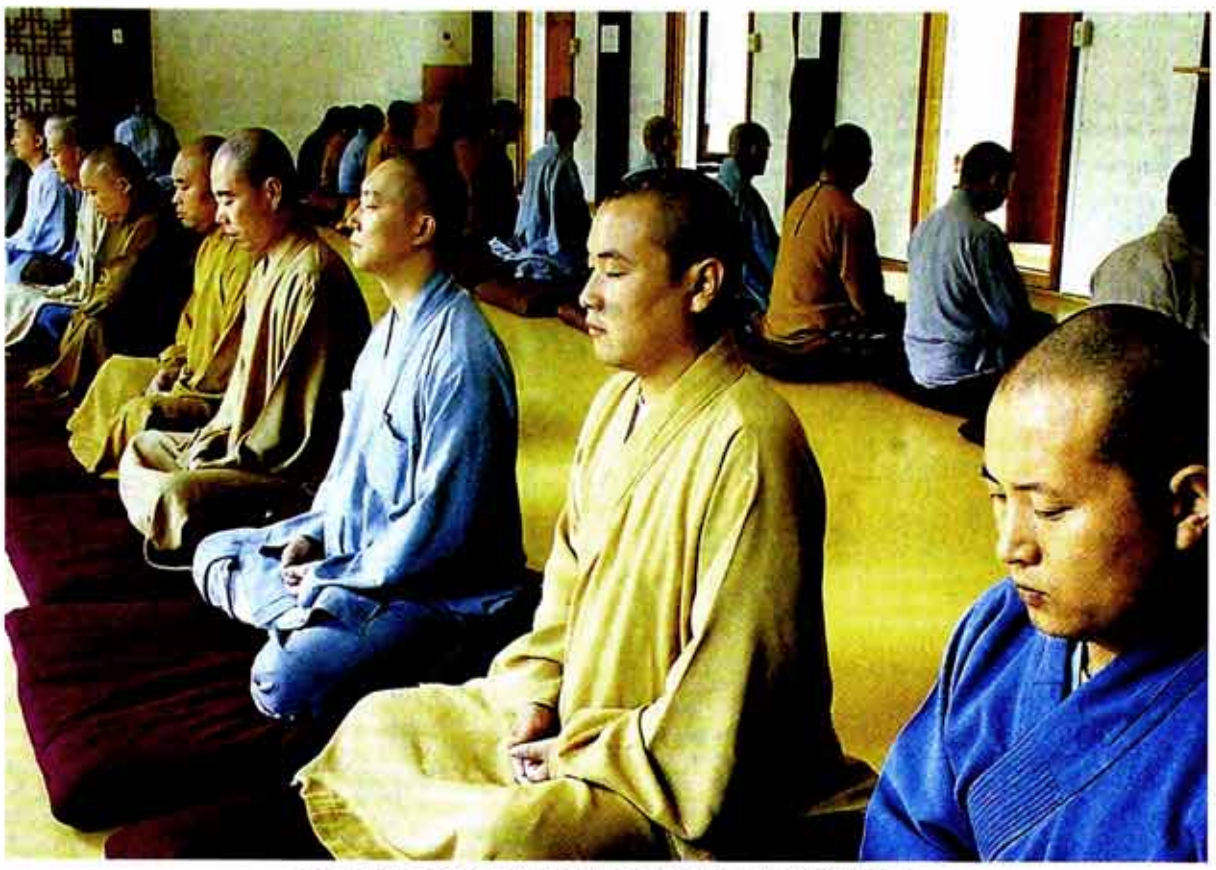
장소 및 시간 식대 및 음료비 10,000원

- 서 울 관토원(매주 토요일 오전11시~오후4시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90-49 암심빌딩 401호(지하철 4호선 수유역 8번 출구, 강북구청 좌측 일건물) TEL : 02-993-8680
- 부 산 불교회관5층(부산시청역앞건물)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3시까지) TEL : 011-589-5406
- 대 구 보리암 선원(매주 월요일 오후2시~5시까지) 대구시 남구 대명5동 149-1(영대병원 지하철 안산출구 새한악국 뒷편 2층) TEL : 053-653-0287
- 광 주 광주시 동구 학1동 동사무소 2층 희의실(매주 화요일 오후2시~5시까지)
- 전 주 원각정사(매주 수요일 오후2시~5시까지) 전주시 경원동 2가 43-3(구 경기전 뒤 제세한의원 2층) TEL : 063-284-7714
- 수 원 수원시 팔달구 지동 319-4(매주 목요일 오후5시~8시까지) 반야원 철학원 (기동제일교회 맞은편) TEL : 031-242-6813
- 청 주 동인당 한약방(매주 목요일 오후5시~8시까지) 청주시 상당구 오암동 378-4(동부경찰서-MBC 사이) TEL : 043-221-2557
- 원 주 노겁철학원(매주 금요일 오후5시~8시까지) 원주시 봉산동 쌍다리(경칠서 앞)진 한약방 2층 TEL : 017-377-7005
- 인 천 인천시 계양구 범방동 92-4 중호철학 건설당(매주 월요일 오전9시~12시까지) 인천시 지하철 1호선 박촌역하차 2번출구에서 전화요망 TEL : 032-554-3789
- 충 주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금강사(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까지) (판금대 큰 다리에서 150미터 지나서 금강사 이정표가 있음) TEL : 043-842-3352
- 대 전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40-8 대영회관 3층 양부건설사무실 (매주 화요일 오후6시~9시까지) (갑천 태평교 동명주요소 옆) TEL : 042-584-1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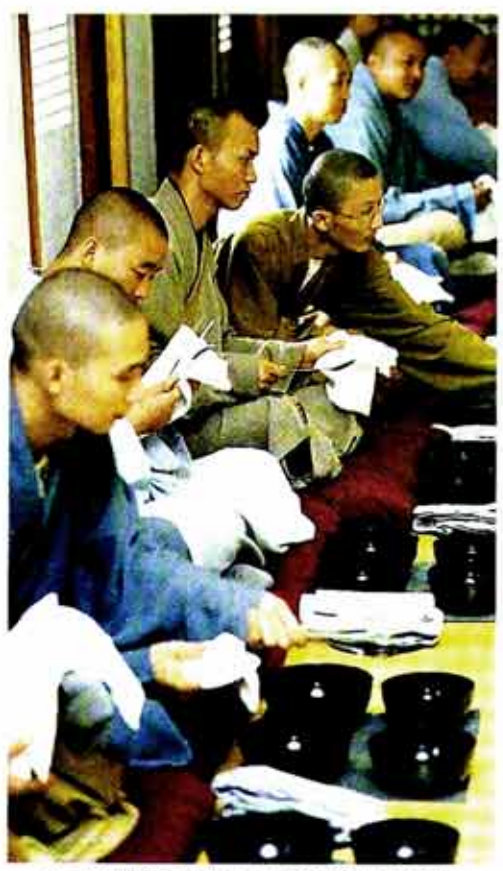
위 책 구입 및 설명회 문의전화 : 02-993-8680

도 서 출 판 복 문

불교사전의 모든 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02)737-0695 Fax:02)737-0696



◇한국불교의 수행전통을 배우러온 중국스님들이 가부좌를 틀고 참선삼매에 빠져 있다.



◇중국불교의 2합 발우와 다른 4합 발우공양에 신기해한다.

"한국禪 진수 배우자" 진지한 눈빛

중국 스님 27명 신흥사서 수행체험

文革이후 맥끊긴 선불교 중흥모색

발우공양 · 참선 서툰몸짓이지만 열심

중국 스님들이 한국불교를 배우기 위해 강원도 설악산 신흥사를 찾았다. 4일부터 13일까지 한국불교의 수행 전통을 체험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방한한 중국 수행자들은 모두 27명. 하남성을 비롯해 산시성, 절강성, 강소성 중경시 등 5개 성을 대표하는 사찰의 주지급 불교 지도자들이다.

30~40대 소장 승려가 주류를 이룬 방문단은 문화혁명으로 맥이 끊어지다시피 한 중국불교 중흥을 위해 한국 선불교의 전통을 배우고자 내한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한중불교 교류 차원에서 2년에 한 번씩 마련하고 있는 이 행사는 99년 송광사에서 열린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이번 프로그램은 화봉, 미목, 성오, 득우, 행진 등 다섯 명의 신흥사 스님이 번갈아 가며 참선, 발우공양, 울력, 습의 의식 등을 지도하는 과정으로 짜여졌다. 하루 일과 역시 한국 선방 스님들처럼 오전 3시 새벽예불로 시작해 10시간 동안의 참선과 사이사이 울력을 행한다.

방문단 30~40대 스님 주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 스님을 비롯해 신흥사 주지 마근 스님 등 50여명의 한 · 중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입재식 후 가장 먼저 시작한 프로그램은 참선. 50분 참선 10분 휴식으로 반복되는 한국식 참선에 익숙지 않은 중국 스님들에게 화두 붙들기는 가혹 행위에 가까운 고행인 것 같다.

점심공양 후 본격적인 수행에 앞서 수행방법을 설명하는 습의(習儀)때 참선 수행에 대한 부담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일부 중국 스님들은 '50분은 너무 힘드니 30분으로 줄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행지도를 맡은 입승 미목 스님은 '하는 데까지 해보자'고 일언지하에 거절한다. 아니나 다를까 습의 설명 후 20분 정도 참선하는 데도 환경에 익숙지 않은 탓인지 눈을 뜨고 먼 산을 바라보는 스님, 몸을 움직이는 스님, 벌써 자세를 흐트리며 중도 포기한 스님들이 간간히 눈에 띈다. 그래도 시종일관 꼿꼿한 자세로 한국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스님들이 대다수다.

원광대에서 한국불교를 2년동안 공부한 경험이 있는 보정 스님(중국불교협회 국제부 한국담당)은 "중국에서도 스님들이 참선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찰에 따라 참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곳도 있다"며 "중국 스님들은 참선할 때 좌복을 깔고 앉는 것이 아니라 나무 평상에 그대로 앉아 참선한다"고 차이점을 털어놓기도 했다.

〈소심경〉을 염송하며 복잡한 절차에 따라 식사하는 발우공양도 이들에게는 색다른 체험이었다. 화봉 스님이 "한국 출가 수행자들에겐 밥먹는 일도 수행의 한 방편으로 여길만큼 중요한 것"이라며 "죽비소리를 시작으로 천수, 밥, 국 등의 순서로 발우공양이 진행되는데 나름대로 엄격한 법도가 있다"고 발우공양의 절차와 의미를 설명하자 무척 신기한 듯 진지하게 따라 한다. 처음 해 보는 발우 공양이 까다로운 듯 걸눈질을 해가며 따라 하다가 순서가 틀려 습의사 스님들이 잘못을 지적하면 이내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고찰 순례 프로그램 마련

인락 스님(하남성 불교협회 부비서장)은 "중국에서도 발우 공양을 하는데 발우가 국그릇과 밥그릇 두개 뿐"이라며 "발우를 들어 입에다 갖다대고 먹는 것은 중국과 같다"고 말했다. 또 인락 스님은 "중국에서는 발우공양때 밥이 부족하면 숟가락을 들어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을 맡고 있는 신흥사 측에서는 이번 체험에 참가한 중국 수행단에게 한국 선불교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포살과 자자법회를 여는 것과 함께 오후 불식(不食)의 계율도 철저히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낙산사, 백담사, 건봉사, 월정사 등 인근의 유서깊은 사찰을 방문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중국수행단은 13일까지 신흥사에서 수행 체험 일정을 마치고 1박2일간 조계사, 봉원사, 관문사, 탑주심인당 등 조계종을 비롯한 3개 종단 사찰을 방문한 후 15일 출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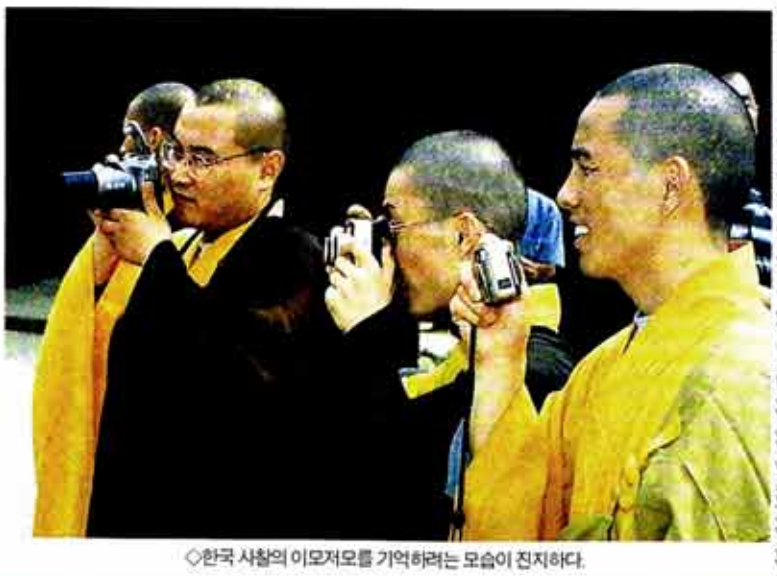
한국스님 내년 9월 訪中

95년 북경에서 열린 '한 · 중 · 일 3국 불교지도자대회'에서 당시 중국불교협회 조박초 회장의 '3국 불교 황금유대 주창'을 계기로 시작된 한 · 중 불교 교류는 97년 한국대표단의 중국 공식방문 이후 98년과 2000년 중국 광화사와 남보타사에서 두 차례 중국불교 수행체험 행사를 가졌다. 양국을 번갈아 가며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한중 불교 수행체험은 내년 9월 중국에서 개최된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a.com



◇참선 뒤 울력으로 방청소를 하는 중국스님들.



◇한국 사찰의 이모저모를 기억하려는 모습이 진지하다.

"독신 · 채식 전통 한 · 중불교 공통점"

중국수행단장 석심광스님



"중국불교는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거의 쇠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에서 불교를 들여왔음에도 조계종을 중심으로 선불교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것을 배우러 왔습니다." 한국불교 체험 수행단을 이끌고 온 석심광 스님(36, 하남성 불교협회 부회장 · 대상국사 주지)의 말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신심이 돈독한 부모님의 영향으로 82년에 출가한 스님은 "일본 불교는 대부분의 스님들이 결혼을 해 재가불교 성격이 짙은 반면 한국 불교는 전통적인 선불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중국 스님들에게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에 온 스님들이 지도자급인데도 왜 이렇게 젊으냐는 질문에 "문화혁명 때 노스님들을 많이 잃어 30~40대 젊은 스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소림사, 법문사, 백마사, 대상국사 등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의 큰 사찰 감원(주지)은 대다수가 30~40대라고 했다. 또 중국에서는 대승, 소승, 티베트 불교가 혼재한 상황이고 종파는 없어졌다. 사찰과 스님은 각각 4만, 20만여명이며, 불자는 약 1억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불교 성지들은 관광지화 돼 있으며 사찰내에 별도의 승가 교육기관을 두어 스님들 교육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사찰은 재가와 승가가 공동관리하고 있으며, 대다수 사찰이 자급자족을 위해 농사를 짓고 있다.

석심광 스님은 "중국 스님들은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해 염불, 기도, 울력, 아침 공양을 한 뒤 교리공부나 참선을 합니다. 또 항상 어디를 가든지 승복을 입고 다니며 독신과 채식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중국 불교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재 중국 스님들의 모습입니다"라고 하루 일과와 생활을 소개했다. 이어 스님은 "한국 스님들과 마찬가지로 화두 참구와 천태지관법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주일기자



정세채와 떠나는

선 · 식 · 기 · 행



은행잎차

환절기 기침 · 열병 예방효과

중국인들은 고대 우리 민족을 동이족(東夷族) 또는 맥적(貊炙)으로 불렀다. 중국 진(晉)나라 때의 수신기(搜神記)에 "맥적은 이(異) 민족의 음식인데 태시(太始) 이래로 중국인들이 즐겨 먹으며 귀한 손님상이나 부유한 집에선 반드시 맥적이 올라오니 이는 머지않아 동이가 중국을 지배할 징조다"고 했다. 요즘 불고 있는 한류(韓流) 열풍의 원조라 볼 수 있겠다. 이 음식은 요즘의 너비아니에 해당된다.

맥적에서 이용되는 숯은 은행나무 숯이 제일이다. 은행나무 숯은 음식을 신비하게 변화시키는 효능이 있는데 특히 고기의 맛과 질이 좋아진다. 이 때 음식을 변화시킨다 함은 발효를 뜻하는데 육류를 발효시킨 드문 예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조리 방식은 살생을 금하고 육식을 삼가는 불교의 영향으로 발효음료 즉 식혜(甘酒)로 발전하였다.

상고시대에는 은행나무로 장승을 만들기도 했다. 장승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촌은 이정표로서의 구실을 하는데 한 마을의 경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아직도 일부 시골에서는 동제를 지낼 때 장승제를 지내기도 한다. 오래된 장승들은 모두 풍화를 겪으며 썩어서 사라졌지만, 필자가 만주 일대를 답사했을 때만 해도 은행나무 장승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도 내몽고의 유목민사회에서는 늙어 죽은 은행나무를 신성시하여 은행나무가 가까이 있으면 승리와 번영이 깃든다고 믿고 있다.

은행잎은 단오 전의 은행잎과 처서가 지난 요즘의 은행잎을 따서 차로 만든다. 여름날 왕성한 은행잎에는 독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 독소에는 청산가리성분이 있어 전문가의 지도 없이 식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올해도 은행잎은 흙의 마음과 그 생명의 정기를 토해낸 것이다. 3억5천만 년 전부터 이어져온 자연의 숨결을 은행잎차 한 잔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은행잎차는 환절기의 감기 예방에도 좋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모색>의 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은행잎 30g 생수 2컵

요리법 은행잎을 깨끗이 씻어 물이 절반 분량으로 줄어들 때까지 끓인 후 베보자기에 거른다.

효능 기침, 열병, 호흡기 질환에 좋아 불가에선 수행자들의 결핵 치료약으로 쓰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장수식품이자 단백질과 비타민A, 비타민C가 풍부한 영양식품이다.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혜장 선사 '蓮覺香'

선사의 법명은 혜장(惠藏), 법자는 무진(無盡), 법호는 연파(蓮坡) · 아암(兒菴), 속명은 김팔득(金八得)이다.

선사는 새금현 화산방(지금의 해남군 화산면)의 외진 고을에서 영조 48년(1772)에 태어났다. 너무도 집이 가난하여 어린시절에 대둔사 월송재관 화상에게 삭발염의 하였으며, 춘계천묵 대사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춘계 대사는 외전(外典 · 주역 · 유서)에 능통하였다. 선사는 출중한 지혜로 이를 배운지 몇 년만에 명성을 총림에 드날렸다. 또한 그의 탁월한 학문은 속유(俗儒)들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다.

경전은 여러 스님들에게서 배웠는데, 경을 배울 때 머리를 숙이고 설법을 들었지만 문을 나서면서는 "으~흐" 라고 중얼거렸다. 이는 경을 가르치는 강사 스님들을 비웃는 소리였다. 그러나 오직 연담유일 선사의 수차(手箚 : 경전을 손으로 엮음)와 구수(口授 : 법문)는 비웃지 않았다.

선사는 운담정일 · 정암즉원 선사를 두루 섬겼으며, 27세에 소요 조사의 선지(禪旨)를 받들어, 정암 선사의 법통을 이었다. 선사는 소요지종으로부터 화악문신(華岳文信)의 적전(嫡傳)이 되었으며, 두륜대회(頭輪大會)의 맹주가 되었다. 그때 모인 스님들이 1천여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선사는 스승 정암장로 회상(會上)에서 수행하던 중 26세 때 초가을 연못가를 거닐다가 해맑게 피어난 연꽃 한송이를 보고서 크게 깨달았다.

연각향(蓮覺香)

定中見解最高圓(정중견해최고원)
更把乾坤比一拳(경파건곤비일권)
七冊金文開次第(칠책금문개차제)
這般心事淨如蓮(자반심사정여연)

선정에서 얻은 견해 원만한 지혜인데, 또 다시 하늘, 땅을 한 주먹에 비하노라.

부처님의 팔만경전 일곱 책을 한 권 한 권 펼쳐보니, 맑아진 마음에 가시 피어난 연꽃 한 송이로다.

불조향(佛祖香)

漸作衰翁(점작충옹)
依舊癡童(의구치동)
佛祖意(불조의)
半夜蝦蟆(반야제동)
清寒家計(청한가계)
淡泊宗風(담박종풍)
看影卽眞(간영즉진)
凡卽佛(범즉불)
色卽空(색즉공)

점점 늙어가는 데도, 예전처럼 여전히 어리석은 어린애일 뿐이네.

부처님의 뜻, 반야(半夜)에 무지개 오른다.

청빈한 가계(家計)요, 담박(淡泊)한 종풍이다.

환영(幻影)이 곧 진제(眞諦)요, 범인이 곧 부처요, 색계가 곧 진공(眞空)이구나.

선사의 깨달음은 해맑다 못하여 하얀 연꽃 같다. 이 같은 선사의 해맑은 선지(禪旨)는 희노애락에서 시공(時空)의 경계 속에 망상의 먹구름으로 뒤덮여 집착과 탐심으로 삼독(三毒)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중생들에게 하얀 연꽃처럼 혜안이 되어주고 있다.

선사의 가르침은 "사람의 마음이 몸 밖에 있으면, 방 밖의 등불이 실내를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으며, 또한 등불이란 색(色)이 나타나니 이와 같이 본성을 보는 것은 마음이요 눈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 현상은 눈에서 나왔지만 도리어 눈으로 들어가니 마땅히 견(見)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선사는 우리 다도사(茶道史)에 있어 큰 핵을 남기신 분이다. 스승 연담으로부터 다담선(茶湛禪)의 법을 받았으며, 다담선의 다도를 초의에게 전하였다. 또한 정약용 선생에게 차를 가르쳤으며 다산(茶山) 이란 호를 지어주었다.

선사께서는 순조 11년(1811) 40세로 열반하였다.

해맑게 피어난 연꽃보고 깨달아
초의선사에 '다담선의 다도' 전해

가까이서 뵌 큰스님

법 흥 스 님

조계총림 송광사 회주

"아는대로 실천하도록 노력"

한국불교사에서 혁혁한 빛을 발하는 고승 대덕을 많이 배출한 순천 송광사. 조계총림 송광사(松廣寺)로 걸어 들어가는 길 양쪽에는 사찰 이름과 어울리게 유난히 키가 훤칠한 소나무들이 많아 맑고 향기로운 바람을 연신 보내준다.

본 절로 들어가는 내(川)를 건너기 직전에 불서를 파는 '불일서점' 이 있다. 이 서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조계총림 송광사 회주 법흥(法興) 스님이다. 스님은 이곳을 하루에 한번씩은 꼭 들리시며 책을 구입하신다.

스님은 경향 각지에서 법문해 달라는 초청을 받는데 법문비를 받거나 하면 모두 책 사는데 쓰신다. 특히 당신이 보시고 감명깊었거나 내용이 좋다고 느끼신 책은 예외없이 대량 구입하여서 가까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법흥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화엄전을 나오는 스님이나 신도들의 손에는 예외없이 불서가 하나 이상 꼭 들려 있다.

법흥 스님은 그동안, 송광사의 수행가풍과 면모는 물론 연혁, 문화재까지 세밀하게 담아내고 조계종의 근본수행법인 참선의 요체가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한 〈선의 세계〉만 해도 1만 7천부를 찍어 나누어 주었다.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철저한 지계를 강조하기 위해 쓰신 〈계율강의〉도 4천여부를 보시하셨다.

〈법화경〉 등 경전들과 〈무소유〉 〈산에는 꽃이 피네〉 등 법정 스님의 명저들, 원로 스님들의 법문집 등 스님이 지금까지 법보시한 책은 수 만권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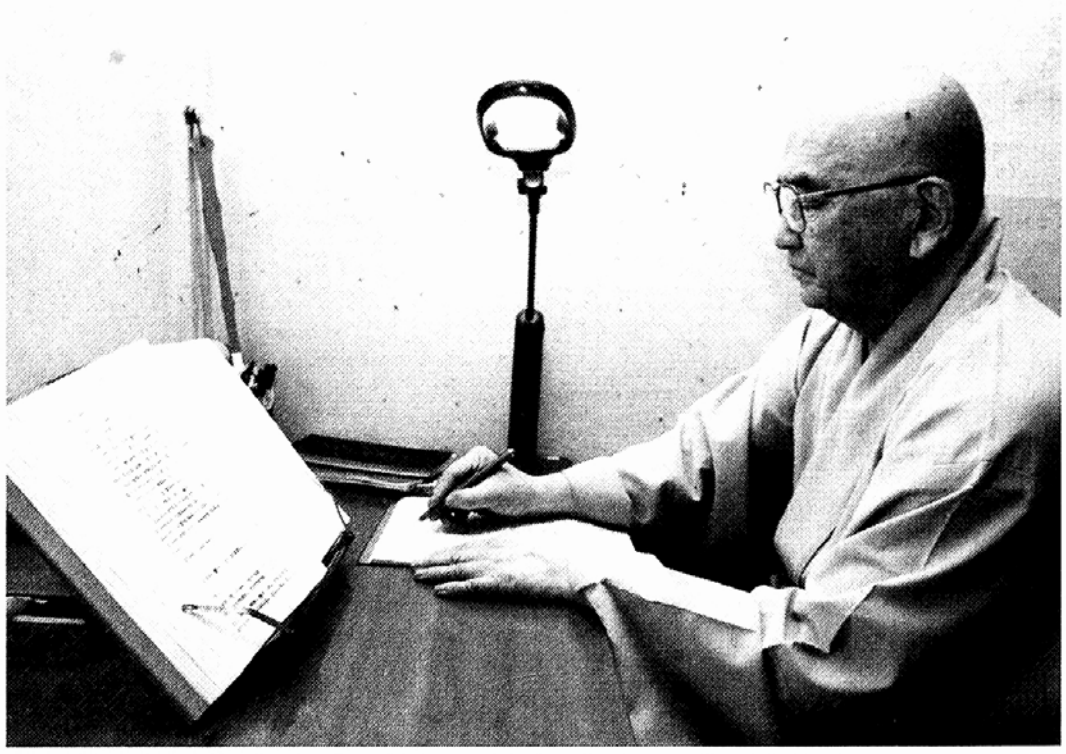
또 〈금강경〉의 사구게나 법구경, 조사어록 등 귀감이 될만한 불교 경구들을 평소에 정성들여 붓글씨로 써 놓았다가 제자들과 신도들에게 자상한 설명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

틈만나면 책과 함께

경전 읽기를 생활화하시는 스님은 신도들은 물론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잘 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담겨있는 경전을 가까이 두고 자주 읽으라고 권하신다. 스님 방의 앉은뱅이 책상에는 늘 책이 펼쳐져 있다. 스님은 틈만 나면 공부를 하신다. 요새는 구산 스님의 법문집을 다시 읽고 계시다고 한다.

"백년을 두고 후내나는 사람이 될 지언정 만년을 두고 구린내 나는 사람은 되지 말라."

스님은 올 송광사 여름수련대회에서 수련생들에게 〈법구경〉을 강의하며 유가에서 나온 이말을 강조했다. 스님의 경전 강의는 단순히 경전을 풀이해 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이해를 돕고 발심을 시키기 위해 동서 고금을 넘나들며 다양한 예시를 들고 보충설명을 하기에 스님의 강의는 명강의로 소문이 높다. 서양철학, 유가의 경전, 일본 선사들의 게송, 중국 선사들의 저서는 물론 최근 출판된 수필집도 인용하시는데 거침이 없고 막힘없이 온 열정을 담아 강의하신다.



◇송광사에서 30여년 주석하신 법흥스님은 비상한 기억력의 소유자로 아무리 오래전 일도 정확하게 기억하기에 '송광사의 산 역사' 라 불린다.

> "게으름 피우는 사람 사정없이 불호령 "부지런해야 한다"

스님은 우리 사회가 자꾸 혼란스러워지고 인간이 워기감을 느끼는 이유가 모든 것을 물질에 우위를 두는 서양사고적 가치관에 기인한다고 진단하신다. 즉 물질의 힘과 정신적 도덕적 부조화로 인해 발생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불교에 있으며 불자들이 우리 사회를 밝고 바르게 하는데 앞장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불교를 왜 믿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실천해 백년을 두고 향내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것이다. 적어도 사찰 수련회에 온 사람부터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이 사회를 맑히는 향내를 주는 사람인지 구린내를 풍기는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다.

"요즘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밝은 마음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요즘 참선이 관심을 끄는 이유도 마음을 깨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청정한 마음, 광명정대한 마음이 되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닦으세요. 고(苦)를 소멸하고 자성을 닦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일러주셨지요.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고 바로 행동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정진을 하라는 팔정도가 그것이지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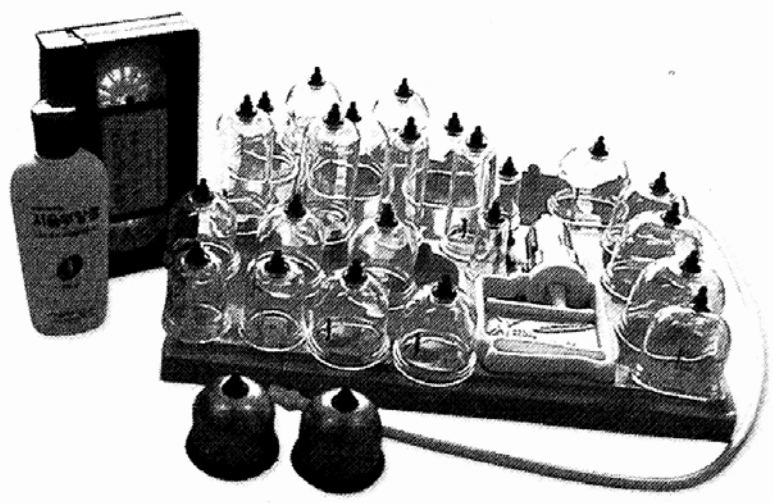
왜 발심했는지 명심

스님은 지금으로부터 43년전인 29세때 효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당시로서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출가한 스님은 역시 늦깎이로 혹독하게 수행해 깨달음을 얻고, 출가한 지 12년만에 송광사 방장 자리에 오르신 효봉스님을 수행의 귀감으로 삼고 있다. 평소 법문하실 때도 자주 수행자가 사표로 삼아야 할 대표적 예로 든다.

"여러 곳에 다니며 많은 스님을 만나보았지만 효봉 스님 만한 대근기가 없습니다. 효봉 스님은 금강산 신계사에서 8년 장좌불와와 오후불식의 고행으로 도를 깨치셨어요. 안거에 들어갈 때 미리 '저는 늦게 입산하다보니 한가하게 정진할 수 없습니다. 입선관 방선 결제 해제를 하지 않고 계속 앉아있게 해달라' 고 대중들의 양해를 얻었다고 해요. 그러한 결연한 의지와 각

불자님의 건강을 **藥師附缸**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 주의 : 부항은 소독이 중요합니다. 삶아서 사용하세요

타원부항의 신비를 느껴 보세요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

법흥 스님은?

기억력 탁월 '이 시대의 아난'

매일 전각돌며 정성껏 참배



무각사 주지 광민스님은 은사 법흥 스님이 어떤 분이냐는 말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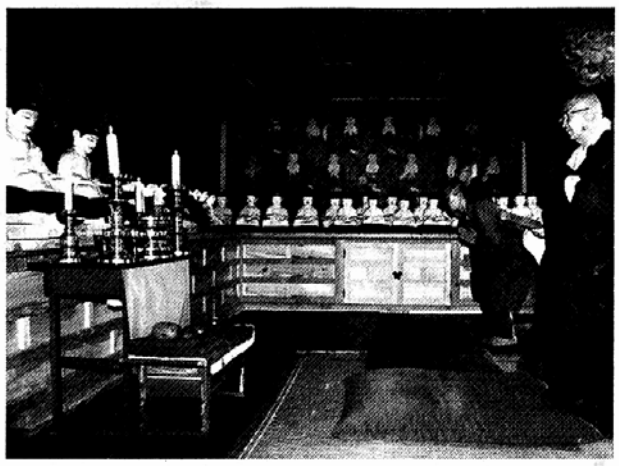
"스님은 50년대 당시로는 드물게 대학교육까지 받은 엘리트이고 속가 집안도 부유했습니다. 또 당시 최고로 존경받던 방장 효봉스님의 상좌이셨기에 얼마든지 높은 지위나 명예직에 욕심을 낼 수 있는 환경에 있었지만 욕심이 전혀 없으셨고 초지일관 부처님 말씀 안에서 사실려고 하는 원칙을 40여년 지켜오신 분입니다. 처음 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세요. 그렇게 사시는 스님이 답답하고 무능(?)하게 까지 비쳐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시류에 전혀 휩쓸리지 않고 여전히 순수하시고 고지식한 모습에서 '진짜' 스님의 본모습을 보게 됩니다. 존경심이 느껴지지요."

1931년 충북 괴산에서 나신 법흥 스님은 58년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59년 동화사에서 효봉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통도사 해인사 상원사 등 제방 선원에서 안거를 지냈고 74~77년 송광사 주지, 84년 송광사 조계총림 유나를 역임했다.

법흥 스님은 특히 기억력이 탁월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아난'이라는 별호가 따라다닐 정도다. 스님은 한번 보거나 들은 내용을 웬만 해선 잊는 법이 없다. 70이 넘으신 지금도 조계종 스님들의 이력, 송광사 역사, 경전은 물론 수십년전 돌아가신 노스님의 열반일과 그 전날 무슨 말씀을 했는지 등 줄줄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스님의 비상한 기억력은 물론 타고난 영특함도 있겠지만 늘 공부하는 자세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 같다. 스님은 무슨 책을 읽든 좋은 구절이나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따로 노트에다 일일이 적어두고 암기를 해 두신다. 그러한 노트가 벌써 5권이 넘었다.

새벽에 일어나시면 어김없이 대능엄주 독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대웅전과 각 전각을 독경하면서 일일이 참배하시는 일을 거른 적이 없는 스님은 자자 포살, 전 대중이 합게 발우 공양, TV 없는 사찰 등 승보종찰 송광사만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일에도 늘 앞장서고 계시다.



◇청정함과 감사하는 마음, 꿋꿋하게 밀어붙이는 용맹심이야말로 마음을 깨칠수 있는 기본요소라고 하시는 법흥 스님.

고의 노력이 없으면 깨달음을 이루기 어렵다고 봅니다. 나 라는 육신은 다생겁래 익힌 습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이 가득차 있으니 부지런히 닦아야 합니다.

효봉 스님이 그러셨어요, 미혹한 범부가 부처 되기가 그리 쉬우냐고요. 백천간두에서 진일보 하는 마음으로, 뼈를 깍는 고행을 하겠다는 각오로 정진, 또 정진 해도 업장을 녹이기 어려운데 하물며 부처가 되겠다고 발심 출가한 이들이 게으름을 피우며 어영부영 세월만 보내면 되겠어요? 출가자가 부처님 밥만 축내서야 되겠어요?

나이 40~50이 넘었으면 자운스님처럼 계행을 철저히 지켜 계덕을 입든지, 효봉 스님이나 구산 스님처럼 참선을 잘 해 선정삼매에 들어 정진력을 입든지 옴마니반메훔을 열심히 해 주력하든지, 기도하든지 해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어야 어디가서든 존경을 받게 되고 저절로 권위가 서는 겁니다. 그래야 중노릇을 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면 중노릇 헛한 거예요."

올해 세수 71세인 스님은 허리가 안좋아 좌복에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다고 하신다. 그러니 나이 40 전에 득력(得力)하도록,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고 하신다.

상좌인 지묵스님(법련사 한주)은 스승에 대해 "70이 넘으신 지금도 매우 부지런하고 활동적인 분"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한다. 언제 뵙더라도 경을 읽고 계시거나 참선, 주력을 하거나 사경을 하시고 있고, 마당을 쓸거나 하신다는 것. 게으름을 피우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이 법흥스님이 특징이다.

법흥 스님은 제자들에게 늘 "'부처님이 가신 길을 따르겠다고 서원한 수행자가 절에 와서 게으름 피우면 안된다. 부지런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고 한다. 스님은 눈치나 보고 살살 꾀를 부리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신다. 제자들 뿐 아니라 신도나 마을 사람들도 게으름 피우는 것을 보시면 즉석에서 사정없이 야단을 치신다.

역시 상좌인 광민 스님(광주 무각사 주지)은 "스님은 늘 말씀 하십니다. 불교가 사회를 교화해 밝은 곳으로 이끌어야 하고, 세파에 찌들리고 삼독에 물든 사람들을 청정심으로 이끌어 주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는데 도리어 출가종단이 세파에 시달리고 세속인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니 될 말이냐고 걱정하시지요. 진흙탕 연못을 정화시키는 연꽃처럼 자신은 아름다운 깨달음의 꽃을 피우면서 동시에 진흙탕을 정화시킬 수 있는 수행력을 지니고 있으려면 청정함을, 본래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쉼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 하시지요."

기복불교 반드시 척결

스님이 되어 가지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부귀를 누리더라도 죽을 때는 공부한 만큼만 가지고 가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면 포교니 주지니 다 소용없다. 공부 잘해서 깨닫는 것이 '중의 첫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수행자의 본분사가 무엇인지, 왜 발심출가했는지, 근본을 잊지말라고 강조하시는 스님은 다음과 같이 덧붙이신다.

"인간은 다생으로 쌓인 습이 워낙

> 한번 결심했으면
> 꿋꿋하게 밀고가는
> 용맹심 있어야

두꺼워 남의 눈이 보지 않으면 욕(慾)을 이겨내지 못하니 가능한 대중살이가 좋지요. 또 파계(破戒)는 파기(破器)라고, 가장 수행자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깨진 그릇에는 아무리 물을 퍼부어 봤자 물이 담기지 않는 것처럼 계율을 어기면 결코 성불할 수 없어요."

신도들에게도 따끔하게 말씀하신다.

"영험있다는 부처님만 찾아 돌아다니지 말고 자성을 닦아야 합니다. 부자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 대학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하는 생각만으로 절에 오지 마세요. 성철스님 하시는 얘기가 한국불교 망하는 원인은 우리 절 부처님은 영험 있어, 우리절에 기도하면 아들 낳고 부자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하는, 이런 기복 불교 때문이라고 야단치셨어요. 절에서는 목탁치고 받는 돈벌이에만 생각이 있고 신도들은 '해주세요' 하는 욕심으로 기도를 채운다면 한국불교는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스님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우선 세가지를 명심하라고 일러주신다.

첫째, 마음을 청정하게, 하늘처럼 넓게 써라.

둘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부처님에 대해 국가에 대해 부모님에 대해 스승에 대해, 그리고 이웃에 대해… 즉 만 중생에 대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셋째, 용맹심이 중요하다. 한번 결심했으면 꿋꿋하게 밀어붙이는 용맹심이 있어야 무엇을 이루어도 그 결과를 볼 수 있다. 차일피일 미루거나, 남에게 의지하거나, 게으른 사람은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 어떤 재가불자들은 생활에 시달리고, 일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데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 재가인들도 열심히 정진하겠다는 투철한 신념과 꾸준한 용맹심을 가지는 마음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금생에 안되니 내생에 다시 비구 몸 받고 부처님 법 만나 성불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기도하신다는 법흥 스님은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에 나오는 가르침을 즐겨 붓으로 써 제자들을 비롯 후학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출가본분사를 늘 챙길것을 경책하신다.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며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고 죽음을 면하려는 것이며,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삼계에서 벗어나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다."

글=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현진스님의

스님이야기

낭림스님



낭림(朗林) 스님은 흔하지 않은 특이한 이름 때문에 처음 만나는 이는 꼭 법명을 되물어 본다. 입에 익지 않으면 발음하는 일도 힘들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몇 년이 지나도 그의 법명을 잘 외우지 못한다. 스님네들의 법명은 대부분 중복되거나 역사적 인물과 관련되어 있기 마련인데, '낭림'이라는 이름은 한국불교인명사전을 검색해도 보이지 않는다. 얼핏 들으면 우습기도 한 그 이름을 가지게 된 인연도 알고 보면 개성이 강한 그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봉암사에서 행자 노릇을 할 때, 어느 날 큰스님께서 방으로 부르시더란다. 뜻밖에도 큰스님은 행자의 이름을 미리 지어놓고 기다리고 계셨다. 이름을 여러 개 놓고서 마음에 드는 것을 집어보라는 말에 얼른 '낭림'이라고 적힌 종이를 가졌단다. 그 때 큰스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무슨 뜻인 줄은 알고 집었느냐?" 물으시자, 행자의 대답이 오히려 선문답에 가까웠단다. "한문이 쉽잖아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배꼽을 잡고 웃지만 그러한 낭림 스님의 재치 때문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평소에도 이처럼 단순하고 파격적인 성격의

재치있는 말솜씨 웃음보 자극

한번 마음먹은 일 끝까지

일면을 많이 보여준다.

낭림 스님은 말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때때로 그의 위트는 포복절도할 만큼 순발력을 발휘한다. 끊임없이 말재간을 부려 주위를 즐겁게 하는 것이 유머있는 사람이라면, 위트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웃음을 유발시키는 폭발력은 위트가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낭림 스님의 위트는 펄펄 살아 있는 선사(禪師)의 활구(活句)처럼 시원하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신도가 찾아와서 그의 피부가 너무 곱다고 칭찬을 하였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앞에 있던 신도는 자신이 무슨 실수라도 한 줄 알고 당황하고 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 "사실은 거울 볼 때마다 저도 놀랍니다, 피부가 너무 좋아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나 자신도 의외의 그 대답에 한바탕 웃음보를 터트렸다. 이같이 위트는 농담인줄 알아차리는 그 찰나에 상황이 반전되는 것이다. 이런 위트의 논리가 마치 우리 선문(禪門)의 격외(格外) 법문과 닮아 있어서 한번씩 매력이 느껴진다.

낭림 스님은 개성이 강하고 고집이 있다. 지나치면 아집과 독선이 되지만, 때로는 수행자에게 이런 고집은 직립수행의 한 과정으로 나타난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안일과 갈등을 길들이는 자기 통제의 수단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낭림 스님에게 이런 고집은 집중력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언젠가 눈 치우는 울력을 함께 한 적이 있다. 그 해 겨울은 눈이 자주 내려 눈이 겹겹으로 쌓여 있었다. 눈을 쓸고 나면 바닥은 온통 빙판이라서 미끄러지지 않게 길을 내기가 무척 힘들었다. 삽으로 치우다가 나중에는 곡괭이까지 동원되는 큰 일이 되었는데 나는 힘에 부쳐 포기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는 해질 무렵까지 빙판의 얼음 깨는 그 작업을 쉼 없이 하는 것을 보고, 성격과 고집이 일상의 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번은 삽질을 하다가 삽자루가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부러진 부분이 삽에 단단히 박혀 빠지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 성격 같으면 그냥 창고에 쳐 박아 두고 말 것인데, 그는 반나절을 그 삽을 가지고 망치질을 하고 씨름을 하더니 기어코 부러진 삽자루 조각을 떼어내고 마는 것을 보고, 일에 매진하는 적극적인 그의 모습에 또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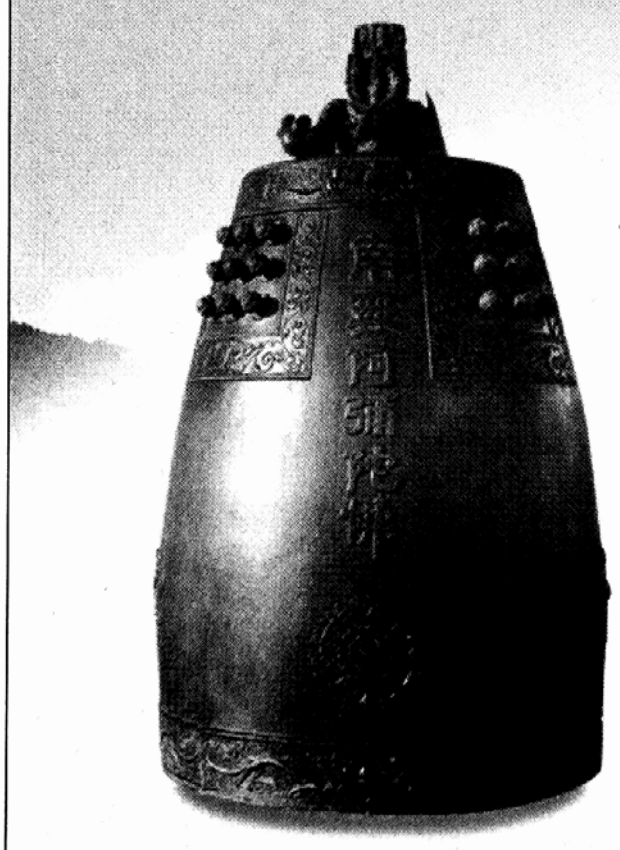


번 놀랐던 적이 있다.

낭림 스님은 힘이 장사에 가깝다. 무거운 짐이나 돌덩이 같은 것도 그의 힘을 빌리면 쉽게 옮겨진다. 해인사 학인 시절 그의 힘은 절정이었다. 하루는 경승용차 한 대가 눈에 미끄러져 차 한 쪽이 개울가로 기울어진 일이 있었다. 그 때 그가 팔을 걷어붙이고 기울어진 차를 가볍게 들어올리는 것을 보고 구경하던 도반들이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가만히 보면 그는 무조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지혜를 빌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렛대의 원리처럼 온 힘을 쓰지 않고도 자신의 힘을 몇 배 더 발휘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머리를 알고 힘을 쓴다는 뜻이다. 아닌게 아니라 자신은 힘이 좋은 게 아니라 머리가 좋다는 스님의 말이 백 번 맞는 것 같다.

스님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만화를 무척 좋아한다. 만화책은 밤을 지샐 정도로 즐겨 읽고 텔레비전의 만화 프로그램에 대해 아이들보다 더 훤하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만화 주인공들을 소재로 아이들과 신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장난도 친다. 가끔 혼자서 만화를 보며 낄낄 거리고 웃는 스님의 모습에서 순수하고 맑은 동심을 느낀다.

▨월간 '해인' 편집위원



중량 3,300관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정신

鐘 宗 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가을을 맞은 화랑가가 분주하다. 가나아트센터가 개관 3주년 기념전으로 평소 접하기 힘든 요절 작가들의 유작들을 선보이는 기획전을 준비했는가 하면, 부산에서는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경전도 준비됐다. 또 고 이응노 화백의 작품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추상화 전과 우리 주변의 자연과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풍경전들도 다수 선보이고 있다.

가을 화랑가에 가면 사색과 성찰의 시간

요절작가전 · 금니사경전 · 추상화전 · 설치작품전 등 다양

■ 요절과 숙명의 작가전

가을이 시작되는 9월, 북한산 기슭 가나아트센터가 개관 3주년을 맞아 '요절과 숙명의 작가전'을 연다. 한국 근현대작가 가운데 아쉽게도 요절했거나 길지 않은 작품활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작품을 남기고 간 이들을 기억하고자 기획된 특별전이다. 한국 최초의 모더니즘 작가 구본웅, 신화가 되어버린 이중섭 등 20세기 한국미술에 빛나는 성과를 남긴 이들의 작품이 전시된다.(02)720-1020

■ 종학 스님 금니사경전

6년간 〈화엄경〉 80권 60만자를 금니로 사경한 '화엄경금니사경 전시회'가 20일부터 24일까지 부산국제문화회센터 소전시실에서 열린다.

부산불교연합회 주최로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의 작품은 부산불교연합회 부회장 종학스님(불광사 주지)이 1995년부터 금니로 사경한 것이다. (051)867-0501

■ 박용일 풍경과 바람전

화가 박용일은 우리들에게 시간 혹은 바람의 궤적을 그림으로 이야기 한다. 그는 땅 바닥에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 쓰러져버린, 이제는 한낱 쓰레기로 흩날리는 이파리를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확인한다. 도시 변두리의 풍경들을 그려낸 그의 작품에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우리네 삶의 풍정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17일까지 갤러리 상에서 열린다.(02)730-0030

■ 김아영 산수화전

12일~10월 2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아트사이드에서 열리는 '김아영 초대전'은 흔히 보기 힘든 산수화전이다. 김씨가 그린 산과 들은 빼어난 아름다움과 유명한 전설이 깃들어 있는 산수가 아니다. 너무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린 뒷산의 풀숲, 큰 산이 아니어서 자칫 초라하게 느껴지는 우리 주변의 산과 나무, 들과 꽃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담아낸다.(02)725-1020

■ 노상균 설치작품전

지난 1999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대표로 참여하는 등 실험적인 작업으로 국내외 화단에 알려진 노상균씨의 전시회가 갤러리 현대에서 21일까지 열린다. '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 노씨는, 예쁜 색깔의 불상과 예수상 복제를 통해 생명의 영역까지를 복제하려는 인간의 허망한 욕망을 표현했다. (02)734-6111



◇'방향'을 주제로 한 노상균의 설치작품. 불상의 복제를 통해 생명의 영역까지를 복제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했다.

■ 60년대 이응노 추상화전

15일~10월 14일까지 열리는 '60년대 이응노 추상화전'은 이응노미술관이 개관 이후 세 번째로 선보이는 전시다. 이번 전시는 구상에서 벗어나 추상의 세계를 탐구한 이응노의 전환기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02)3217-5672

이은자 기자 ejae@buddhapa.com



◇과감한 여백 사용과 생략을 보여주는 수안 스님의 최근작.

수안 스님의 선화 '러시아 나들이'

선화가 수안스님이 3일~19일까지 러시아 모스코바 로시조 국립박물관 전시관에서 작품전을 갖는다.

러시아에서 한국 스님의 그림 전시회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안스님 그림 전람회'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최근 3년간 제작한 선서화 80여점을 선보인다. 러시아 연방 문화부와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한국 불교와 한국의 수묵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인 스님 '법화경' 독송 CD 27장에 담았다

"아무리 좋은 경전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를 되새기지 않으면 봄자 자신에게 어떤 도움도 될 수 없습니다."

대승불교의 중요한 경전 가운데 하나인 〈법화경〉 28품을 완송해 총 27개의 CD에 담은 독송 앨범을 선보인 영인스님의 말이다. 스님은 특히 〈법화경〉 28품 전체를 한글로 독송해 불자들의 이해를 한층 쉽게 했다. CD 27개를 모두 감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17시간 7분 18초다.

"기존의 경전 독경 테이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지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차분히 듣다 보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법화경〉을 공부하는 봄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스님은 〈법화경〉의 의미를 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7년 전부터 〈법화경〉을 독송하고, 공부하며, 한글로 직접 번역까지 해가면서 준비를 해왔다. 지난 2월부터 기획제작사 뿌인에서 〈법화경〉 독송 제작에 들어가 6개월 여 간의 녹음 작업 끝에 이번 앨범을 내놓았다.

현재 경남 합천군의 한 토굴에서 수행중인 영인스님은 14세에 쌍계사 고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0대 때부터 고산스님으로부터 피를 토하는 엄한 교육을 받으며 염불을 배웠다고 한다. 타고난 목청에 초등학교 때 수영선수로 활동해 남들보다 뛰어난 폐활량으로 일찍이 고산스님으로부터 염불의 맥을 이어갈 재목으로 인정받은 스님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정진해 〈화엄경〉도 한글로 독송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은자 기자



◇〈법화경〉완송CD 펴낸 영인 스님.

서울 부암동 산자락에 '아라가야 미술관' 개관

야외공연장 · 염색체험장 등 복합문화공간

서울 종로구 부암동 산 자락에 복합문화공간 '아라가야 미술관'이 20일 문을 연다. 천연염색가이자 한복디자이너인 봄자 이나경씨가 설립한 아라가야 미술관은 총 750평의 규모로 미술관과 야외공연장, 야외전시장, 공예아트숍 찻집, 염색체험장 등으로 꾸며진다.

지난 3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 아라가야 미술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국민벤처펀드 투자기업으로 선정돼, 문화벤처의 전형을 보여줄 계획이다.

미술관에는 고유의 천연염색문화와 아라가야에서 생산 증인 천연염색 원단과 한복, 소품 등 각종 제품을 선보이고, 야외전시장에도 각종 미술 전시회를 연다. 또 한지와 향, 금속공예 등 우리 전통문화를 아트숍에서 전시 판매하고,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생생한 우리 문화체험공간으로 꾸려나갈 계획이다. 또 야외공연장에는 한복 패션쇼를 겸한 야외음악회, 퍼포먼스 공연 등을 준비해 선보일 예정이다.



◇ 종로구 부암동에 20일 문을 여는 아라가야 미술관.

이씨는 "일반인들이 우리 문화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강좌를 마련하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우리의 고급문화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733-0442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은 깨달음의 경지를 '사랑의 시'로 쉽게 표현함으로 선禪의 인간화, 현대화, 대중화에 성공한 작품이다. '의심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구도의 과정을 '그리움에서 만남까지'의 시로 만들어서, 난해한 선의 세계를 누구나 알기 쉬운 보편적 사랑의 언어로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이 소중한 글이 수감생활의 고독과 절망 속에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은 이 시를 더욱 영롱한 보석처럼 돋보이게 한다.

이런 일련의 사실은 '기독교 신비주의'의 정상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시詩 〈영혼의 노래〉를 상기시킨다. 16세기 스페인 출신의 이 신부는 그 영성의 깊이로 말미암아 1926년 교황 삐오 XI세에 의하여 '교회박사'라는 명칭을 부여받을 정도로, 카톨릭 역사상 신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간 인간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신비체험을 '사랑의 시'로 표현했는데, 묘하게도 그 내용이 〈님의 침묵〉과 너무도 흡사하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한다.

한용운 '님의 침묵' (5)

깨달음의 소식 동-서양 초월 '증도가'로 표현

아아, 님이여, 어디로 가셨나이까?
나만 홀로 한숨 속에 남겨두고
내 가슴을 찢어 놓고
훌쩍 떠나신 님
울부짖으며 따라 나섰건만
이미 가버린 뒤
(…)

십자가의 성 요한은 부패하고 보수적인 당시 카톨릭 교회의 개혁을 시도한 인물이다. 완고한 카톨릭주의에 항거하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운동이 북유럽을 중심으로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던 시대상황을 외면하면 당시 보수종단에 대하여 체제 내의 개혁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젊은 수도사의 앞날에는 모든 개혁가가 걸었던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한밤중에 납치되어 어느 수도원 탑의 꼭대기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는 가느다란 햇빛 한 줄기밖에 들어오지 않는 감방에서 온갖 협박과 회유, 체벌과 죽음의 위협 속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적인 '어두운 밤'에 처했을 때, 간절한 기도 속에서 신비로운 영적 깨달음을 체험한다. 그는 후에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하여, 피신처에서 자신의 영성 체험을 시로 남기는데, 그것이 〈영혼의 노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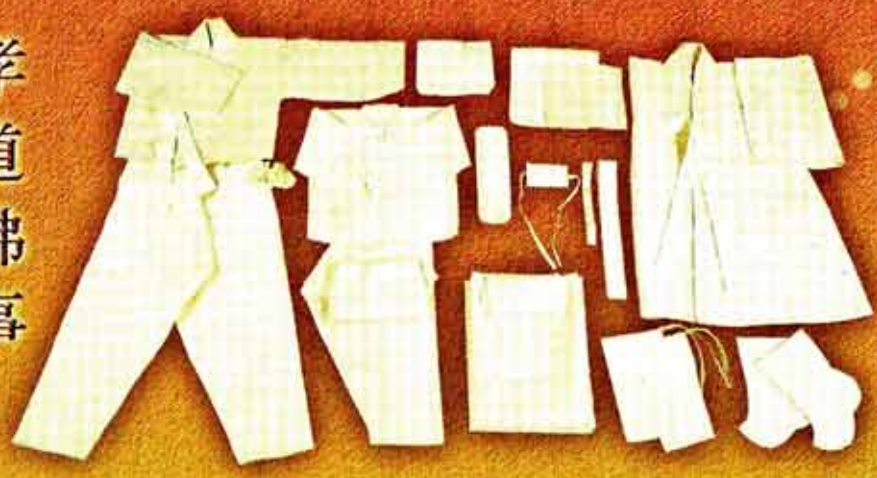
인간의 내밀한 종교적 체험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굳이 그것을 표현하자면 시적 언어를 빌리지 않을 수 없다. 동서고금의 모든 경전이 그 고리로서의 의미를 떠나 한 편의 장시로 읽힐 수 있는 것은 이 까닭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동서양을 초월하여 깨달음의 소식이 가끔 '사랑의 서정시'로 쓰여진다는 사실이다. 깨달음의 체험이 사랑의 언어를 빌린다는 것은 주관과 객관 등 모든 대립이 해소되어 완벽한 일치에 도달했다는 말이다. '사랑의 증도가'는 곧 '한마음(一心)의 노래'이다.

〈영혼의 노래〉는 기독교 영성 연구에서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대장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결코 과장이 아닌 것 같다.

■문학평론가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1,40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수분흡수와 방습기능은 일반면의 삼배, 특종이나 피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30,000원)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x262cm(길이) (20,000원)

btn 불교텔레비전 32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 청 방 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

밀교 길라잡이 문고 '가까이 …' 100권 펴낼터

요즘 서점가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밀교관련 책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98년 설립된 진각종립 위덕대학교 출판부가 '가까이 있는 밀교' 와 '밀교문화총서' 등을 내놓으면서부터다.

위덕대 출판부 설립에 산파역할을 한 박희택 과장을 만났다. 그는 먼저 "대학출판부가 학술출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진각종 종립대학으로서 불자들을 위한 양서를 내놓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며 출판부 역할을 강조했다.



위덕대 출판부가 설립이후 3년 동안 내놓은 책은 5개 영역 17종이다. 그 대표적 책을 꼽으면 위덕학술총서 〈불교혼성범어 입문집〉, 위덕교양신서 〈대학과 대학인〉, 가까이 있는 밀교 〈현대 한국밀교안내서〉, 〈밀교의 눈으로 읽는 반야심경〉, 〈현대 한국밀교사〉, 밀교문화총서 〈금강계삼십칠존의 세계〉, 교양교재 〈불교와 사회〉, 〈반도체공정 실험〉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위덕대 출판부가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분야는 '가까이 있는 밀교' 시리즈다. 문고판으로 출간되고 있는 이 시리즈는 지금까지 8권이 출간됐고 앞으로 100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과장은 "불교출판에 있어 밀교분야는 사실상 등한시 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불자들에게 밀교를 접하게 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가로막은 셈이다. 앞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밀교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밀교' 시리즈를 특화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위덕대 출판부는 밀교출판의 활성화를 위해 출판기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학교발전기금이나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것처럼 출판기금제도를 활성화해 양서출판은 물론 출판부를 지성계를 이끌어가는 센터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90여개(4년제) 대학에서 출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위덕대 출판부는 설립된 지 3년여밖에 안되었지만 운영체계는 여느 대학못지않을 정도로 알차다. 운영과 출판여부를 결정하는 출판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편집과 행정 그리고 영업팀을 별도로 구성해 대학의 부설기관이 아닌 독립법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학술 · 교양 · 밀교문화총서 등의 출판을 통한 학교와 학문 발전 그리고 지성의 센터로 자리 잡는 것이 위덕대 출판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하는 박 과장의 말은, 비단 위덕대 출판부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 출판부가 상업출판계에서 소외된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줘야 하는가를 일깨워 주는 말이기도 하다.

김중근 기자

책과 삶

위덕대 출판부 산파역
박희택 출판과장

출판기금제도 운영 지성센터 구축 지향

늘 깨어 마음과 행동 살피라

'그대 스스로 변화를 시작하라' 이거룡 옮김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보다 귀한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려는 결심으로
내가 항상 그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대 스스로 변화를 시작하라>(이거룡 옮김, 아테네)는 티베트의 스승 달라이 라마가 지난 99년 5월, 런던 웸블리 컨퍼런스 센터에서 3일 동안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선하게 바꾸는 방법'을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텍스트는 티베트 경전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8편의 시'.

11세기 티베트 명상가 랑리 탕파에 의해 쓰여진 이 시편은 티베트의 영적 문학 장르인 '로종'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8편의 시'에 대한 달라이 라마의 주요 가르침은 단순 명쾌하다. 자부심을 가지는 것,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를 지니는 것,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계발하고 나쁜 상황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 등이다.

첫 시편은 자아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한다.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如意寶珠)보다 귀한/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려는 결심으로/ 내가 항상 그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마음 선하게 바꾸는 방법

티베트 8편 시 통해 소개

달라이 라마는 이 시를 통해 "우리는 다른 모든 중생을 자신에게 지극히 사랑스럽고 귀중한 존재로 여기겠다는 큰 뜻을 품고 있다. 왜냐하면 최상의 목표, 즉 중생들의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이 목표는 소망을 성취하는 전설적인 보석을 능가해야 한다. 아무리 귀중한 보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의 정신적인 성취를 가져다줄 수 없기 때문이다"고 강조한다.

이어 달라이 라마는 두 번째 시편인 '나의 모든 행동을 스스로 살피게 하고/ 마음 속에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나는 당당히 맞서 그것을 물리치게 하소서' 를 읽은 다음, "늘 깨어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살필 것"을 권유한다. 스스로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나쁜 성향들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의 폭발을 막고 나쁜 말과 행동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나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나를 가장 낮은 존재로 여기며/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들을 더 나은 자세로 받들게 하소서.'

'나의 모든 행동을 스스로 살피게 하고/ 마음 속에 번뇌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나는 당당히 맞서 그것을 물리치게 하소서' 등 달라이 라마가 전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8편의 시'는 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

"해탈을 얻으려는 이타적 의지가 보리심이다. 그러나 보리심은 오직 규칙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을 얻으려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고 변화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마음의 변화는 한밤 중에 문득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런 보리심을 나누기 위해 그 길에서 장애가 되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자상하게 일러준다.

동국대 연구교수로 있는 이거룡 씨가 옮긴 이 책은, '변화의 시작' '이타심을 통한 변화'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8편의 시' 등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본질 꿰뚫는 순간 고통 소멸

'보면 사라진다' 김열권 지음

"잠들기 전, 몸이 침대 시트에 닿으면 처음엔 딱딱하면서 차갑다가 그 느낌이 끊임없이 변해 닿는 부위의 느낌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럴 때 의식은 거의 비어 있게 된다. 그 상태가 이어져 잠으로 빠져드는 순간을 알아차린다. 다시 '확' 깨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림과 동시에 관(觀)으로 되돌아보면 몸의 형태는 어제 밤 누웠던 그대로이고 시간은 찰나 밖에 안 지난 것처럼 느껴진다. 잠들기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 보이고 머릿속은 맑다 못해 청명하다…."

위빠싸나 수행자 조연숙(45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씨는 작은 동작 하나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조금씩 관찰하다보니 몸과 의식의 흐름 속에서 무언가가 잡혔다면, 지금 여기의 삶이 위빠싸나라고 말한다.



신간 〈보면 사라진다〉(정신세계사)는 현상과 본체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아 욕망과 어리석음이 없는 자리를 체득하는 위빠싸나의 수행을 체험기를 통해 보여준다. 지은이는 〈깨달음으로 가는 오직 한 길〉, 〈위빠싸나 열두 선사〉 등을 내놓은 김열권 씨.

책은 '위빠싸나란 어떤 수행인가' 부터 설명한다. 지은이는 "위빠싸나는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12연기를 관찰하면서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이다"며 "위빠싸나 수행을 통해 생각 · 말 · 행동 이전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현재 하는 일과 마음이 온전히 일치되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이 책의 특징은 위빠싸나 수행법을 예비수행과 본수행의 2단계로 나눠 이론과 그것의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수행자를 유형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수행법을 제시한 점은 자칫 공소해지기 쉬운 수행론에 설득력을 더한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스님 51명의 설법 모음집

BBS 지음 '진리에 귀의하고 진리를 …'



초심자들의 마음가짐을 독려하는 하심(下心)에서부터 구참 수행자들의 수행지침 등을 두루 설립하는 불교방송 라디오법회 설법집 〈진리에 귀의하고 진리를 등불 삼으라〉(불교방송)는 고불총림 백양사 운문선원 방장 서옹 스님의 '참 부처의 자리'에 대한 법문으로 시작한다.

욕망도 부처 마음자리의 작용이 된다고 설하는 서옹 스님의 법문은 일견 파격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 위에 이성이 있고, 그 이성 위에 부처의 마음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스님의 법문에 크게 공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러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욕망으로만 살기 때문에 험악한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려면 부처 마음자리를 믿고 부처 마음자리에서 과학문명을 다시 창조하면 거기에 행복과 평화의 길이 있다는 것이 서옹 스님의 법문 요지다.

이 책은 불교방송이 지난 90년 5월 개국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매주 일요일 프로그램인 '라디오 법회' 시간에 출연한 스님들 가운데 51명의 법문을 6장으로 나누어 실었다.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삶의 질서와 조화 찾는 지름길

'계율학개론' 목정배 지음



질서는 삶의 조화를 보장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좀 단순화하여 말하면 혼란 그 자체다. 정보사회로 치달을수록 인간 내면의 정서적 질서는 분열을 일으킨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질서와 조화를 찾는 일이다.

불교에서는 이미 2,500여년 전에 마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계율을 제정했다. 수법수제(隨犯隨制)가 원칙이다. 마음이 바르게 나아가지 않고 있으면 그 잘못된 마음의 향방을 다스리는 것이 계율이다.

신간 〈계율학 개론〉(장경각)은 계율의 시원에서부터 한역 팔리 서장 대승 등 율장의 성립, 죄과의 분류 등 계율을 종합적으로 살핀 책이다. 값 9천8백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거울	원 성	이 레
2	수행요론	박 현	바 나 리
3	삭발하는 날	현 진	호 미
4	유식학 강좌	고 목	삼 양
5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6	영가천도와 49재	박 연 진	민 족 사
7	아, 일타 큰스님	김 현 준	효 림
8	참회 참회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9	생활수행이야기	법 상	불 광
10	붓다는 없다	베 철 러	이론과실천

도서 안내 : (02)737-0695

돈황! 예술과 구도의 혼이 살아 숨쉬는 그 천년의 도시로 떠나고 싶다.

돈황 가는 길 신간

KBS 〈9시 뉴스〉 '올 여름 읽을 만한 책'으로 선정!
조선, 중앙, 동아, 국민, 한겨레, MBC, YTN등 전언론이 주목한 책!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의 작가 정찬주가
불심을 품고 구법승의 길을 따라 나선 새로운 지적 여행기.

사막 속 오아시스 도시 돈황! 진리를 찾아 고독한 길을 건넜던 구도승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땅.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돈황으로의 여행. 130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우리 앞에 나타난 석굴벽화 속의 화랑으로 추정되는 삼국인 발견. 돈황 석굴벽화에서 화랑으로 추정되는 삼국인 최초 발견!

■ "전작들에서 정찬주만의 독특한 불교적 가치를 통찰하는 심미안과 수승한 문장력에 감탄한 바가 없지는 않으나 〈돈황가는 길〉에는 한층 무르익어 마치 진신의 사리를 봉안한 다보탑을 보는 듯한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최인호(소설가)

정찬주 글 · 사진 | 반양장 | 국변형판 | 296쪽 | 본문 4도 | 값 9,900원

MBC-TV〈일 · 밤〉 '건강보감'
침술의 달인! 한의학계의 풍운아!
이경제 원장이 들려주는 초간편, 초강력 이침요법!

기통찬 한의사 이경제의
이침 이야기 신간

■ "이 시대의 보기드문 실력파. 그의 이침요법은 정말 놀라운 치료법이다. 나를 포함해 동료 연예인들이 가장 먼저 기다려온 책."
■ "작은 침이지만 맞고 나면 믿기 힘들 정도로 금방 좋아짐을 느꼈다. 이제는 그 놀라운 효과를 선전하는 '이침전도사'가 되어버렸다."

이경제 지음 | 변형판 | 256면 | 본문 올

다이어트, 미용, 금연, 금주는 물론 각종 성인병에서 수험생의 성적 향상까지 이침으로 해결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인정한 이침요법!

부록 1.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효과의 스티커침 세트
2. 이침반사구 그림카드와 이 스티커침 부록 포함, 이침반사구 그림카드

TEL:02)741-1990 FAX:02)745-4827 http://www.gimmyoung.com 김영사

월정사 성보박물관 10월 학술세미나 연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은 개관 2주년을 맞아 10월 12일 '강원도 불교문화재의 종합적 검토' 학술 세미나를 연다. 정병조(동국대) 교수의 '한국 불교사에 있어서 강원불교의 의의' 기조 발표에 이어 불교 조각과 회화, 공예, 서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강원도 불교문화재의 가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조계종 문화부와 1996년부터 5년 동안 강원지역 60여 사찰의 성보 문화재 현황조사를 벌인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강원 불교문화재 도록〉(가제)에는 1910년 이전 조성된 지정 · 비지정 문화재 130여 점을 사진과 함께 담을 계획이다.

박물관장 현해(월정사 주지) 스님은 "그동안 강원지역 불교문화재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연구는 극히 미진했다"며 "학술세미나와 자료집 발간은 비지정문화재 현황 파악과 관리체계 마련, 도난과 훼손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강원문화재 특별전과 사진전'이 열린다. 권형진 기자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 등 고려초기 불교유물 3점 보물 지정

고려 초기 불교문화재 3점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최근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 등 4점을 보물로 지정하고, 예천 용문사 팔상탱 등 4점은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불교문화재는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보물 1322호), 시흥 소래산 마애상(보물 1324호), 전 낙수정출토 고려범종(보물 1325호)이다.

전남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는 고려 시대 옛 백제 지역에 세운 석탑답게 전체적으로 고려 시대 석탑의 대표적 양식을 띠면서도 백제 양식이 가미된 독특한 형식의 석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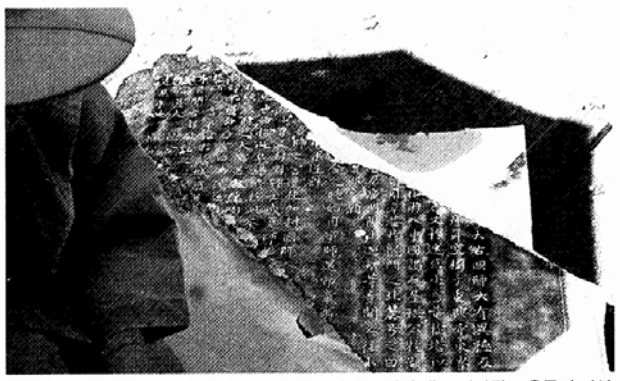
· 원통형 보관, 통견식 법의 등 고려 초기 조각의 보편적 양식을 보여주는 경기 시흥 소래산마애상은 5mm 정도의 얇은 선으로 새겼는데도 불구하고 보존상태가 좋고, 특히 회화적 표현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권형진 기자

"가평 소설암터 보우국사 열반지"

7월 발견 비석 보우국사비 확인

건립배경 · 문도이름 등 비석 뒷면에 적혀

"탄신 700주년 맞아 연구 활성화 기대"



◇태고보우 국사 탄신 700주년 기념사업회 화암 스님이 새로 발견된 보우국사 비석의 탁본을 하고 있다.

태고보우 스님이 열반했던 소설암터로 추정되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691번지 일대가 소설암터임을 뒷받침해 주는 비석이 발견됐다.

태고보우 국사 탄신 700주년 기념사업회(대표추진위원장 화암)는 이 마을 주민 박모(39 · 여)씨가 지난 7월 24일 집중호우로 흙이 유실된 근처 개울의 바닥에서 발견한 비석 조각을 4일 공개하고, 비석에 쓰여진 글자를 판독한 결과 태고보우 국사의 비석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산 태고사, 양평 사나사에 이어 태고보우 스님의 비석이 발견된 곳은 모두 3곳으로 늘어났다. 〈양촌집〉 등 문헌기록에 따르면 태고보우 스님의 사리는 태고사, 사나사, 봉암사, 소설암, 심송사 등 모두 5곳에 부도와 비를 세워 봉안했다.

이번에 발견된 비석은 폭 67.5m 높이 69.5cm 두께 12.2cm 크기로 사선 방향으로 깨진 채 발견됐다. 비석의 앞면에 새겨진 글은 비문을 쓴 양촌 권근의 문집 〈양촌집〉에 적힌 비문 내용과 일치하며, 이 때문에 이 비가 소설암에 세워진 태고보우 스님의 비석임이 확인됐다. 건립배경을 적은 뒷면의 내용은 이번에 처음 발견됐으나 마모가 심해 글자를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상태다.

글자를 판독한 이기선 불교조형연구소장은 "건립배경을 적은 뒷면에는 지금까지 기록에 나오지 않았던 대선사 수미(守眉)가 서열 2번째로 기록되어 있고, 문도 가운데 티베트, 인도 이름까지 보이는 등 고려 말~조선 초 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보인다"고 말했다. 뒷면의 '선사 원응'이라는 글로 미뤄 비는 원응 존자가 입적한 1390년과 조선왕조가 건국된 1392년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태고보우 스님의 비석이 발견됨으로써 이 일대가 소설암터로 확인된 사실은 단순한 위치 확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태고보우 스님이 직접 창건한 소설암은 주석 기간이 가장 길었을 뿐만 아니라 스님이 열반했던 곳이다. 때문에 비편의 나머지 부분 발굴과 절터 조사를 위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암(양평 사나사 주지) 스님은 "조계종 중흥조이며 태고종을 비롯한 10여개 종단에서 종조로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스님에 대한 제대로 된 조명이 없었다"며 "태고보우 국사 탄신 700주년을 맞는 올해 비석이 발견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퇴계 이황과 함께 조선 시대 대표적 성리학자이면서도 조명을 덜 받았던 남명 조식 선생 탄생 500주년을 맞아 유교계에서 남명학회 창립, 국제학술대회 등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벌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얘기다.

화암 스님은 "비석 발견을 계기로 탄신 700주년을 맞는 태고보우 스님의 생애와 사상뿐 아니라 관련 유적지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념사업회는 10월 24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탄신 70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스님의 탄신일인 11월 6일에는 고려 시대 국사 추대식을 재현하고, 산사음악회도 계획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jnny@buddhapia.com

"고령 지산동 당간지주 현 위치가 본래자리"

경북과학대 박물관 조사결과



◇경북 고령 지산동 당간지주(보물 54호).

원래 자리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던 경북 고령 지산동 당간지주(보물 54호)는 현 위치가 본래 위치임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당간지주의 하부 구조가 처음으로 밝혀졌다.

경북과학대학 박물관(관장 이영진)은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동 당간지주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4일 공개하고, 당간지주 하부구조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판축(흙으로 기초를 다지는 방법) 기법으로 기초를 다졌을 거라는 일반적인 예상은 빗나갔다. 당간지주는 지하 1m에 적심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세워졌다. 적심석 주위로는 사람 머리 크기의 바위로 보강석을 쌓았으며, 둘레에는 보강석이 무너지지 않게 외호석열을 돌렸다.

그 동안 상부구조에 대한 설명은 있었으나 당간지주 하부구조에 대한 발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물관 구자봉 학예연구실장은 "앞으로 있을 보수 및 복원, 보존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당간지주는 현재 69기가 전하며 국보로 2기가, 보물로 24기가 지정돼 있다.

한편 당간지주가 처음부터 현재 위치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고령읍 일대에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대규모 통일신라시대 절터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구자봉 학예연구실장은 "당간지주에서 200여m 떨어진 구 대구-야유물전시관 주변에서 통일신라시대 석불과 석등, 석탑, 연화대좌 등이 출토된 것으로 봐 이 일대에 대규모 절터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국회 문화관광위 국감 문화재 보수비 논의될 듯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보수에 관한 국고보조금 지급 실태와 불교문화재 도난 방지대책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고흥길, 정병국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올 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보수를 위해 정부에 예산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1800여건. 한나라당은 이 가운데 현장 실태조사를 거치는 건수는 10%도 안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확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막상 문화재 보수가 필요한 사찰에는 예산이 제때 지원되지 않는 실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 도난에 대한 종합대책을 물을 예정이다. 불교문화재 보존 대책의 하나인 성보박물관 현황과 지원대책도 감사 대상이다. 실질적인 불교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성보박물관 건립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올 7월 출범한 '경찰청 문화재 지킴이'의 실질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권형진 기자

高僧 다시보기

균여 스님과 화엄사상

균여(均如, 923-973) 스님은 고려 초기 광종 대에 활동하였던 화엄종승(華嚴宗僧)이다.

황해도 황주에서 태어난 스님은 15세에 종형(從兄) 선균 스님을 따라 복흥사 식현 스님 밑으로 출가했으나 곧 개성 영통사로 옮겨 의순 스님에게서 수학하였다. 광종 9년(958) 왕륜사에서 실시된 승과를 주관하는 등 화엄교단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만년에는 광종이 개성 송악산 아래 창건한 귀법사의 주지로 있으면서 민중을 교화하고 불법을 널리 폈다.

이 점 때문에 스님을, 광종이 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던 권승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당시는 광종이 신라 말이래 전국적으로 발호했던 지방 호족세력을 숙청하고 과거제를 실시하는 등 왕권을 강화해 가던 시기였다. 이러한 때에 광종이 승려의 과거제인 승과를 실시하고, 자신의 원당인 귀법사 주지로 스님을 초빙하였던 사실에 주목한 결과다.



◇균여 스님의 행장을 기록한 <균여전>(목판본, 1075년 혁련정 지음).

북악-남악 갈린 화엄종단 통합 성상융회 · 성속무애 사상 주창

그렇다고 스님을 정치적 성향이 짙은 권승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스님이 참된 구법과 교화의 승려였음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스님은 신라 말에 전래된 9산 선문의 선풍이 전국적으로 진작되고 있었음에도 오로지 화엄사상만 연구하였다. 스님은 중국 화엄종의 고승인 법장 스님과 신라 의상 스님의 영향을 받아 성상융회(性相融會) 사상을 주창했으며 세간과 출세간을 구별하지 않는 성속무애(聖俗無碍) 사상을 내세웠다. 이러한 면모는 스님이 지은 총 65권의 저술에 잘 나타나 있으며, 그 가운데 〈법계원통기〉는 신라 의상 스님이 지은 〈화엄일승법계도〉를 잇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불교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종단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당시 화엄종은 후백제의 복전(福田)이 된 관혜(觀惠) 스님과 고려 태조의 복전이 된 희랑(希朗) 스님을 중심으로 지리산 해인사의 남악과 영주 부석사의 북악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었다. 스님은 북악의 법통을 계승하면서도 남악까지 아울러 종단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뿐만 아니라 화엄의 진리를 누구나 알기 쉽게 향가로 풀이해 불교의 대중화에 노력하였다. 예컨대 〈화엄경〉의 입계품(入界品)에 나오는 보현보살의 열 가지 서원인 보현십원가(普賢十願歌)에 마지막 총결무진원(總結無盡願)을 덧붙여 향가 11수를 지었다. 마을의 담장에 쓰여질 정도로 민중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였다고 한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21C 기적의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를 아십니까?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

스님! 아직도 목 때문에…



프로폴리스란?

프로폴리스란 그리스어 pro(앞), Polis(도시) = '도시를 지키다'라는 뜻으로 '꿀벌이 유해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의 집을 보호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수목에서 모집한 수액에 봉납이나 타액을 혼합하여 벌집에 도포하여 놓은 점착성이 있는 암다갈색의 천연물질'로서 강력한 살균 및 항균, 항암, 면역작용 등의 작용으로 오래전부터 민간의 약으로 쓰여오고 있으며, 최근들어 항암 및 항산화, 면역력 증강작용이 새로이 입증되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Dongnam S&B

㈜동남프로폴리스

● 대표 전화 : 02 -572 - 1126
● 고객상담실 : 02 - 572 - 1146
● Fax : 02 - 572 - 1136
http://www.dongnamsnb.co.kr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른 제품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원모집 (남 · 여 약간명)

<국 동>
여수노인복지회관 (가칭)
신규직원모집

❀ 운영법인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사회복지법인 여수분사무소 향일암
❀ 모집분야 : 사회복지사 2명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 1명
서무 1명
조리사 1명
관리인 1명
❀ 자 격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2급이상 자격증소지자, 운전1종, PC 가능
-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 : 자격증소지자, 운전1종, PC 가능
- 서 무 : 운전1종, PC 가능
- 관리인 : 전기, 소방안전 관련 자격증소지자, 운전1종
❀ 제출서류
이력서1부, 자기소개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자격증사본1부(해당자에 한함), 졸업증명서1부,
성적증명서1부, 경력증명서1부(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우편, 내방접수
❀ 접수기간 : 2001. 9. 5 - 9. 20
❀ 면 접 : 서류 심사 후 면접일자 개별 통보
❀ 기타문의 : 여수시노인복지회관
TEL : 061-685-2381(전남 여수시 학동)

박희준 식 레이키(Reiki 靈氣)를 아십니까?

3일이면 레이키요법가 (氣치료능력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키는 사랑과 빛이 담겨있는 우주의 생명 기운(에너지)입니다. 이것을 바로 끌어다가 질병도 치료하고 생활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일을 3일만에 하는 것이 박희준 식 레이키 입니다.

단 3일간의 교육으로 이런 능력자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1. 레이키 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대체의료 종사자(침구사 포함), 호스피스 봉사자, 간병봉사자
- 만성병 환자, 성인병 환자, 그 가족
- 임신, 태교, 순산을 원하는 부녀자나 그 남편
- 마음의 정화와 정신의 각성을 원하는 분
- 氣능력자로서 활동하려는 분등

2. 레이키 요법의 효과
사람은 병이 들면 전반적으로 기운과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레이키 요법은 이같은 기운과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 병이 낫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레이키 요법은 세계에서 제일 효과가 높은 리랙세이션(잠을 잘 자게 하는)법입니다.

3. 레이키를 교육받으면
- 모든 질환에 대한 요법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 외국에 있는 가족(유학을 가 있는 자녀)에게도 여기서 먼데 치료(원격치료)를 해주고 기운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사기를 받지 않으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인정증을 발행합니다. 박희준씨는 국제레이키 마스터 명단에 올라 있는 한국유일의 레이키 마스터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나라의 레이키계에서나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레이키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는 증명서가 됩니다.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레이키 마스터 박희준)
전화 : 02) 720-5682 / 팩스겸용전화 02) 720-57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 : // www.Reiki.co.kr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쪽으로 걸어서 5분. 피어선빌딩 외환은행 건물)
핸드폰 019)392-2557, 018)850-1680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늘 그리운 사람

버들강아지 잎망울 틔우고
풀잎끝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가슴에 온기를 더할때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애 있어 최상의 도반이었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를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위치안내 ◁ 1호선 영등포역 하차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입구 직진 200m정도에 오면 우측으로 파란색 간판 레스토랑(마음과마음)을 악간 지나 맞은편 좌측 골목 향림 빌딩 2층 204호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 대표전화 : 02) 679-5902

"본래면목과 無字眞經을 깨쳐야 하느니"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이야기

(46) 삼귀수행(三歸修行)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삼화취정(三花聚頂)이 되어야 하고 그 전제조건은 삼염(三厭)을 제청(除淸)하는 것이라는 스승의 설법에 혜가는 귀가 번쩍 열렸다. 무릎을 세워 한 걸음 나아가 엎드려 경의를 표했다.

"스승님이시여, 미혹한 제자는 삼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나이다. 부디 가르침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달마는 웃음 띤 얼굴로 대답했다.

"우선 염(厭)이라는 글자의 뜻부터 알아야 하느니라. 이 글자는 옛날 배달의 성인(聖人) 창힐(倉頡)이 창조한 표의문자 곧 한자의 하나인데 '염'이란 글자꼴의 한가운데에 해(日)를 놓고 그 주변을 사음(四陰)으로 감싸 만든 글자이니라. '염'에서 위로 비낀 '一'은 음이고 해(日) 밑에 놓은 달(月)도 음이며 왼편에 삐친 '丿'도 음이요, 바른쪽의 개(犬)도 음 기운을 나타내는 것이니라. 여기에서의 개는 천구(天狗)이니 해와 달을 먹어 버리느니라.

삼염은 삼화를 해치고

이른바 삼염(三厭)은 삼화(三花)를 해치는 것이므로 그것이 제거되지 않고선 수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법이다. 대개 삼염에는 세 부류가 있으니 하늘을 가로질러 나는 새는 천염(天厭)이요, 땅을 가로질러 달리는 짐승은 지염(地厭)이요, 물 속을 가로질러 헤엄치는 고기는 수염(水厭)이라고 하느니라. 수행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순양체(純陽體)를 닦아야 하므로 음기(陰氣)를 범해서는 안 되느니라. 우리가 먹는 오곡(五穀)은 땅에서 하늘로 몸을 곧고 길게 뻗으니 순양체이니라. 그러나 삼염은 변환체(變幻體)에 속하니 그것은 먹는 것조차 비참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삼화'를 올곧게 닦고 삼귀(三歸)를 바로 지켜야 비로소 진전(眞傳)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지어다."

혜가는 고개를 들어 우러러 달마 조사에게 물었다.

"어리석은 제자는 삼귀의 이치에 대해 대강은 아오나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스승님의 자세한 가르침을 원하옵니다."

달마는 게송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부처님께 귀의하려면 자비를 일으키고 늘 청정해야 하느니, 힘써 본래의 면목(面目)과 무자진경(無字眞經)을 깨쳐야 하느니라. 부귀(富貴)와 세속에 물든 풍조를 탐하지 말아야 하느니, 은혜(恩)와 사랑(愛) 같은 세속 홍진(紅塵)의 미정(美情)에 연연해서는 안 되느니라. 주색(酒色)과 재기(財氣)를 한칼로 베어 버리고 대장부답게 티끌 같은 세상을 박차고 뛰어넘을지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면 대항하지 말고 염불하며 마음을 잡을지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면 입으로 대거리하지 말고 허허 웃어 넘길지어다. 남이 나를 해칠지라도 범연하게 경의(敬意)를 표하고, 나를 질투할지라도 그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지어다. 나를 비방하더라도 좋은 말로 그를 상대하고 나를 기피하고 싫어하면, 그럴수록 그에게 존경의 뜻을 표할지어다. 사람을 만나면 좋은 말로 정성껏 가르쳐 주도록 하여라. 사람의 어질고 어리석음을 가려서 알맞게 가르쳐야 하며 기회를 보아 정까지도 베풀도록 하여라.

부귀와 세속의 풍조
결코 탐하지 말고
남이 나를 해칠지라도
범연하게 경의 표하라

고선불(古仙佛)이 동(動)과 정(靜)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항상 살펴 연구할지어다. 부처님의 행실을 배우지 않고 어찌 삶을 뛰어넘을 수 있으리. 부처, 부처 하지만 부처님은 원래 속세인연을 완전히 버리신 분이시니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나 흙으로 빚은 유상(有像) 유형(有形)의 불상은 아니니라. 형상(形像)있는 것은 곧 후천(後天)의 것으로 언젠가는 부서져 없어질 것이니, 무위(無爲)의 본체(本體)와 태허(太虛)에 부합하지 않고선 생사를 벗어날 수 없느니라.

행주좌와(行住坐臥) 곧 행하고, 서고, 앉고, 누워서 선을 닦을 때 한시도 현관을 떠나서는 안 되느니라. 관자재(觀自在)로 행심(行深)하여 반야(般若)를 이루면 법륜(法輪)이 돌게 되느니라. 정(精)은 기(氣)로 화(化)하고 기는 신(神)으로 화하나니, 그 묘의(妙意)는 말로 설명할 수 없도다. 신이 허(虛)로 돌아가고(還) 허가 무(無)로 돌아가면 성광(性光) 영통(靈通)이 이루어지리라. 진(眞) 가운데 가(假)가 있고 '가' 가운데 '진'이 있으니 진여(眞如)가 스스로 정(靜)을 찾으면 비로소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되느니라. 이것이 곧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임을 그대는 알지어다."

법에 귀의하기 위해서는

달마는 숨을 돌리면서 잠시 말을 멈췄다. 혜가는 스승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면서 머리를 조아렸다.

"스승님, 법(法)에 귀의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옵소서."

달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법에 귀의하기 위해서는 규율을 지키고 법칙을 문란케 해서는 안 되느니라. 불규를 따르고 예의를 지키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야 하느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자비를 베풀고 규율에 따라 가르쳐야 하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간(諫)할 때는 예의에 벗어나지 않고 법도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느니라.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행동하는 동안에는 품격을 세워야 하며 의관(衣冠)을 단정하게 하여야 하느니라. 한가로이 앉아 있을 때도 태산처럼 좌정하여 황정(黃庭)을 지켜야 하느니라. 신성한 불당을 깨끗하게 해야 모든 부처님이 즐거이 거둥하시느니라. 자묘오유(子卯午酉)의 사시(四時)에 향(香)을 정성껏 올려야 본성과 신명이 통하느니라. 진경(眞經)을 외우며 잡념을 없애면 신기(神氣)와 함께 있게 되느니라. 현량(賢良)을 모아 법을 설하고 제도하면 마음에 절로 지혜가 생기느니라. 도반(道伴)을 만나면 겸손과 화기(和氣)로 대하고 예의를 다하여 공경할지어다. 마음을 낮추고 기를 낮추어 스스로 아랫사람으로 자처해야 하느니라.



◇이홍기(1956~) 作 달마도(종이에 담채).

도를 말할 때 함부로 웃지 말고 다투지도 말지어다. 선천(先天)의 도리는 무궁하여 깊은 것이 있는가 하면 얕은 것도 있느니라. 교만한 마음, 거짓으로 가득 찬 마음은 모조리 없애야 하고, 간사한 마음, 탐욕스런 마음, 삿된 마음은 먼 하늘 구름 밖으로 던져버릴지어다. 인색한 마음, 각박한 마음은 깨끗하게 씻어 버리고, 질투하는 마음, 시비하는 마음은 조금도 남겨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명리(名利)의 마음, 은애(恩愛)의 마음은 티끌만치도 쌓아둬서는 안 되며, 주색(酒色)의 마음, 재기(財氣)의 마음은 모조리 뿌리부터 제거해야 하느니라.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는 데도 주저하지 말지어다. 수행을 함에 있어 인상, 아상을 없애면 천하의 제일인자가 되느니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전진하여 철석같은 마음으로 수행하여 무리 가운데서 뛰어나게 되어야 하느니.

많은 법칙을 한 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인(聖人)이 되는 심전(心傳)의 법은 분명히 밝혀 가르쳐 주리라. 심법이라고 하지만 우레를 부르고 신통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니라. 비와 바람을 불러 장수와 병졸로 삼는 술법은 더더욱 아니니라. 법이라 하는 법은 본래가 무법(無法)의 법이니 그 법은 곧 자성(自性)이니라. 공(空)이라 하는 공은 공으로 떨어지는 공이니 그 공은 진공(眞空)이니라. 단(丹)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을 죽이고 진식(眞息)의 숨고르기를 해야 하느니라. 이때 자(子)와 오(午) 곧 아랫배 하단전(下丹田)과 머릿골 정수리는 아래위로 대칭을 이루고 기의 흐름은 등골로 상승하고 몸통 앞쪽으로 하강하느니라. 이것을 일컬어 납(鉛)을 수은(汞)에 던지고 감괘(坎卦)와 이괘(離卦)가 교합하고 금목(金木)이 병합하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이리하여 삼화(三花)가 모이고 오기(五氣)가 양육되느니라. 좁쌀만한 구슬이 결성되면 범속(凡俗)을 벗어나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니, 진사리가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근심과 놀라움이 없어지느니라. 이것이 바로 진법이니 법에 귀의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지어다."

혜가는 앉은 자세를 바로하면서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스승의 이어지는 강설을 기다렸다.

"귀의승(歸依僧) 곧 승(僧)에 귀의한다는 것은 속세의 정경(情景)에 연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마음을 바로하고 뜻에 성의를 담아 수행에 임해야 하느니라. 사나이 대장부로 고뇌를 두려워하지 말지니, 세속의 때를 깨끗이 씻어 내어, 낳고 죽는 이치를 깨달아야 하리라. 도를 깨달은 사람은 참과 거짓의 길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으니, 시(是)와 비(非), 사(邪)와 정(正), 호(好)와 오(惡)를 스스로 밝힐지어다.

근기없는 사람은 불법을 받아도 마음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 도를 만나도 뜻이 한결같지 않아 허명(虛名)만 추구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익을 생각하여 돈벌이에 아귀다툼을 하고, 생활의 편안함을 생각하여 기한(飢寒)을 두려워하며, 심지어는 꾸어준 돈이 회수되지 않을까 걱정을 일삼느니라. 날마다 밤늦게까지 바삐 돌아 안정이 없으니, 늙은이나 젊은이, 그리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제정신이 아니구나. 매일 애써 일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수행을 하려 해도 되지 않고 좌선과 염불도 되지 않으니, 이런 사람은 참으로 멍청하여 꿈틀거리는 벌레나 진배없느니라. 기왕에 습(濕)한 곳을 싫어했거늘 낮은 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까닭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이더냐. 귀의승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어찌 은애에 연연하고 집과 재물을 탐하는고. 귀의승을 논(論)하는 처지라면 티끌 속에 있더라도 마음 티끌 속에는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며, 속세에 살더라도 세속에 때묻지 않아야 하느니라. 온종일 바쁘더라도 틈을 내고,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고요(靜)를 구하면 몸은 비록 속세에 있을지라도 마음은 하늘 가운데 있으니, 조금도 속정(俗情)이 없으리라. 승과 속의 두 갈래 길은 경계가 분명히 있으니 청(淸)과 탁(濁)을 구분하지 않고 어찌 공(功)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으리. 그대에게 특별히 당부하노니 속히 밝게 깨달아 회광반조(廻光返照)하여 스스로에게 물어볼지어다. 어떻게 하면 고해(苦海)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찾아볼지어다.

스승의 이어지는 강설

내공(內功)으로 논(論)하면 승(僧)이란 곧 진인(眞人)을 이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애써 참선하여 깨달음을 구할지어다. 그리하면 부처님의 묘음(妙音)을 반드시 얻어서 알게 될 것이니라. 호흡을 운용하여 진식(眞息)을 가다듬고 고르면 현(玄)에서 나와 빈(牝)으로 들어가리라. 감로수(甘露水)가 온몸에 감돌고 단약(丹藥)이 움직여 삼관(三關)을 통과하고 오원(五元)에 이르리라. 황파(黃婆)의 중매로 영아(嬰兒)와 타녀(它女)가 혼인을 하게 되리니, 그 면밀한 묘(妙)는 말로 다할 수 없고 그 낙(樂)의 정경은 끝이 없으리라. 한 톨의 좁쌀알이 구곡주(九曲珠)를 맺으니 빛줄기가 머리 위로 등등하게 솟아오르는구나. 삼귀수행(三歸修行)하려는 사람은 이것을 표준으로 삼아 반드시 받들어 지킬지어다. 진정으로 삼보(三寶)를 한 묶음으로 닦아서 '하나(一)'의 금단(金丹)을 이루도록 할지어다."

달마의 진법 강설은 하늘과 땅에 가득히 퍼져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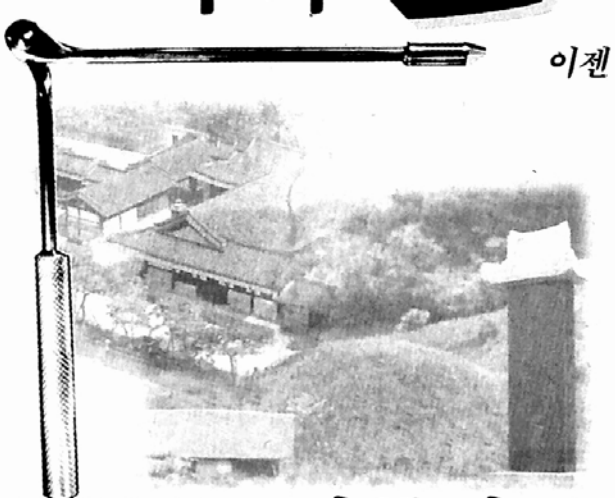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되어 주역·풍수지리·사주명리·관상학과 유·불·선의 심오한 사상을 알기 쉽게 실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배포하는 국내 유일의 동양학 전문지로 99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훌륭한 잡지입니다.

2001년 1월호에는 「풍수지리란 무엇인가」를,
2월호에는 주역을 활용한 「역점64」를,
3월호에는 「철판신수」와 「법륜공」을,
4월호에는 「불교란 무엇인가」를,
5월호에는 「윤달의 산소이장법」을,
6월호에는 「조선의 무력」을,
7월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대하여,
8월에는 「중국민간에 전해지는 회춘비결」을,
9월호에는 「한가위 차례 지내기」을 특집으로 실었습니다.

누가 풍수지리를,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당신이 관룡자로 직접 명당을 찾으세요.



관룡자란?
심룡척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이미 2천여년 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잡거나 황제의 묘터를 잡을 때,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은밀히 사용되며 명나라 말까지 전수되어 오던 명당탐지기이다. 명나라이후 그 비전이 단절되어 계승되지 않았으나, 「월간역학」을 발행하는 한국의 진산실업(주)에서 장기간의 연구 끝에 복원에 성공하여 77만원에 공급하고 있다.

어떻게 사용하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등 건물의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감정할 때, 또는 산소나 납골당, 가족 납골당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관룡자를 사용하면 명당에서만 발산되는 특별한 지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혈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방향(좌향)까지 잡을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지관, 교수, 사업가, 전문 경영인, 법률가, 종교인 등 각계의 저명인사 200여명이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명당이란?
명당의 현대적 개념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지구는 남극과 북극이 자장(magnetic field)을 띤 거대한 자석으로 23.5° 기울어진 상태로 끊임없이 자전과 공전을 하며 음(-)·양(+)의 전하(electric charge)를 발생한다. 이 + · -의 전하가 균형을 이루어 음양이 조화된 땅에서는 특별한 지기가 발생하는데, 이 지기가 생기(生氣)이며, 이곳이 바로 명당이다. -월간역학 1월호에서-

관룡자의 원리
관룡자는 -전하나 +전하중 한 기운만 작용하는 곳에서는 평형을 유지하지만 음양이 고르게 조화를 이룬 곳(명당 혈)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지기에 의해 옆으로 회전하도록 합금된 센서를 장착하고있다. 또한 관룡자는 수맥에서는 작동치 않고 반드시 명당 혈에서만 작동하므로 믿을 수 있다. 오랜동안 번성해온 사찰의 대웅전, 성당, 명당으로 알려진 번성한 가문의 유명한 묘지에서는 관룡자가 틀림없이 작동되는 현상이 이것을 입증한다.

구입방법
한빛은행 064-301374-13-001 진산실업(주)로 77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자세한 사용 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고 빠르게 보내드립니다. 구입자께는 「월간역학」1년간 무료 기증. (신용카드 24개월 분할 가능)

● 월간역학 1년 정기 구독료는 9만원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7만5천원으로 할인+수맥탐지봉 1세트 무료 증정.
● 월간역학 지난호(창간호~2001년 8월호)를 88만원에 판매하며, 단, '99년 1월호~2000년 12월호 까지 과월호 24권을 선착순 220분에 한하여 10만원에 드립니다.

월간역학 (02)2264-0258

운세정보 800-8112. 주역점, 2001년 토정비결, 궁합, 꿈풀이 등 다양하고 정확한 내용. (전국 시내전화료 무료)
서울시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청옥빌아트 101호

명당 탐지기 - 관룡자

9월 15일(土) 충남 예산의 명당 풍수견학, 회비 2만원(교통편, 중식포함)

종립학교를 가다

(13) 홍제중학교

"안녕하세요" 인사 대신 "효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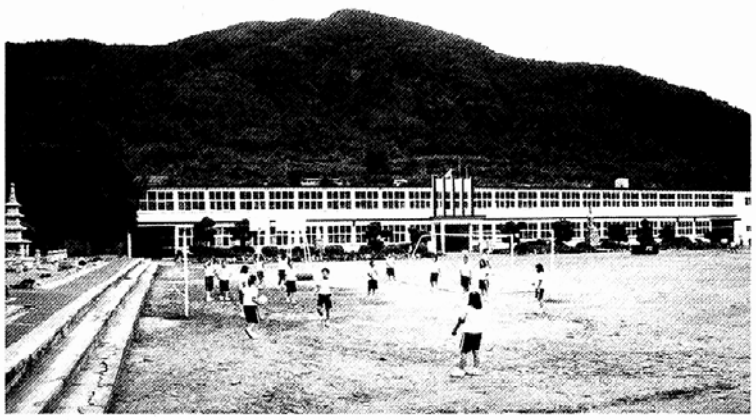
표충사 후원 1948년 개교 수학여행 대신 향토순례

캠프·백일장 등 효 생활화 10년간 퇴학생 전혀없어

사명대사의 정신을 계승, 선양하기 위해 실시되는 충효교육은 홍제중학교만의 특색. 모든 예절의 기본인 인사를 '안녕하세요' 대신 '효도합시다' 답례 또한 '효자됩시다'로 하고 있고 , 매 학기말 시험이 끝나면 표충사 설법전에서 효도캠프를 실시하는 등 효 실천을 생활화하고 있다. 더불어 사명대사의 제향(祭享)을 올리는 춘추 향사에 참석,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개최해 충효정신을 되새기고 매주 수요일에는 부모님, 스승, 친구들에게 편지쓰기를 실시해 보은의 참 의미를 심어주고 있다.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지혜와 자비라는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우선 10년전부터 아예 반명을 팔정도의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진반으로 바꾸었다. 선생님들은 신입생들에게 가장 먼저 반명을 설명하며 팔정도의 의미를 가르친다. 이는 3년동안 반 이름을 부르면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훈습이 되어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더불어 매월 2,4주 목요일에는 전교생이 참석하는 선정조회를 개최, 부처님의 자비심을 갖도록 하는 발원문을 작성하여 봉독하고 있으며 '꿈 찾는 나의 생활'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홍제중학교는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소풍과 수학여행을 없앴다. 대신 '나를 찾아서, 선조를 찾아서'를 주제로 향토순례대행진을 떠난다. 호남권, 동해 및 강원권, 중부권으로 나누어 매년 한 권역을 돌아보고 선조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향토의식과 향토애를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소풍을 대신해 환경보존 및 등반대회를 갖는다.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기르며 집단 과정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 성찰과 자아발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최근 10년간 자퇴나 퇴학당한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홍제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성교육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를 대변해 주고 있다.



◇홍제중학교는 독특한 충효 및 인성교육으로 학생들의 심성을 밝히고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화와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시골에 위치한 학교특성상 주위에 학원이나 기타 교습소는 전혀 없다. 그래서 홍제중학교는 개별화 교육과 정보화 교육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개별화 교육은 특기적성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특별활동 동아리를 활용해 담임선생님들이 매일 방과 후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흥미에 맞게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개인의 소질 및 능력을 개발하고 더불어 기초학력까지 증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교육 결과 과학경시대회, 미술대회 등에서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학교가 모든 지역 교육을 도맡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학부모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고가의 컴퓨터를 구입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 지역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지난해 동국대 전자계산원의 후원으로 컴퓨터 100대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또한 초고속망 설치 등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학교 홈페이지(http://211.34.223.245/)는 물론 다수 선생님들이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학생들에게 교육정보를 주는 등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인재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한때는 재학생이 1천명이 넘을 정도로 지역에서는 가장 큰 학교였던 홍제중학교. 지금은 이농현상으로 많은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6학급에 전교생 151명의 조그마한 학교로 변했다. 하지만 이사장 오녹원 스님과 전교직원이 합심하여 교육에 매진한 결과 작지만 실력있는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찰에서 만나는 불교미술'

정통부 청소년 권장사이트 선정



현대불교 사이트인 부다피아의 '사찰에서 만나는 불교미술'(www.buddhapia.com/buddhapia/kor/hanbul/cuture/art/)이 1일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선정한 '9월의 청소년 권장 사이트'에 선정됐다.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여행, 문화,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된 사이트 20개를 매달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뽑힌 부다피아 '사찰…'에는 사찰에 있는 탑, 불상, 탱화 등 불교미술에 관한 풍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또 최우수 사이트에는 현직은행원이 제공하는 세계화폐 갤러리인 '세계 화폐 박물관'이, 우수사이트에는 미국여행과 실전정보를 제공하는 '유학하나, 여행둘'이 각각 선정됐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108참회·모험활동 권장 파라미타 국제캠프 평가

파라미타 청소년협회(회장 지홍스님)는 1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지난 7월 25일부터 3박4일간 열렸던 '제5회 파라미타 국제캠프 평가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욱태 교법사(해동중학교)는 "포살법회 및 108배 정진 시간때 지도 교사들도 함께 동참해 학생들의 호응도를 높였던 것은 내년에도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병두 파라미타 사무국장은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모험활동, 장기자랑, 108배 참회정진, 탁본, 만다라 티셔츠 만들기, 불꽃 축제 등을 흥미 있었던 프로그램으로 꼽았다"고 발표했다. 또 이 사무국장은 "학생들이 화장실을 비롯한 제반 시설 미비와 행사진행 미숙 등을 아쉬웠던 점으로 지적해 내년 행사때에는 이 점을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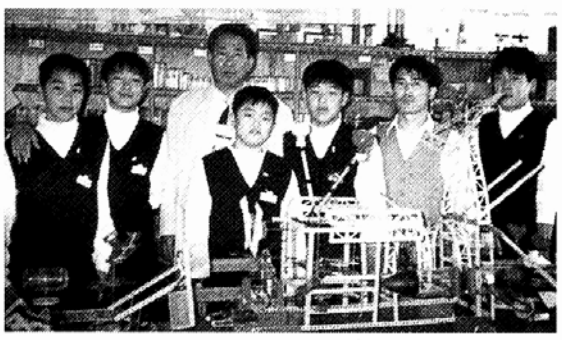
"효는 백행의 근본이죠"

홍제중 배종우 교장



지·덕·체를 고루 갖춘 조화로운 인간을 육성하고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구하는 학생중심의 교육이 실현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배종우 홍제중학교 교장은, 사명대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충효교육이 홍제의 자랑이라고 말한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는 말처럼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성을 심어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효도합시다' 선창 인사제도와 효도캠프 등 충효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인성교육이 학생들의 심성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특히 정보의 홍수속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배 교장은 학생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컴퓨터 관련 및 인터넷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시골학교'라는 지역적 한계로 도시에 비해 다소 정보화 마인드가 부족하지만 학생들에게 무료로 컴퓨터를 나누어 주는 등 정보화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과학경진대회 4연 연속 최우수상

▣홍제중 자랑거리▣

홍제중학교의 과학교육은 다른 학교와 다르다. 일반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고려한 토의식 수업,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 등 다양하게 진행한다. 또 방과 후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과학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개별지도를 하고 있다. 그 결과 과학적 소질을 개발하고 미래 과학기술 인력을 육성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청소년 과학 경진대회 시 대회에서 4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했고, 올해도 도 대회에 출전 4개 분야에 입상하는 등 과학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창원의 초등학생들이 지난 여름방학동안 홍제중학교에서 과학 교육을 받고 돌아가는 등 과학 명문 사학이라는 새로운 명성을 얻고 있다.

교법사실에서 하용식교법사

"더불어 살아야… 문제아 더 관심"



"요즘 학생들은 자기 밖에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경향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충효보은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교학수업 시작에 앞서 '내탓이요, 내덕이요'를 선창하게 합니다."

78년 부임해 줄곧 학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하용식 교법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교학시간을 통해 내게 소중한 것이라면 남에게도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어린시절 가정형편으로 어렵게 공부를 마친 하 교법사는 공부 잘 하는 학생보다 가정형편이 어렵고, 소위 문제아로 불리우는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 상담교사, 특수교사, 환경교사 자격증을 따는 등 노력을 한 결과 지금은 학생들과 격식 없는 친구처럼 지낸다.

부처님 법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스스럼없이 말하는 하 교법사는 학생 및 교직원 교화뿐만 아니라 지역 내 불교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며 지역불교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⑮



• 스트레칭 •

단전 氣 끌어모아 발목·정수서 느끼게

1.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서, 양손을 단전에 모은다.

2. 단전을 수축한 상태에서 양무릎을 구부리고, 오른발의 무릎을 펴서 앞으로 내밀어 발뒤꿈치부터 서서히 땅에 닿게 한다.

3. '이' 소리를 내면서 몸을 앞으로 움직여 몸의 중심을 이동한다. 이때 단전의 기를 밀어내면서 발목과 정수에 기가 같이 통하는 것을 느낀다.

4. 다시 몸의 중심을 천천히 뒤로 이동하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다시 뒤로 당겨서 왼발 옆으로 내린다.

5. 다시 양손을 단전에 모으고, 처음의 상태에서 '뭐' 소리를 내면서 반대편 다리로 반복한다.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뚝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부처는 내가 있는 자리에 있어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기 이전에, 부처님께서도 진리를 당부하셨고, 진리를 깨우치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하고 알아둬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신 누가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를요. 대신 밥 먹어 주고, 똥 누어주고 잠 자주고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다녀도 지구라는 주머니가, 우리는 미생물도 버리지 않고 한군데에서 복닥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짐작되시죠. 그렇게 미생물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한 주머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로 개개인들이 모두 탄생되어서 생산쳐라고 하는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샛별을 받고 정자 난자를 빌어서 삼합이 한데 합쳐져 인생이 태어나는 겁니다. 지금 태어나는 까닭은 생명의 근본이 바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주머니에 사는 생명

그래서 몸을 가만히 보세요. 지구의 공기주머니나 내 모습의 공기주머니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다를 리가 없다는 것을요. 많은 생명체들 중에 하나 단 바깥으로 뛰어나와도 죽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 지구에서도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죠. 죽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 한 주머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공체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공체라고 하는 것은, 공체라는 것은 우주가 달리 있고 지구가 달리 있고 우리 사는 게 달리 있고 이래서가 아닙니다. 더불어 다 같이 입니다. 더불어 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마음 도리의 씀씀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성금을 가져 왔다 합시다. 그런데 그 돈을 저기다 쓸려고 했는데 내가 마음대로 다른 데다 썼습니다. 이건 자유스럽게 쓸 수 있으면서도 근본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라고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생각한다면 그건 내 탓이죠.

하나에서 열, 백까지 전부 하나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말도 없이, 사람도 없는데 뭘 그냥 갖다 놨다고 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갖다 놓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얼마 넣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죠.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불성이 알고 우주간 법계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엉뚱하게 남을 고달프게 하면서 불사한다고 하는 것도 위법이죠. 진짜 여러분이 마음을 내어서, 단돈 얼마라도 자기가 생각을 해서 보시할 때에 비로소 그 자체가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공체로서 사는데 우리가 알고 보면 우주와 더불어 공생이면서 공심입니다. 그러고 공체입니다. 공용을 하고 공식하고 살고 있습니다. 공식은 만법을 들이고 내는데 하나로 돌아가게 한다.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데 그 하나는 어디 갔는고' 하고 옛날에 물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가 어디 있는가를, 정말 만법을 들이고 내는, 법을 굴리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에 달려 있겠죠. 잘못된 건 잘못되는 것대로 참회해 거기다 놔 버리고 잘 되는 건 감사하게 놓고 굴려야 이것이 올바로 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가서는 반드시 네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할 수 있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전체가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습니다. 둘이 아닌 이 도리를 여러분께서 잘 아신다면 정말 시쳇말로 '왔다'입니다. 성불만이 아니라 견성까지도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견성이다 성불이다 하는 것도 이름이지 그걸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 그 하나는 어디로 갔는고
>
> 둘이 아닌 도리로 마음 쓸때
> 견성성불도 포함돼 돌아가



그림 · 최주현

연등 부처님께서 '너는 이 다음에 석가가 되거라' 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을 하신 분도 그 분이고 그 말을 듣는 분도 그 분이에요. 화했으니까. 그러니 이렇게 간단히 묶는다면 계율이 250개건 300개건 간에 계율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일부러 지키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낱낱이 계율이 지켜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집집마다 윗 대의 분들은 돌아가시고 또 아래 분들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영가들이 많습니다. 산 분이 50%라면 영령들이 50%예요. 모르는 분들은 자기 고달픔에 힘들고, 영령들이 몰라서 고달프니까 힘들며, 자기가 모르는 탓으로 영령들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죽으면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되니까요. 근데 상대방이 공부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일임하고 놓는다면 그대로 그냥 공용이 되죠. 그러니 영령들도 그렇고 조상들도 그렇고, 조상이 영령이죠. 그 영령들께서도 그렇고 즉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 살려면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인과성 영계성 유전성 업보성 문제 등등 여러분께서 꼭 받고야 마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오신통이다 하면, 오신통을 벗어나서 누진으로 가게 되면 누진이 바로 여러분의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다 이런 소립니다. 이걸 잘 계산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이 지금 이 세상에 사시면서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리고 오늘 점안식을 했는데 형식으로 점안식하고 이런다면은 말도 안되죠. 세상을 딱 쥐어서 그것을, 여러분은 보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점안식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반면에 우리가 조상들도 한꺼번에 거기 넣으면 한 도량에 공심이 되고 공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령들도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잔잔해지는 것이죠.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잔잔해지고 하다 못해 예를 들어 저기서 불상사가 나서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알았어' 하든가 아니면 대답을 안 하든가 하죠. 그럼 그냥 가죠. 근데 그게 그 이튿날이나 몇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됐다고 전화가 와요. 그 도리를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높은 데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얕은 데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죠. 법당에 이렇게 오면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부처님의 법이 내 법이고, 부처님의 생활, 모든 게 나하고 동일하니깐 예배를 올릴 때 진짜로 한군데에다가 올리되, 한 군데에다 둥글려서 올리게 되면 전체의 이름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전체도 포함되고 또 우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예배를 올리고, 삼배를 올리든지 바쁘면 일배를 올리든지 하고 자기한테다가 또 다시금 일임해서 놓고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부처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두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이 살아 계시지 않으면 부처님이 어떻게 살아 계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부처님 마음이 내마음

말만 이렇게 하고 그 말이 헛수고가 된다면 이건 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진짜로 하는 게 아닌 그냥 모습만 보고 한다면 안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렇게 법당에 앉아 계셔도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수없이 뛰어도 튄 사이 없이 뛰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함이 없이 하시구요. 여러분한테 제가 종종 말을 했죠. 함이 없이 하시는 거다. 우리 모두가 공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식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 노릇하고, 얘 아무개야 하고 부모님이 부르면 또 자식 노릇하지 않느냐고요. 근데 어떤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떤 이름을 들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들으셔서 진정코 우리가 그 이치를 알아야 모두 고리가 풀립니다.

그러니깐 삭발하고 출가를 하지만 머리를 깎는 것도 방편입니다. 옷 입는 것도 방편이구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이 볼 때 따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공부를 한 분은 옷이 없든 있든, 여자든 남자든 돌이 아닙니다. 찰나찰나 바뀌기 때문입니다. 함이 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왜 불사를 한다고 하면서 돈이 없어서 쩔쩔 매고 그 애를 쓰고 그러죠. 권선문을 만들어 가지고 모두 하죠. 근데 그것이 신도들한테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 건지 몰라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다 그런가 싶어요. 그러니깐 있는 사람은 있어서 내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 내고, 일년이 걸리든 백년 걸리든 천년이 걸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걸 짓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런 것도 아닌데요 뭐. 공부를 못한다 이런 것도 아니구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급해서 저거하면 담박해야 되는 그런 이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 생각이라면 느리고 빠르고가 없구나 하는 거요. 사람이 살 때 안 된다, 된다 하는 이유가 붙지 않는구나. 이 뜻을 아십니까? 어렴풋이라도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만 알고 자꾸 해 가신다면 정말 성불 아닌 성불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도 함이 없이 살고 있다. 삶이 없이 살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살았다고 할 이유가 없죠. 내가 없는데 뭐가 터질 게 있고, 내가 없는데 뭐가 붙을 게 있고, 내가 없는데 뭐가 잘못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만 알아서 이 세상을 바로 세우고 나가실 수 있다면, 얼어죽을 일이 생긴다해도 뜨뜻하게 해 줄 것이고 또 더워서 죽는다고 하면 시원하게 해 줄 것이고,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천을 해 보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 보세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공덕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 것도 모르는 저 보살님 (어느 보살님을 가르키시며), 지금도 울고 계시지만 병원에 갔다 오시더니 암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것이 생각에 달려 있거든요. 암이다 하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암이라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시죠. 암뿐이 아니죠. 근데 그것이 없던 게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그게 업보로 자기가 그만한 걸 받게 돼 있으니깐 받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피장파장으로 무효를 시키느냐. 이게 놓지 않으면 안되죠. 그거를 아시고 병원을 그만 두시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냥 살고 계시네요. 근데 이것이 편안하고 좋지 않아요?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나 고생 안 하고 주변 사람들 고생 안 시키고 또 살아나가는데 돈이 없으면 또 돈 고생 안 하게 해 줄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모두가 꼬한 존재

이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부처님 법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도 법당으로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 모습이 볼품 없는데 뭘 너를 보고 저렇게 하겠느냐, 그러고는 무심코 혼잣말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자기를 너무 이렇게 해도 안되지만 때로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요새 다리를 또 좀 삐어서 잘 걷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이런 생각이 부쩍 드는 거예요. 네가 사는 게 있니? 네가 사는 게 있고 네가 하는 게 있느냐는 얘기죠. 네가 사는 게 있고 네가 하는 게 있고 네가 먹는 게 있고 네가 한 가지라도 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껄껄 웃고 그냥 들어 왔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우주의 모든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보이지, 내가 보고 듣고 하지 않아도 보고 듣는다는 거, 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그냥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거, 사람이 과학이다 이러지만 그건 물질과학이기 때문에 진짜 과학이 못 됩니다. 이건 정신과 물질과 둘이 아니게 돌아가게끔 벌써 이 머리에도 그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둘이 아니게 같이 붙어서 돌아가느니라. 근데 사람이 모두 자기가 살았다, 자기가 했다, 자기가 망했다, 자기가 흥했다 이렇게 가니까 문제가 커지죠. 제가 말하는 게 말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관하는 거, 내가 예전에 그랬죠. 종 문서를 없애려고 종문서를 맡기는데 맡겨도 그냥 털썩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못 믿어서 줬다 뺐었다 줬다 뺐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깐 종문서가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 말을 생략해서 우리는 모두가 공생이다. 우리는 모두가 공심이다. 또 공체다. 공용을 하고 산다. 공식이다. 이 공식은 먹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 해 나가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들이고 내는 거를 말입니다. 그러니 그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만불이 일불이요, 일불이 만불이라, 만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불이 따로 있지 않고 말하자면 일불도 공해서 일불이라고

☞ 20면으로 계속

가볍든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내'가 없고 '함이 없이' 해야 공덕

☞ 19면에서 계속

할 수도 없죠. 하지만 일불로 돌아간다는 것만 알아도 그거를 빨리 수습할 수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정에 이익하고 화목하고, 공부를 하면 저절로 화목해지고 또 자식들도 나가서 안 들어오거나 이래도 다 화목하게 화합하게 되고 또 나가서 안 들어오지 않고 자꾸자꾸 바뀐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고 그렇게 하신다면 진짜 그렇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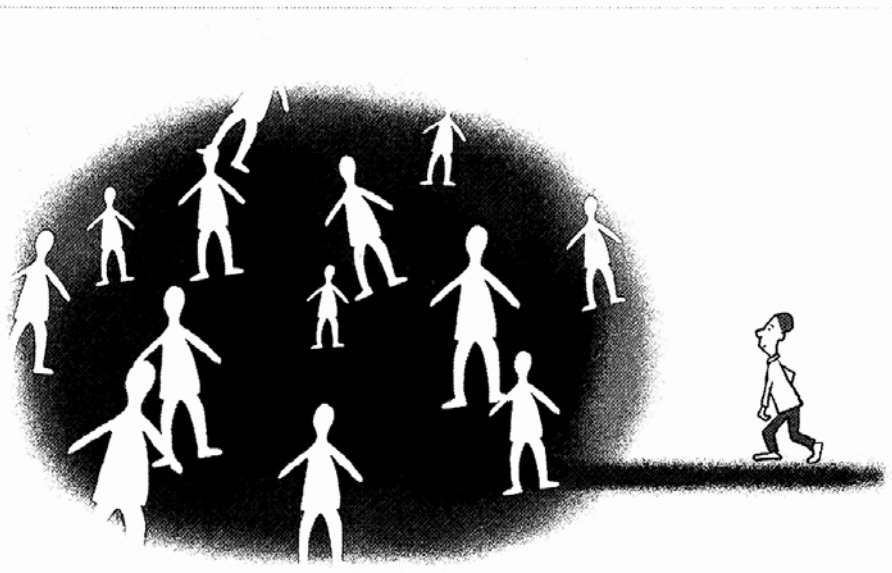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믿어야 종문서 없어져

그래서 옛날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의 모습을 믿지 말고, 부처님 모습을 믿지 말고, 자신의 모습을 화두로 삼으라고요. 왜들 자기 아닌 자기를 믿으라는데 왜 못 믿는 거죠. 이상해요. 왜 자기 주인공이다 하고 불성이다 하고 자불이다 하고 그 이름은 많지만 자기 주인공을 자기가 믿으라는데, 대체적으로 주인공이다 하면 요즘 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깐 자기 주인공이 자기 보디가드다. 너를 항상 떼 놓지 않고 따라 다니면서 네 노릇을 한다. 그게 진짜 너다. 그래서 예전에 모습은 배로 비유를 했고, 그 모습 속에 있는 생명들은 중생으로 비유했고, 또 주인공은 선장으로 비유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으니 적절하게 얼마나 비유를 잘 해 드렸습니까? 그런데도 이 날까지 그거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는 분이 앉았다가 그냥 내려오거든요.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있는데 마음이 그 때 어떻습디까 하니깐, 내가 없으니 그런걸 모른다고 하더랍니다. 흔들리는 게 어디 있으며 무서운 게 어디 있느냐 이거죠, 내가 없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해 드렸으니깐 간단하게, 이 세상만사가 다 그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배우면서 그 속에 들은 거를 생활해 가면서 자꾸 배우세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밥을 굶는데 뭐 그 까짓 걸 믿으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말입니다. 내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밥을 굶는 놈도 그 놈이고 필요 없다 하는 놈도 그 놈이거든. 그러니 그런 소릴 해 봤자죠 그거. 내가 부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런다면 문제가 다르죠.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은 UN에서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싸움을 그치고, 싸우지 말고 부드럽게 나누어 먹을 수 있었으면 하고 무척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 원리가, 공생이다 공심, 공체라는 이 도리를 모르게 되면요, 아예 사람들이 그 뜻을 도무지 생각을 못하거든요. 착해질 수 있는 생활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그거를 단 몇 마디로 종결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우리 모두 한 주머니에서살고 있지 않어? 그 다음에 네 몸뚱이에서도 한 주머니에서 살고 있지 않어? 그러니 이 물 한 컵을 먹어도 네가 먹는 게 아니잖어. 더불어 같이 먹고 있지. 그렇게 하면서 공식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해가 가죠. 그게 없는 말이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이 반드시 변하지 않는 금이 되실 겁니다. 허허허.

▲질문자1: 스님, 이렇게 저희 중부경남지원을 위해서 여기까지 와 주신 것 정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중부경남지원 신도 윤현숙입니다.

▲스님: 예.

▲질문자1: 스님 저 한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른 지원에는 부처님 한 분만 모시는데 저희 지원에서는 어떻게 해서 부처님 십대 제자 중에서 아난 존자와 가섭 존자 두 분을 좌우 보처로 모시게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苦 없애려면 다시 놔야 없어져
불상 1만기라도 하나와 같아

▲스님: 참 잘 물으셨습니다. 근데 어디나 다 똑같은 거는 없습니다. 다른 지원에는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단 부처님 한 분만 계시니까 그거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섭 존자하고 아난 존자 두 분을 모신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이지만 내 생각이 바로 맞았다면 아마 법당도 짓고 다 지을 겁니다.

▲질문자1: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자기모습을 화두 삼아

▲스님: 한 분은 생각하고 한 분은 쓰고 그랬던 분들이니까 이게 한 분이, 생각하는 게 법이거든요, 공법. 그러고 쓰는 데 공심으로서 행해나가니까 두 분이 딱 옆에서 그렇게 하셔야죠. 부처님은 부처님 아닌 것이 부처님이에요.

▲질문자1: 예.

▲스님: 부처님이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 아닌 게 부처다 이런 말입니다.

▲질문자1: 감사합니다. 근데 한가지 더 질문 있습니다. 보통 해수 관음보살님은 바닷가에 모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 중부 경남지원에 저렇게 해수관음보살 상을 모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스님: 물이나 들이나 산이나 다 평등해요. 근데 우리가 산에 이렇게 집을 짓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돌봐주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응신이 돼서 여러분이 오시게 되면 돌보시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음보살도 되고, 지장보살도 되고 뭐 어느 거 아니 되는 게 없는데 이름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극한 정성으로 언제나 나하고 둘이 아니지 하는 거, 언제나 친근한 마음. 여러분의 모습이 큰일이 생겨서 깡충깡충 뛸 때 친근하면은 저 보살의 모습은 거기 계셔도 다 해결을 해 놓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친근한 그 보살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공부도 완전히 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참 괴로우실 거니까 이 모습이 없으면 안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습을 만개를 해 놨어도 하나다 이겁니다. 그러나 만 개를 해 놓아도 만개를 배우는 사람은 만개가 필요할 거고 만개를 하나로 배우는 사람은 하나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여러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차원대로 공부해 나가면, 친근하게 하시면 아마 올 때마다 말도 주고받을 겁요.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갈 때 나무 뿌리가 간당간당해서 뿌리가 땅에 닿질 않고 간당간당한 걸 보면은 "여기 흙 좀 덮어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깐 말 안 하는 게 없다니까요. "흙 좀 덮어 주세요." 할 때 그게 내가 아닌 내 마음이라면 그걸 덮어줄 수 있지만 나라고 하고 내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그게 뭐 말라빠져 죽은 거냐고 할겁니다. 개미 하나를 봐도 뭐 말라빠져 죽은 거냐고 그럴 겁니다.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갈 뿐이죠. 그러나 보살들은 그걸 봤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들어서 옮겨 주고 갑니다. 남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그것도 응신의 재주이니까요. 여러분 잘 물으셔서 잘 아시니까 그러고 또 저기 영탑 해 놓은 거 말입니다.

전에는 스님네들이 돌아가시면 부도탑을 해 놨습니다. 근데 왜 요즘은 스님네들이 돌아가셔도 그렇게 안하고 그냥 화장을 하거나 또 일반적으로 산소에 묻느냐 이런걸 생각을 한 것이 미국에 가고 일본에 가서 보니까, 그거를 해 놨는데 그게 3000엔을 주고 했다면은 또 몇 달 안가면 3000엔을 또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거기다 모실 수가 없구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안에서도 냄새나고 바깥에서도 냄새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모실 수도 없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땅에다가 그냥 탑을 해 놓고, 땅을 마련해 가지고 그냥 아예 너희 탑을 만들어라. 조상 탑을 만들어라 이런 거죠. 조상 탑을 만들어 놓으면 그 영혼들이 자식들을 따르면서 이렇게, 스님네들을 따르면서 공부를 해서 훨훨 털고 나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재생하는 데도 쉽게 할 테고 또 나가서는 아주 못하는 사람은 좀 더딜 거고, 더뎌도 하는 건 하는 거 아닙니까? 뜻으로는 그렇게 해 놨는데 그거 하는걸 보고선 다른 데서 모두 이거를, 똑같게는 안 해도 그거 뭐 납골당, 납골당을 아주 보기 좋게 잘 한 대요. 근데 그건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나누며 살라

그런데 위패를 해서 모시는 거 아예 나는 질색해요. 재사를 지내고 나서 태우고 다음에 또 청해서 하시라고 그러죠,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부처님 법을 말하지 않고 저런 말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함이 없이 하는 도리와 포함해서 돌아가는 도리와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사는 이 도리가 이렇다는 걸 얘기해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실천을 해서 열심히 그렇게 관하세요. 그래서 법당에 들어가도 부처님 형상이 내 모습과 둘이 아니니까 항상 거기다가 다 쏟아 놓고, 예배를 올리되 다 하고 나서는 내가 다시금 그 자리에다 놓고 나오는 거죠. 그래야 여길 가도 자기 부처는 여기 계시는 거고, 저길 가도 부처님은 저기 계시는 것이고, 변소에 가도 부처님은 변소에 계시니 아니 계시는 데가 없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잘 알아서 행복하게 사시고, 자녀들에게도 될 수 있으면 그 관하는 도리를 일러 주세요. 일러 줄 때는 안 듣고 안 하는 것 같아도 정히 괴로우면, 살다보면 괴로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들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관하게 될 겁니다. 열심히 하셔서 자식들도 밝아지고 가정에서도 불화가 없이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2000년 4월 30일 중부경남지원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 · 가 · 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정강대 진 합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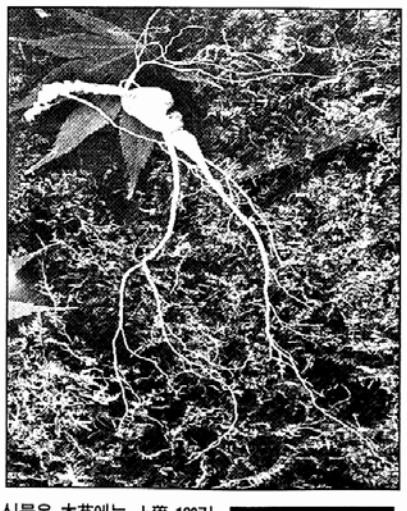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元 · 氣 · 回 · 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흩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규격 50.000원 / 구인 · 구직 규격 4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경북 경주 백운암
054)748-3530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2)992-7064
993-3065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스님 환영
032)435-047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포교당 운영하실 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011)953-1420

사람구함
뜻이 바르고 신심이 있는 30~50세의 여성 불자나 비구니스님으로서 외국 참선 수도원에서 간단한 소임을 맡아보며 禪 수행을 해가며 살고 싶은 분을 구함
011)898-1015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구운마늘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39,000
환 (250g)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원조 농산 (어성초 · 삼백초)
덕유산 해발 800m에서 재배한 신비초! (순수한 자연산)
어성초 · 삼백초 동우회원 모집 「어성초 생즙 출시」
❖효능 : 청혈작용, 독소제거, 면역력증가, 뇌졸증예방, 중풍 · 치매예방, 변비, 다이어트, 알레르기 체질개선, 당뇨, 혈압 등
서울지사 02)508-0867, 957-8342
011)479-0633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2)992-7064
993-30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잘할 수 있는 사람 연락 주세요
▷ 경북 구미
054)452-0845
054)458-6013
011)539-0845

조그만 암자에서 기도 생활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북 영주
011)561-6644

삼명 수려한
좋은 도량 입니다
참선기도 수양공부 하실 분 모십니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청 강 사
055)932-5706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게 합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관음사
02)2234-3310

지붕 개 · 보수
귀의 삼보하옵고
전국 각 사찰, 암자, 토굴, 요사채 비새고 허물어 진 곳 지붕개량 및 보수해 드립니다.
054)833-0677
011)9307-0609
지원 합장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조석예불만 할 수 있는
부전자리 구합니다
▷ 경인지역 원함
017)515-7527

공양주 (보살,처사) 가족모심
▷위치 : 서울 강북구
주택제공
식구 단촐한 가족 원함
02)902-7337
02)907-1616

조용한 산사암자에서 기도 생활하실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40~50대
033)661-5878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큰스님 시봉, 화주 보살겸 기타 업무
053)615-1133

제주도 조그만 암자에서 기도 생활 하실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17)692-0956
064)782-2946

연꽃그림에 부처님 말씀담아 드립니다
• 한지에 수묵담채화
• 크기 : 소, 중, 대, 특대
• 종류 : 미표구, 족자, 표구액자
• 가액 : 이주 저렴한 가격
각종 보시용, 도반 선물용, 포교용
※ 사찰행사 시연전시 접수중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홍삼액 제조기
저렴한 가격으로
홍삼액을
드실 수 있습니다
▶ 판매처 : 백운파낙스
공장 053)762-2211

효도상품 - 부모님께 건강을 찾아드리세요!
本목 酢초 수액원기시트 의약품 외 용
체내에 독소 배출 몸안에 독소는 만병에 근원

특히 류머티스, 관절염, 목, 어깨결림, 허리, 무릎통증, 교통사고 후유증, 장기간 익몸 목용하시거나 손발이 차거나 저리거나 시리고 쑤시는 분, 산후조리 및 자고 나면 손발이 붓는 분
◇중 풍 : 마비가 온 손발의 부기가 빠집니다
굳어진 근육이 풀리며 몸전체가 움직임 가벼워 집니다
삼보기업
TEL : 02)2279-2715 H·P : 011)397-2715

달마도를 무료로 드립니다.

삼보에 귀의하옵고,
소승이 1000일 기도를 하면서 10가지 발원을 세우고 달마대사도를 하루에 10점씩 그려 청정한 마음으로 불보살전에 삼배올리며 원만히 회향하였습니다.
이생에서 맺은 아름다운 인연이 다음생까지 이어지길 바라며 달마도를 청하시는 분은 우표(170원) 한장을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내시면 소승이 기도중 정성껏 그린 달마도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보내실곳 우 618-230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134의 1번지 수도암 정암 스님
전화 : 051)972-5687

사 찰 안 내
• 위치 : 군산시내 10분 거리
• 법당 주산포 21평
• 요사체 신축건물 50평
지방문화재 3층 석탑, 대지 400평 등기필 있음. 동네를 끼고 있으며 경관이 수려함.
심야 보일러 태양 온수기 설치
• 가액 2억 6천 (절충 가능)
011)671-5161
063)451-2410, 451-5161

지리산 토굴터
• 경남 함양 마천
• 부지 : 1291평, 대지 : 100평
• 특징 : 600고지, 천왕봉안대
• 가액 : 3,000만원
055)963-4965
011)9542-9060

사찰 안내
• 위치 : 김천에서 15분 거리
좌청룡 우백호의 명당
유명 약수터 근접, 도로 인접
• 대지 : 1700평
• 건평 : 요사채 포함 70평
• 가액 : 2억 3천 (주지 직접)
054)432-2840/054)431-4898
017)513-4898

개인 선방 안내
• 풍광 : 앞은 예당 호수 뒤는 봉수산이 어우러진 비산비야의 명당 남향집
• 용도 : 선방, 전원주택, 서예실
• 위치 : 충남 예산군 대흥면
(예산읍에서 15분 거리, 예당호수에서 150m)
• 대지(76평) + 전(204평) = 280평
책장(천원이상), 붙박이가구일체, 커텐, 버티칼포함.
• 가액 : 8900만원(급매물)
041)333-3394
017)470-0170

오참법수행법
무량겁 죄업장을 백일정진으로 업장소멸하여 본래 청정한 자성을 보게 됩니다.
승속 남녀노소 불문하고 뜻이 투철하며 간절하고 절실한 사람은 연락 바람.
055)299-1389

전통황토방

발명특허 제 300446호
신기술 개발 벤처 기업
흙은 만물의 모체다.
천연적인 황토로 APT나 주택을 시공하며 도배나 장판을 깔지 않고 흙에서 자유로이 생활 할 수 있음
(주)지정황토산업 032)427-6644~5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시 (경주 감포 10분거리)
• 대지 : 총 970평중
450평 - 종교부지
• 요사채 60평
• 인법당포함, 건물 2동
• 특징 : 경치수려, 바다 근접
• 가액 : 1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1)495-7754

사찰 안내
• 대지 192평, 건평 70평
• 요사채 70평, 법당 20평
• 방 6개, 욕실 2개
• 주방 3개, 거실 3개
• 법당단청 했음, 미륵부처님 모셨음 산새 수려함 큰스님 병환으로 급매
• 가액 3억 5천 답사후 결정
031)952-7905

토굴 안내
• 대지 : 189평
• 법당 : 22평 • 요사 : 35평
• 수목다수, 전원주택 사용가능
• 이천시내에서 5분거리
• 가액 : 1억 3천
(전세가능 5천만원)
031)634-2136
018)238-1760
※ 특이사항 : 묵언이 좋은것 이십니까

암자 안내
• 위치 : 김천시에서
거창가는 쪽
• 부지 : 500평 • 부처님 봉안
• 건물 2동(법당 1, 요사채)
• 가액 : 6천만원
054)434-3392
011)9505-0101

포교당(급) 안내
• 경남 김해시 내동(시내중심지)
• 건물 : 40평 2층 방 2개 법당
현재 운영 중
• 가액 : 보증금 + 시설비 포함
3500만원
016)501-272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근교
• 부지 : 약 140평
• 법당 겸 요사 1동(약 40평)
• 가액 : 3천 8백만원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 평수 : 약 40평
• 보증금 천만원 월세 47만원
시설비 천 5백만원, 몸만 들어오시면 됨
02)2601-7759
011)450-7836

학인모집 (통신생 포함)
• 과 목 : 풍수, 역학, 한의침술
• 자 격 : 학력, 연령제한 없음
• 각과정 : 3개월 졸업, 수료증 수여
• 강 사 : 스님(불교대 및 승가대 교수)
• 현재수업 진행 중, 학인에 따라 진행시간 조정 함
기숙하면서 수업가능, 출가자 지원과 각과목 개원시도 협조함
주소 : 전남 나주시 영산동 269-6 원통사 승가대
☎ 061)334-9930
H · P : 016)639-9167

토굴 안내
• 위치 : 전북 남원시 백호산
• 대지 : 140평
• 건물 : 2동 (옛날흙집)
• 가액 : 수리시 2,000만원
입주시 : 1,600만원
※ 버스 정류장에서 50m거리
011)655-3883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 동구 수정동
• 건 평 : 59평
• 2층 법 당 : 24평
• 1층 요사채 : 35평
• 가액 : 보증금 3600만원 월 30만원
※ 시설 비품 각종 집기류 일체 제공
011)9885-7547

대전광역시 땅
• 전원주택 또는 별장지로 적합 산과 약수 좋음
350평, 710평, 평당 135,000원
2평 선착순
사찰부지와 접해있으므로 타종교인은 사절 함. 건축하는데는 이상 없음.
주인직접
011)9973-4248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 평수 : 3층건물 중 3층 60평
• 요사채, 큰방 주방 외에 방3개,
• 내부시설 : 석가모니불, 관음, 지장, 후불탱화, 신중탱화, 약사여래불 탱화, 피아노, 대형에어콘, 시설 A급
• 보증금 : 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8)532-7249

임법당 안내
• 위치 : 의정부 도봉산 산하
• 건물 : 24평형, 2층, 삼존불
• 특징 : 주택가, 교통편리
(화룡역 옆)
• 가액 : 5천 3백만원
016)353-8025
031)876-9644

미주사찰 안내
• 위치 : 미국 뉴욕시 한인 거주 지역
• 건평 : 60평 2층 건물
• 가액 : 미화 46만불 (5억 7천만원)
※ 종교이민 영주권 상담해 드림
0011)212-244-1443
한국시간 PM 11:00~AM 7:00
미국핸드폰 718-986-8826
212-244-1443

봉은 불교 미술원
탱화 · 벽화 전문
◇ 천불탱 괘불탱 팔상탱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8금강탱 관음탱(천수천안)
지장탱 감로탱 지옥탱 십왕탱 현왕탱 나한탱(오백나한) 신선탱 용왕탱 독성탱
◇ 무속중화탱(각종족자)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1구 493
TEL : 041)541-3545 H · P : 016)751-3545
홈페이지 : www.bongen.pe.kr
(불모 오재택의 작품사진 2000여장을 보실 수 있읍니다)
불 모 오 재 택

사 찰 안 내
• 의 치 : 충남 홍성 소재
• 부 지 : 5,300평
• 법 당 : 30평(반목재)
• 명부전 : 20평(반목재)
• 요 사 : 50평
※ 신 정상에 있으며, 서해바다 보임
※ 기도정진도량으로 아주 좋음
• 양도가 : 1억 8천
포교당
• 위 치 : 대구시 소재
• 부 지 : 40평 (2층 건물 중 2층)
• 보증금 : 1천/월 300,000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대단위 APT단지 및 주택밀집지역이며, 학원 카드 7000여장 및 1년동 500여개, 교통중심지임
※ 스님 유학관계로 급히 양도함
※ 내부시설 A급 임
한국초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양도안내
• 대지 : 600평
• 대웅전 : 30평 • 삼성각 : 8평
• 요사(2동) - 1동 : 70평 - 2동: 30평
• 위치 : 포천 근교
• 특징 : 산세와 주변 경관 수려
기도영험도량, 교통편리지역
• 가액 : 3억 5천
사찰전문중역 - 금강기획
02)736-3578~9
011)789-2255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부북면 소재
• 평수, 대지 : 약300평
• 건물 25평 방 3개 주방 화장실
• 특징 : 화악산 자락 해발 600고지 산세 수려함
• 가액 : 6200만원
055)854-5205
017)856-3617

사찰(터)안내
• 위치 : 부산에서 30분 거리
(절터로 명당)
• 대지 : 1100평 • 건평 : 100평
• 건물 : 황토방 요사채, 본당목조건물
• 특징 : 산세가 좋고 자연공원
소나무 숲속에 위치
• 가액 : 상담 후 절충
011)833-4669
052)269-4669

사찰 안내
• 위치 : 경주 동대 뒷편
10분거리
• 대지 : 162평
(법당, 삼성각, 요사)
• 가액 : 답사 후 절충
• 특징 : 비구니 도량으로 적합 함
054)745-6966

찬불가 피아노 렛슨
피아니스트 도연
◇ 초보 찬불가 피아노 3개월 완성 ◇
◇ 찬불가 합창반주반 ◇
◇ 가요 · 팝송 · 가곡연주반 ◇
클라식과 재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 직업연주반 ◇
피아노 전공자만 가능
에드립 및 재즈와 클라식과 실용음악을 응용
◇ 피아노과 입시생 실용음악과 입시생 ◇
도연피아노학원
02-741-2214/018-272-2815
총장연주(법희 산사 음악회 · 전은석)
■ 연주곡 들어 보신 후에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종로 3가 지하철 앞 (1.3.5호선)대각사옆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왜관
• 법 당 : 30
(목조포집)
• 요 사 : 60평
• 부 지 : 1,400평
• 가 액 : 5억
• 위치 : 경남 창영
• 법 당 : 12평
• 요 사 : 30평
• 부 지 : 650평
• 가 액 : 2억 3천
• 위치 : 인천
• 법 당 : 30평(포교당)
• 요 사 : 20평
※ 시설비 없음
• 가 액 : 6천(전세)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평구청 지하철역 30m
• 평수 : 35평 방 2개 에어콘 설치
4층상가건물 3층
• 구조 : 본존불(탱화), 지장보살(탱화) 신중전(탱화), 영가단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5만원
• 시설비 : 1,000만원
032)506-2369
018)350-5807

토굴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산 5번지
• 30년된 건물 : 15평
• 돌지붕, 전기, 전화있고 비포장으로 농노길, 외진곳
• 실사용 : 200평
• 가액 : 500만원
011)707-9837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군포시
• 대지 : 120평
• 건물 : 120평
• 가액 : 5억 3천 (융자 1억 포함)
교통 및 주변 여건 아주 좋음
(불기구 약 5천만원 상당, 무상제공)
안양시 만안구 안양 3동 873-156 신화부동산
031)446-1133
016)356-1133

사찰부지 및 가족묘지 가능
• 위치 : 경북 안동 일직
국곡리 남안동 IC에서 5Km
• 임야 : 2,180평
• 가액 : 2,000만원
011)522-1122

목조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1. 방충, 방염성 방부제
2. "곰팡이 방지 및 제거제, 퇴색방지 발수제"
3. 부식된 목재 복원
02)3474-6232/031)479-2940
http://www.dongwhaind.co.kr
(주) 동화특수 산업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사량면(사량섬)
• 부지 : 임야 3800평
• 종교시설허가용지 : 400평
• 법당, 요사채 : 35평
• 가액 : 1억 3천만원
※ 기타 모텔 부지로도 가능함
전면 청정해역 바다
뒷산 산세수려하고 계곡물이 아주 좋음
011)845-3430
051)506-3292

토굴 안내
• 대지 : 165평, 재래식 흑집
• 방 2칸, 부엌 1칸
• 가액 : 750만원
054)437-0150
경북 예천군 상리면
명복리 내현마을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번화가
(3층 건물 3층)
• 시설 : 50평 법당, 육존불,
후불탱화, 방 2개, 주방 등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016)261-2068

지리산 사찰부지
• 위치 : 육조 혜능 스님의 정상이 모셔져 있고 일찍이 스님께서 예언한 해동제일의 명당쌍계사를 마주 하고 있는 화계장터 십리 벚꽃길 우리나라 최초의 녹차 시배지
• 현재 100% 녹차 밭 (1954평)
• 지번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330, 606-2, 607
• 도로접 즉시 건축 가능
• 가격 : 평당 10만원, 주인직접
011)875-5500

포교당 안내
• 법당 1동, 종각 1동
요사채 3동, 대지 260평
서부 경남 지역
• 가액 : 답사 후 절충
055)746-7350
017)552-7350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앞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 부지 : 2000평, 동강 내리 계곡이 앞에 흐르고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봉황이 연꽃안에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경관이 아주 좋음
• 기화건물 : 40평, 방 8개 주방 욕실 법당이 되어 있고 천탑을 조성하기위하여 지연돌 수십톤 확보가 되어있음. 건강관계로 급매
• 가액 : 2억 3천 답사 후 절충
018)533-7780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법당 : 30평
• 가액 : 3억 9천만원
• 부지 : 75평
• 요사 : 35평
• 특징 : 산아래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경남 인터넷불교방송국 10월 개국

WWW.108korea.com…이사장 지성스님

옥천사 등 50여 사찰 참여 사이버 포교



◇내달중 개국하는 '경남 인터넷불교방송'의 초기화면.

경상남도 소재 쌍계사, 해인사, 통도사의 50여 말사들이 인터넷 불교방송국을 만든다.

경남인터넷불교방송국(www.108korea.com) 개국준비위원회는 8월 31일 경남 하동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10월까지 인터넷방송을 개국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그간 인터넷 불교방송은 유력 사찰과 불교단체, 불교업체에서 개국했지만 지역사찰이 힘을 합해 포교를 위한 인터넷 방송 매체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명의 발기인 스님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고문에 쌍계사 조실 고산스님과 해인사 원로수좌 도견스님, 이사장에 고성 옥천사 주지 지성스님, 개국준비위원장에 고성 계승사 주지 법진스님, 사장 겸 방송국장에 김종일 (주)인터넷불교정보(www.korea108.com) 대표를 선임하고 방송국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경남인터넷불교방송국의 이사를 사암 주지 10여명으로 구성하고, 개국전까지 50여 사찰을 후원사찰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방송편성과 촬영 및 제작은 인터넷불교정보 웹개발팀과 PNI 영상제작팀이 맡을 예정이다.

경남인터넷불교방송은 뉴스, 불교강좌, 영상법문, 문화예술, 음악, 다큐멘터리, 특별기획전, 방송이야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적으로 불심이 강한 부산, 경남지역 불자들의 신행과 문화생활을 이끄는 사이버 포교사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사장에 내정된 옥천사 주지 지성스님은 "사부대중의 성지이자 문화유산인 사찰을 보호하고 영남 불교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지역 포교매체가 필요하다"며 "50여 사찰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 불자들의 유익한 불교신행의 길잡이가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청담정보고 조선족 돕기 컴퓨터서적등 기증키로

불교종립학원인 평택 청담정보통신고(교장 이근우)가 연변 조선족 동포돕기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담정보통신고는 최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국땅에서 민족문화를 계승, 보존해 나가고 있는 연변 동포들의 생활상을 전해 듣고 컴퓨터 등 전문서적과 교양서적 수만권을 모아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장은 "지난해부터 정보통신 특성화 고교로 전환되면서 정보통신, 신간서적 등을 제외한 일반 교양서적들의 이용률이 낮아, 이 책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국에 사는 동포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조선족 돕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여주교도소 관음상 점안

여주교도소는 6일 여주교도소 구내 대운동장에서 관세음보살상 점안식과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번 관세음보살상 점안식은 지난 7월 15일 수원교도소가 여주교도소로 신축, 이전하면서 여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불교분과위원회(회장 성무스님)와 제2교구 본사 용주사의 본말사 주지 스님들의 원력으로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재소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고자 조성된 것이다.

이날 법회에는 용주사 교무 성무스님 등 불교분과위 스님들과 신도 100여명, 불자 재소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재경 기자

'러' 달라이라마 입국 거부 중국 관계개선 영향인듯

러시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의 제스처로 달라이라마의 통과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며 올 연말로 예정된 그의 러시아 방문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3일 AFP통신이 보도했다.

AFP 보도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의 대변인인 은가방 수엘렉은 이날 달라이 라마는 뉴델리를 출발, 모스크바에서 울란바토르행 항공기를 갈아타려 했으나 통과비자가 나오지 않아 3~17일로 예정됐던 몽골방문이 연기됐다고 말했다. 몽골에는 전세계에서 티베트불교 신자가 가장 많이 분포돼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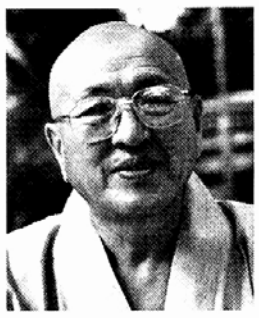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의 측근은 또 올 연말 달라이 라마가 시베리아 동부 투바 등 불교도가 다수를 이루는 러시아 내 일부 공화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러시아 외무장관이 불교 지도자들에게 "달라이 라마의 올해 입국은 적절치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보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경 기자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출-재가 한마음으로 '보시하는 삶' 지향"

밀양사암련 태우스님



"밀양은 사명대사의 생가가 있는 호국성지입니다. 호국 불교의 기틀을 다졌던 사명대사의 뜻을 받들어 충효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불교의 발전을 꾀하는 포교사업을 펼 것입니다."

매년 표충사에서 치러지는 사명대사의 춘계 향사를 주관하는 것을 비롯 불우이웃돕기, 경로잔치 등으로 지역민과 함께 하는 불교를 표방해 온 밀양시사암연합회 회장 태우스님(부은사 주지)은 "부모와 나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불어 사는 지혜를 터득하게 되어 있다"며 호국불교가 담고 있는 의미를 전했다.

태우스님이 평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보시하는 마음'이다. 올 초 파일에 가곡동복지관, 예림신망원, 성우애육원, 자림원 등의 단체에 보시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 매년 초파일이나 경로잔치 등에서 불우한 이웃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여름불교학교·합창공연 자랑

또한 밀양여고 심보정 학생의 백혈병 수술비를 지원했으며 종립학교인 홍제중학교에도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7일 개교 53주년을 맞이한 홍제중학교의 기념식에 참석, 장학금을 전달한 태우스님은 "교육불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매년 여름 사암련 산하의 청년회가 주최하고 있는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도 아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밀양시사암연합회는 거사림회 성격의 불교발전연구회와 청년회, 합창단 등 재가 조직이 합쳐진 모임이다. 청년회는 10년째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열어 동심에 불심을' 심고 있다. 창립 6주년을 맞은 불교발전연구회 역시 매월 법회, 불교교리 공부로 신심을 다지는 한편 매월 회보 발행으로 불법 홍포에 매진하고 있으며, 합창단도 매년 정기연주회를 열어 찬불가를 통해 부처님 법음을 전하고 있다.

종합불교회관 건립 숙원사업

1984년 지혜스님을 초대회장으로 창립된 밀양시불교사암연합회는 초창기부터 장학금 지급, 불우이웃돕기를 이어오면서, 현재는 100여개 회원사찰이 동참하고 있으며 불교회관 건립이라는 숙원사업을 남겨놓고 있다.

스님은 "신행단체 사무실, 종단 사무실, 법회공간, 예식장 등으로 활용될 불교회관 건립에 밀양 불교의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며 "호국성지인 밀양 불교의 터전이 될 불교회관 건립에 승가와 재가가 뜻을 함께 하고 있으니 반드시 성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밀양=천미희 기자


◇신라불교문화 중흥에 나설 예정인 불국사 문화회관 전경.

천년 신라불심 꽃피운다

불국사 경주에 불교문화회관 21일 열어

유치원 · 법당 등 갖춰

천년고도 경주의 불교문화를 책임질 불교문화센터가 문을 연다.

불국사(주지 성타)는 21일 오전 10시 경주시 성건동에 소재한 불국사 문화회관 3층 대강당에서 불국사 문화회관 회향식 및 월산 큰스님 4주기 다례식을 거행한다.

50여억원을 들인 불국사의 숙원사업으로서 2년여 공사 끝에 낙성식을 갖게 된 불국사 문화회관(관장 성타)은 686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 4층 연건평 1434평 규모의 대형 불교회관. 경주시내의 불교사회교육원이 불교교양대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포교에 치중한다면, 문화회관은 문화포교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창달에 기여할 전망이다.

1층에 불국유치원(정원 150명), 2층에 사무실과 강의실 및 전통찻집, 불국사합창단 및 선재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3층에 대강당 겸 다목적실(영상 · 음향시설), 4층 법당(3000불 조성) 등의 시설을 갖춘 문화회관은 각종 법회와 불교강연은 물론 연극, 영화, 음악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054)746-2211

김재경 기자

아시안게임 성공발원 팔관회

부불련 23일 해운대서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는 23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 기원 팔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팔관회는 신라시대부터 행해지던 불교의식으로 윤등을 설치하고 향등을 달아 저가 신도들의 마음을 청정히 하고 그릇됨을 방지하여 공덕을 쌓는 재일이다.

그러한 전통 불교의식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마련된 팔관회는 팔재계 지키기 운동, 2002년 아시안게임 홍보 및 성공개최 기원, 불교전통의식 팔관재 봉행, 국악과 함께 하는 찬불공양, 연등 공양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수륙고혼을 천도하는 영가천도의식에 이어 계율 법회를 열어 모든 불자들의 신심을 다지는 한편 하루 자비의 쌀 모으기 운동을 벌여 팔재계의 구체적 실천을 이끌어 내며 근검절약과 생명사랑의 정신을 일깨우게 된다.

성재도 연합회 사무국장은 "팔관회의 정신을 이어 재가 불자들이 마음을 맑히는 수행으로서 몸과 마음을 청정히하여 신심을 돈독히 하는 것은 불교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팔관회 봉행의 의미를 설명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부산 신광사 7인 큰스님 초청법회

18~24일 개원법회 기념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10일 정무스님을 증명법사로 부산분원 신광사(주지 실상)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신광사에서는 개원기념으로 18일부터 24일(7일간)까지 매일 오전 10시에 7인 큰스님 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

△18일 정락스님(불교와 효, 전 포교원장) △19일 인환스님(신앙의 장, 전 동국대교수) △20일 무진장스님(대승불교, 전 포교원장) △21일 보각스님(근본불교, 승가대교수) △22일 묘주스님(화엄사상, 동국대교수) △23일 영도스님(지장신앙, 건봉사주지) △24일 설호스님(법화사상). 문의 (051)467-5363

김재경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無病長壽
무병장수를 기원하는「윤년수의」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 말로 진정한 효의 실천입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진정한 윤년수의는 윤달에 만들어진 수의입니다.
• 남자 - 도포,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이불, 요,장매, 악수, 버선, 도포끈, 베개, 허리띠, 댓님, 오낭, 면모, 행전, 턱받이, 면포 (총 20종)
• 여자 - 원삼,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속치마, 치마, 이불, 요, 장매, 베개, 원삼띠, 면모, 악수, 버 선, 오낭, 턱받이, 면포 (총 18종)
삼베壽衣
▲ 오동나무 박스 ▲ 향나무 박스
품 명 | 백화점가격 | 불자님가격 | 특 별 혜 택
삼베 二品 | 600,000원 | 550,000원 |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 一品 | 900,000원 | 798,000원 |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 特品 | 1,320,000원 | 1,150,000원 |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수직 特品 | 1,870,000원 | 1,450,000원 |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안동포 七升 | 4,200,000원 | 3,950,000원 |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 수제 주문시 요금이 10% 추가 됩니다.
※ 제작기간은 날짜와 시간에 정확히 배달하여 드립니다.
株式會社 安東삼베 ANDONG HEMP CLOTH CO.,LTD.
본사/공장 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439-1
서울영업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0-8호 혜성빌딩 1F
TEL. 02.586.2544 영업부. 02.586.2553~5
무료상담전화 080.588.2544

신비의 마이산 탑영제 방생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서울 대전 대구 전주 광주 마이산 40분
진안 마이산 탑사
☎ 063)433-2900,0303
432-0652,0072

대구 관음사 · 부산 장안사 · 청주 정음사원 · 철원 해룡사 …

납골시설 주민반발로 난항

행정당국 "민의 때문에" 미온 대응

사찰 납골당 건립이 지역 주민의 반대로 지연 또는 중단되고 있다. 특히 납골당 설치를 심의하는 행정당국이 '법적 하자는 없지만,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찰과 주민간의 불협화음만 낳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에서 장묘제도 정착을 위한 확고한 정책을 수립하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대구 관음사는 경내에 29평 정도의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면 8월 21일 관할 남구청에 신고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신고필증 교부 자체가 불투명하다. 주민들은 납골당으로 인한 교통혼란, 지역개발 저해 등을 내세워 사찰과 구청을 방문해 항의하는 등 실력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의 기한인 27일까지 관음사 납골당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남구청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의식해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는 등 교부와 관련, 부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찰과 주민 사이의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대구 관음사가 8월27일 개최한 2차 공청회에서 주민 및 시 · 구의원들과 납골당 설치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관음사 외에도 경내 납골당 설치 문제를 놓고 인근 주민들이 마찰을 빚은 사찰은 청주 정음사원, 부산 기장군 장안사, 철원군 해룡사 등도 있다. 대부분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지만 지연 또는 중단된 상태다.

이중 정음사원의 경우, 6월초 관할 시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커 2개월 만에 자진 반납했다. 납골당을 혐오시설로만 생각하는 지역주민의 님비(NIMBY · Not In My Backyard) 현상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납골당에 대한 님비 현상 때문에 또 내과전문병원으로 운영될 부산 북구 불교병원의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병원과 함께 납골당이나 장례예식장 등의 혐오시설이 들어 올 것'이라는 불교병원이 들어설 부지 인근 주민들의 우려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8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 영월군과 충북 청주, 울산의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 계획이 주민 반대로 사실상 철회됐고 서울, 인천, 충북 충주, 전북 정읍, 경남 김해의 화장장 및 납골당도 주민들의 반발로 건립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 님비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선 행정당국은 "법적으로 사찰 내 납골당 설치가 용이해졌지만, 지역 정서라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납골당 관련 시행령 자체에 허점이 많다" 등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교계는 "단순히 사찰과 주민과의 쌍방대립으로만 방관하지 말고 모두가 자치행정의 몫임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의 묘지 난을 해소하고 지역 특수성을 살린 홍보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조계종복지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사설납골시설 중 불교 관련 시설이 64.3%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양산 천성산 늪 13곳 발견

동 · 식물 180여종 서식

경남 양산시 하북면 천성산과 정족산 사이 노전암, 안적암, 조계암 인근 해발 270~600m 높이 산자락에서 중 · 고층습원(늪) 13곳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울산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은 지난 4월부터 천성산 일대에서 생태계 조사를 벌이던 과정에서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와 백록리 일대 천성산과 정족산 사이에서 늪 13곳을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늪은 안적봉 일대에서 4곳, 대성암 일대에서 6곳, 노전암 일대에서 3곳이 각각 발견됐으며, 규모는 4천㎡~4만5천㎡ 정도이다.

일부 늪에선 털두릅나무와 흰벌개미취 등 아직 학계에 분포사실이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식물이 발견됐으며 끈끈이주걱 이삭귀개 등 식충식물을 비롯해 150여종의 식물이 확인됐다.

또 삵 너구리 노루 황조롱이 참매 아무르산개구리 등 30여종의 척추동물을 비롯해 꼬마잠자리 각시멧노랑나비 장수풍뎅이 등 희귀 곤충의 서식사실도 확인됐다.



정족산 북동쪽 사면에선 지난 1995년 무제치늪이 발견돼 환경부가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천성산 남쪽과 남서쪽 사면에서도 지난 99년 밀발늪과 화엄늪이 발견된 바 있다.

'울산 생명의 숲' 교육분과위원장 정우규 박사는 "늪은 대부분 자연상태와 생태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나 주변의 내원사 경내지의 임도 개설 및 목초지 개간에 따른 지표수 부족으로 급속한 육상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6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 불교환경연대 창립법회 모습.

"불자 모두 환경보살 되자"

불교환경연대 6일 출범…백두대간 실태 조사

생태 · 문화 · 종교 환경을 수호하는 업그레이드된 범불교 환경단체가 공식 출범했다. 불교환경연대는 6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는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장 법장 스님과 김명자 환경부장관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열고 '불자 모두가 환경보살이 되자'는 서원을 세웠다.

이에 앞서 불교환경연대는 창립총회를 열고 공동대표에 수경스님(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상임대표 인터뷰 4면), 청화스님(조계종 종회 부의장), 법등 스님(전 조계종 종회의장), 김동민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김기병 포교사단장, 임완숙 교사불자연합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법회에서 상임대표 수경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동체대비의 큰 가르침을 우리의 좌표로 삼아 먼저 내 마음을 밝히고,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하는 보살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대 총무원장 스님(대독 법장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대로 온 생명 살리기 운동이 펼쳐질 것을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자 환경부장관도 축사에서 "불교환경연대가 우리나라 종교계의 환경보전 실천방향의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환경회의 대표 최용록 신부와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총장, 녹색연합 임삼진 사무처장 등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연대사를 통해 "불교환경연대의 아름다운 활동이 생명운동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창립식에 이어 이달말까지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을 중심으로 자연, 생태, 문화 실태 조사에 나선다. 또 자연생태계 보존사업과 함께 교육 홍보 연구 출판 사업을 병행하며 환경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불교환경연대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다른 환경단체와도 연대해 환경보호 운동을 펼치는 한편, 빠른 시일내에 각 지역별 산하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의정부사암련등 24개단체

북한산 도로 반대 시위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와 좋은일하는사람들의모임, 우이령보존회 등으로 구성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대책위원회'와 광릉숲보전협의회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12일 오후 2시 의정부역 앞에서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연다. 이들 단체들은 8월 30일부터 의정부역, 의정부북부역, 망원사역, 회룡역 등에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김재경 기자

은평노인복지관

'어르신 문화센터' 운영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13일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녹색경로당에 분관 사무소를 개설, '어르신전용문화센터'를 운영한다. 녹색경로당 3층 여유 공간에 마련되는 문화센터는 공동작업장, 상담실, 컴퓨터 노래 · 종이접이 교실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복지관은 은평구의 지원을 받아 컴퓨터를 설치하는 등의 시설 정비에 들어갔다. 분관 사무소 개소식은 13일 오후 4시 녹색경로당. (02)385-1351

오종욱 기자

조계사 백중방생법회

조계사가 3일 오전 충남 천안 각원사에서 야생 동물을 풀어주는 백중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300여명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방생법회에서는 밀렵으로 잡힌 고라니, 너구리,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등 23마리의 야생동물을 각원사 인근 야산에 풀어주었다. 이번 방생법회는 환경문제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방생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기 위해 밀렵이나 환경 파괴로 인해 부상을 입은 동물들을 치료해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자는 취지로 이뤄진 것이다. 한명우 기자

불교장기수후원회

'인권상담소' 설립

비전향장기수 북송과 잔류 장기수 및 양심수의 생활지원 등의 활동을 펼쳐 온 불교장기수후원회(회장 성관 스님)가 불교인권상담소(가칭)를 설립, 외국인노동자, 탈북자, 사형수 등의 인권보호 단체로 확대 개편된다.

장기수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불교인권상담소를 창립, 비전향장기수의 추가송환 및 생활지원, 서신교환 등의 사업을 계승하면서 사형수, 탈북자, 외국인노동자, 일본군 종군위안부 등의 인권문제를 다룰 방침이다.

특히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인권침해를 당한 봄자들의 법률적 상담을 위한 노동 복지 환경 인권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뒤쳐져 있는 불교인권운동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수후원회는 좋은벗들, 경불련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등 교계 인권단체와 동국대 조국교수, 민주변호사협회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운영위원 등 집행부 인선에 나선 상태다.

불교장기수후원회 운영위원장 혜조 스님은 "장기수를 돕기위한 활동도 여전히 필요하지만, 불교계 내의 인권의식을 신장시키는 일이 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조직 확대를 기획하게 됐다"며 개편취지를 설명했다.

김재경 기자

'천천클럽' 후원자 1천명 눈앞

1,000명의 회원이 매달 1,000원씩을 모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천천클럽(회장 오종근)이 목표인 후원인 1,000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북지역 불자들이 모임인 우리는선우 전주지회가 모체가 되어 1999년 2월 30여명으로 출발한 천천클럽이 2년 8개월만인 9월 현재 950여 명으로 회원이 늘었다.

여기에는 종교의 벽을 뛰어넘은 성직자며, 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다수가 매달 1,000원을 내는 일반회원으로 10년분(10만원)을 한꺼번에 낸 평생회원도 100여 명이나 된다.

천천클럽은 회원들이 정성을 모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20여명에게 매달 일정액의 후원금과 쌀 등을 보내고 있다.

오 회장은 "천천클럽은 액수는 많고 적음 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정성을 모은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복지재단과 장학재단을 설립해 조직적인 봉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011)652-8892 오종욱 기자

'마음고운 禪房
불교 방송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활동을 시작한 정목 스님의
작고 고요한 공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4거리
☎ 02) 548-0218, 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天藥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業也**(연년 불로 선경악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지리산자락
무주구천동 신비의 다슬기 산마루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回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回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황겨 9가마니를 덮은 뒤 황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짱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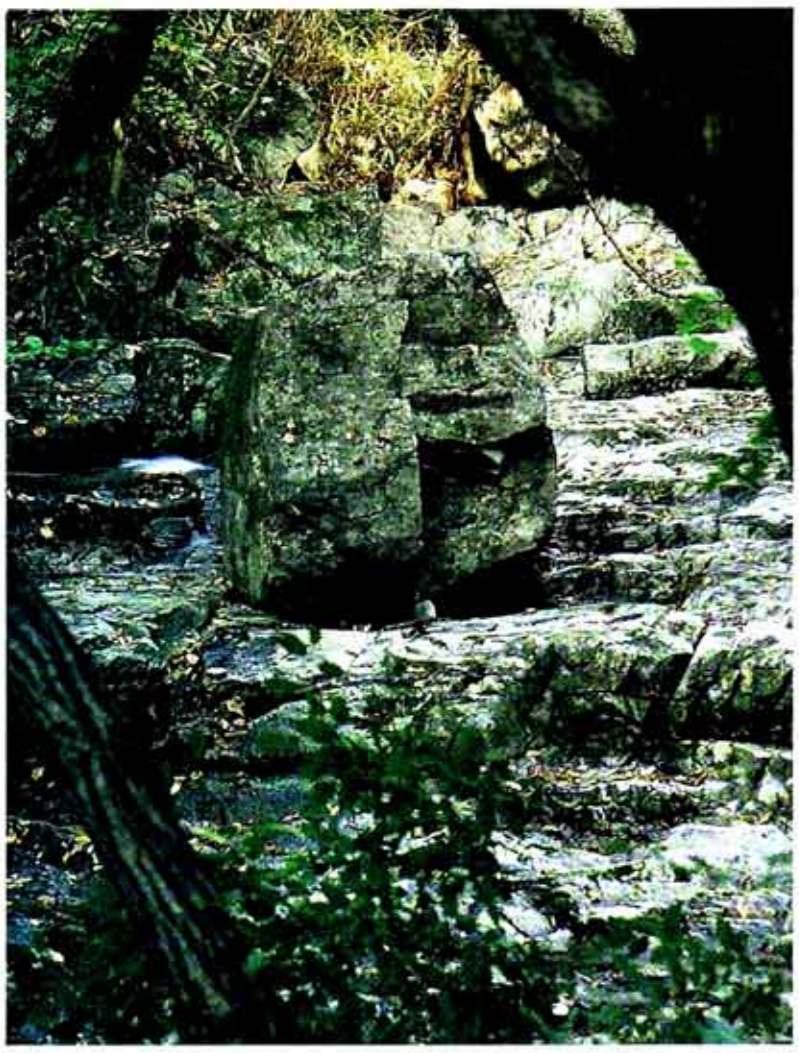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은 인간 삶과 정신의 뿌리

감성으로 보는 절

<14>산속의 삶-선의 삼매경



◇도봉산 천축사 가는 길.

동산에 해뜨고 서산에 해지듯 산과 생활은 밀착

이끼낀 산속의 돌도 닦는 보살처럼 용맹정진 선 수행

좀 오래 전 일이다. 나하고 사진을 같이 공부하는 어떤 이가 하루는 '화두(우리는 사진의 주제를 이렇게 부른다)' 를 갖고 왔다. 늘 주제를 잡지 못해 방황하면 그이는 머뭇거리듯 내 눈치를 살피며 화두를 꺼냈다. "산을 찍으면 어떨까요?" "산? 산이 찍고 싶은가요?" 그의 심중을 떠보듯 내가 물었다. "글쎄요. 그냥 산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투가 어째 자신이 없어 보였다. "밥은 먹고 살을 때 먹는 거예요. 막연히 그래선 화두가 안돼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도 내친김이란 듯 이번에 좀 힘 있게 말했다. "그냥 산이 좋아요." "그래요? 말도 하고 싶은 건 해야 하듯이, 사진도 찍고 싶은 건 찍으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산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옛날엔 산이 우리의 삶이었다. 온 나라 땅의 칠할이 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니까, 산과 우리네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터전일 수 밖에 없었다. 산과 산 사이 골짜기에 들이 있는 곳이면 마을을 일구고 살았다. 아침 저녁, 하루를 산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아침에 해 뜨는 것을 동산에 해 뜬다(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인가!)고 했고, 저녁에 해지는 것을 서산에 해 진다고 했다. 산이 없으면 해도 뜨지도 지지도 않는 것이 우리네 삶이었다. 산이 없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없는 것이다. 풍수는 산과 우리네 삶이 밀착된 데서 생겨난 우리네 정신이고 정서였다. 서양에선 산의 이름을 대개 그 산을 정복하거나 처음 밟았던 사람의 이름을 붙여 짓지만 우리네는 산의 생김새를 동물의 모습에 비유하여 붙이거나 우리네 정신의 바탕이 되는 상징에 따라 붙였다. 소가 누워 있는 것 같아 와우산, 용이 날아가는 것 같아 비룡산, 금강석 같은 불법의 세계를 비유해 금강산. 이런식으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산이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엔 산을 서양식으로 생각하여 건강체조하는 기분으로 '등산' 을 하고, 높은 산에 올라 간 것을 '산을 정복했다(산을 정복해?' 고 생각하여 봄내고 하지만, 예전의 우리네는 아예 '등산' 이란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다. 불경스런 말이다. 왜냐하면 산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신령스런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으면 산으로 간다. 그것이 산소(山所), '산에 있는 곳' 이다. 그리고 산에는 산신, 산신령이 살고 있어서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믿었다. 서양은 높고 험한 산이 많은 곳이고, 인간위주의 생각을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산을 정복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고, 인간의 힘이 자랑스럽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세상을 내려다 보는 쾌감을 즐겼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높고 험한 산는 악산이라고 해서 피했다. 우리네 산은 늘 따사로운 삶의 터전을 생각하고 살았다. 산에서 우리네 조상은 삶의 내면적 깊이를 찾았다. 그러므로 산속엔 무당같은 민속신앙의 꽃이 피고 있었다.

이러한 우리네 삶과 깊은 연관이 있는 산을, 요즘 사람들은 서양식으로 산세의 우람스런 모습만 드러내는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우리네 정서를 드러내는 사진은 아니라고 나는 믿는다.

이런 생각을 대충 정리하고, 우선 서울과 연관이 깊은 북한산을 찍기로 했다. 첫 날 나는, 도봉산에 있는 천축사 코스를 답사 겸 같이 갔다. 산 속으로 들어가자 복잡한 도심의 때가 벗겨지고, 자연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 그런데 이상했다. 사람도 짐승도 없는 산 속 곳곳에 웬 사람들의 모습이 도처에서 나를 놀라게 했다. 참선의 삼매에 깊이 빠진 보살들의 모습이였다. 어느때 부터일까? 이끼가 끼고, 형상이 닳아 없어지고 있는 저 모습, 세월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오랜 동안, 구도의 길을 가고 있는 보살. 어떤 것은 새의 모습이였고, 또 어떤 것은 오소리의 모습, 또 어떤 것은 이미 해탈의 경지에 이른 듯 편안한 사람의 모습, 또 어떤 것은 이미 형상을 다 잃고 돌이 되어 있었다. 옆에서 만져도, 귀에 대고 소리쳐도, 눈을 코앞에 들이대도, 이미 선정 삼매에서 삶을 벗어나고 있는 그들은 오로지 용맹정진하고 있었다.

나는 그 이후 그 모습이 내 정신세계속에서 보석처럼 깊이 박혀 헤어나지를 못했다. 나무 사이로 빼꼼히 내다 보이는 저 한쌍의 형상은 무엇을 향한 화두를 갖고 있을까? 나는 주저 앉아 넋을 잃는다.-그가 나에게 말한다. 차나 한 잔 들게.

전생(사진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37년간 노력의 결실을 부처님께 아뢰는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에 참석한 불자들.

정신문화 빛낼 '우리글 법보'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1만여 사부대중 환희

고불의식 · 법전스님 법어

5일 서울 장충체육관. 1만여 명의 대중이 장충체육관을 가득 메웠다. 가사 장삼을 갖춘 노스님에서부터 한복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불자에 이르기까지 환희심 넘치는 사부대중들의 모임이었다.

조계종과 동국대학교가 마련한 '법보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 현장이다. 우리나라에 불법이 전래된 이후 1,600년 만에, 고려대장경 완성 700년 만에 우리말 대장경으로 탄생된 탓인지 법회시작 전에 객석은 물론 계단까지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다. 법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불자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복도에서 회향법회를 볼 수밖에 없었다.

법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자들 어깨 너머로 법회장을 살피던 김남진(39 · 서울 구로구 고척동)씨는 "부처님의 말씀을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옮겼다는 것은 한국불교사에 길이 남을 대작불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1시30분, 한국불교계의 숙원사업이던 한글대장경이 37년의 인고 끝에 회향을 알리는 법회가 시작됐다.

이날 법회의 하이라이트는 한글대장경이 완간되었음을 부처님께 고하고, 그 공덕을 다시 중생 모두에게 고루 나눈다는 의미로 진행된 고불식. 318권의 한글대장경을 부처님께 봉헌하는 순간 1만여 사부대중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와 환호로 우리말 대장경 완간을 축하했다.

고불식에 이어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법전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이제 우리말 대장경 318권을 가지게 되었다"며 "이는 제불제조가 찬탄한 일이요, 호법선신이 환희할 일이요, 이 시대 사부대중들이 참으로 용약할 일이다"고 설했다.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 스님은 치사를 통해 "이제 감로의 법문이 활짝 열렸으며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며 "모든 불자들은 이 경전의 말씀을 매일 읽고 실천하여 자신의 무명을 밝히는 등불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향법회에는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이 직접 쓴 글에 정부기 교수(중앙대 작곡가)가 곡을 붙인 한글대장경 완간 기념 찬불가 '그대여 보라, 들으라 그리고 알라' 가 1천 여명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장중한 음성으로 울려퍼지면서 법회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회향법회 후 국악찬불가수로 널리 알려진 김성녀 씨의 사회로 정륜 스님과 장사익 씨를 비롯 국립국악원 사물팀,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이 신명나는 회향 한마당을 펼치며 3시간 여 동안 진행된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김중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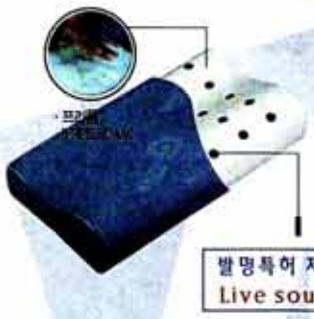
경 상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전통적인 경상을 현실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하였습니다



- 특징 : 이음새 부분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홈을 파서 제작하였습니다.
- 재질 : 알마시카
- 규격 : 가로 74Cm × 세로 33Cm × 높이 30.5Cm
- 가격 : 130,000원

37°氣 배개



※ 프리폼(FREE FOAM) 이란? 미항공우주국 NASA에서 개발한 저탄성/고밀도 중격 흡수 소재입니다.
- 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잦은 두통 · 불면증 · 어깨결림 · 심한 코골이에 시달리시는 분
- 재질 : 프리폼(FREE FOAM) + 커버(면 100%)
- 색상 : 아이보리, 하늘색 ● 가격 : 69,000원

발명특허 제0188231호
Live soul기(氣) 암석

37°氣 방석세트



- 특징 : 지압효과 · 보온/방습효과 · 항균작용 미끄럼 방지 · 개성있는 디자인
- 효과 : 생리통, 냉대하, 두통, 냉습, 신장기능저하, 신진대사불량
- 재질 : 발포체(폴리우레탄)
- 색상 : 연보라, 베이지
- 구성 : 방석 + 등받이(의자용)
- 가격 : 40,000원

미농 혼식 세트

아직도 흰 쌀밥만 드십니까?

신비한 효능을 지닌 버섯들의 곡사재품 식이섬유와 무기질, 비타민 등이 풍부한 수 국내산 현미/보리쌀에 배양시켜 버섯이 가지는 우수한 성분을 매끼 밥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신개념의 기능성 혼합니다.



- 구 성 : 상황버섯 쌀(800g) 동충하초 쌀(800g) 영양균형 혼식(720g) 상황보리 쌀(750g)
- 총중량 : 3070g ● 가격 : 33,000원

동(銅)공예 달마도

100% 수작업의 동(銅)공예달마도는 엄선된 동공예 작가들이 명예를 걸고, 전체 18번의 수작업 공정을 거쳐 완성된 명품입니다.



- 사이즈 : 가로 38Cm × 세로 44Cm
- 가 격 : 120,000원

※ 100% 수작업으로 제작된 작품이라 상기 작품과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발송기간은 4일정도 소요됩니다.

불교문화상품전문사이버몰 마하몰이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

Mahamall 불교문화상품전문사이버몰 www.mahamall.co.kr

02)732-1522